

MAXIM

SOUTH KOREA

피라냐 3D의

Kelly Brook

<레지던트 아블4>의
Sexy Spot! 캐시 반필드
이보다 상큼할 순 없다 아이유
위스키보다 진한 J&B Dolls

MAXIM PARTY

ICON 배트맨의 집사
MICHAEL CAINE

Starcraft 짐 레이너
로티플 스카이
프로레슬러 김남훈
배우 박희본

BODY

말뚝지 만드는 피트니스
발기부전 뽀개기
하아~입냄새에 관한 고찰

헐! 롤러코스터
이해인

2,690만원의 대결
HONDA 시빅 vs
DODGE 캘리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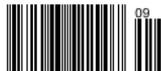
질러라! 대세는 픽시 자전거
돌돌한 태블릿 PC
태풍의 핵, 신형 아반떼

노유민과의 만남
재기발랄 윤성호 감독
MAXIM이 연극티켓 쓴다
공TM 해설가 채정원



MAXIM 구독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쉽 게 없 이 산둥이 터진다!
MAXIM 라일호 / 태워라 (연극발판) 시리즈 에디션 / 영화 (피라냐 3D) 시리즈 티켓
/ 샌드본 케이스 / Columbia 이모션이 완공 / 간지발랄 티셔츠 / 리버 똥똥의 Easy Tone
/ 눈여 박싱권

SEPTEMBER 2010



9 772093 422007

ISSN 2093-422X

www.maximkorea.net

Features

2010
SEPTEMBER

82

이해인

순수함과 색사함이 공존하는 매력 만점의 이해인을 만났다.

33 FITNESS

하체는 모든 운동(딱질 포함)의 기본이다. 트레이너 강이 첫 가락 같은 당신의 다리를 훑날 두 말박지로 바뀔 줄 비법을 공개한다.

36 GIRL NEXT DOOR

그녀의 각선티에 MAXIM 남자 스태프는 환기증을 느낄 정도였다. 독자 모델 최이운의 매력에 폭 빠져보자.

90 켈리 브룩

34에 달하는 참한 가슴, 깨끗한 얼굴과 완벽한 허리를 더하면? 영화 《피라냐 3D》로 우릴 두근거리게 하는 영국의 자존심 켈리 브룩이 정답.

88 ICON: 짐 레이너

(스타크래프트2)의 간지 마초 남 짐 레이너가 MAXIM에 한력 출연했다. 《스타2》 패돌이라면 그의 인터뷰를 놓치지 말 겐!

96 ICON: 마이클 케인

베트맨의 집사로 당신에게 익숙한 그는 영국 영화의 레전드이자, 구글링을 사랑하는 노인이다.

98 MAXIM BUSINESS

에널리스트 김일태의 돈 되는 주식 투자 이야기
특별기획 <법대로 해> 1탄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104 택시 기사가 돼야 할 25가지 이유

생생 예로부터 공포까지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택시 기사의 세계로!

108 자산락 페스티벌 유람기

가까이 이틀간의 노숙을 자처한 에디터 김씨의 록 페스티벌 체험기와 여기에 끝사의 꺼간 패션 어시스턴트 에디터 조씨의 록페 스타일 취재기





이제 WWE는 FX에서 접수한다!



THURSDAY PM 11:00 WWE SUPERSTARS
FRIDAY PM 10:00 WWE SMACKDOWN

FX 남자의 모든 것



www.fxchannel.co.kr

Copyright © 2010 FOXChannel KOREA. All right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Departments

50

로티플 스카이

'웃가네'의 하늘이 '섹시한' 로티플 스카이로 돌아왔다.



8 MAXIM INSIDE

본격 MAXIM 카툰 (보리의 마음) 제4편 작가/답사니스트 주연/섹시한 귀신 화보를 뽑아 낸 MAXIM 편집부

14 CIRCUS MAXIMUS

캐시 반필드, 내장 송편, 달리의 유별난 취향, 아이유의 상큼한 모습과 여자친구를 위한 쇼핑몰(이라고 쓰고, 눈이 즐거운 쇼핑몰이라고 읽는다), 별별 공모증, 여친이 스파이?, 한번도 로맨스 돼지 맛있게 굽는 법, 입 냄새 쓸 만한 무료 어플, J&B Dots

38 RATED

〈피라나 3D〉, 안젤리나 졸리 방한기, 악마를 본 에디터, 그룹 밀크 출신 배우 박희본, 재기발랄 영화감독 윤성호, 풍류 넘치는 DJ DOC, ZPM vs 록 페스티벌, 풀 만한 연극, 명작 게임 〈텍틱스 오우가 운명의 바퀴〉, 공TV 해설 채정원, 만득이 노유민

54 SPORTS

MAXIM 스포츠 뉴스, NBA 오프시즌 결산 인간어뢰 김남훈이 격투기를 말하다.

59 STUFF

졸렬한 태블릿 PC, 이발에 질러야 할 아이패드, 픽시 자전거

68 MAXIM RIDE & WHEELS

2,690만 원으로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하라, 혼다 시빅 1.8과 닷지 랬트버의 대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가객대별 국내 시판 차량 총망라 리스트 업데이트 버전해매, 2010년 하반기의 왕자 아반떼

128 STYLE

이집트 피라미드 장식할 벽화 그리기, 동대문에 숨어있는 보석- 디자이너 매장 스킵

136 GROOMING

티 안 내고 화장하기, 근데 너무 티 안 나면 시간낭비잖아!

141 IN DA CLUB

오빠, 오늘은 만저도 돼 발 디딜 틈 없었던 MAXM 터치미 파티!



59



141



68



128



56

연극인 여섯 번째 작품



우리 그냥 결혼 할래요!



너와 함께라면

BY KOKI MITANI

Event

8월에는 바캉스티켓! 9~10월에는 강추티켓!으로
30%할인 받으세요! (인터넷 예매 시, 회당 40매 한정)

2010.7.23(금) OPEN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1관

작가 미타니 코우케(三谷幸輔) 번역 김태희 연출 이혜재 출연 송영철, 서현철, 추귀경, 박준서, 조지현, 이세은, 김유영, 최정현
문의 02)766-6007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맥스티켓 1544-0113 www.the-comedy.com

제작 제작지원 후원 인터파크 INT PARCO 협찬 KB 국민은행

발행인/ 편집인 대표이사 이상성

전무이사 김경선 / 이사 양지웅 / 이사 함재진 / 이사 소상혁

FEATURE EDITORIAL Team

김동수 isenty@maximkorea.net 김민재 nj@maximkorea.net
김성현 psycho@maximkorea.net 김소영 jely@maximkorea.net
김희성 alic@maximkorea.net 유승민 sm@maximkorea.net
이영미 yb@maximkorea.net

FASHION EDITORIAL Team

고경희 kko@maximkorea.net 조장민 jj@maximkorea.net

EDITORIAL DESIGN Team

이은혁 eastlocust@maximkorea.net 장미연 berrymee@maximkorea.net
장지민 dtdtd@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Team

STRATEGIC PLANNING Director 소상혁 so@maximkorea.net
ADVERTISING Manager 배해진 maxwin@maximkorea.net

김근호 jrh@maximkorea.net
STRATEGIC PLANNING Manager 진우민 wcdm@maximkorea.net
CRM/ FINANCE PLANNING Manager 황정영 jy@maximkorea.net
CREATIVE PLANNING Manager 유승민 sm@maximkorea.net
홍승희 soulmate@maximkorea.net

HR/ MARKETING PLANNING Manager 김중국 jk@maximkorea.net

교열 신성경 kshin0111@daum.net

WEB SERVICE 도복 / IT Director 사정민 orness@town.com

PHOTOGRAPHY ARC STUDIO

FILM MAKING Jin Wook

FINANCIAL CONSULTANT

송경화계법인 / Accountant 임종락 Consultant 김재영

인쇄 · 원색분쇄 / 인쇄인 유성근 ㈜삼화인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37-10

DISTRIBUTION 승주 출판유통



발행처 ㈜에이미디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82 / FAX. 02-645-0193
2004년 9월호 동권 재호호 / 등록일자 2003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포 라-00196
본지는 한국 간행물 유통위원회에의 등록번호 및 실정요건을 준수합니다.

광고 문의 010-4010-9041, 9043, 9044 구독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y@maximkorea.net 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

MAXIMSouth Korea은 세계 2개국 편집부에서 발행되고 22개국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남성 주간 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얼피미디어 그룹은 2008년 2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PN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PNY Media는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라이선스 계약자이며, MAXIM의 한국어판을 출판, 배포, 판매하고 행사/이벤트/오리엔탈 서비스를 운영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얼피미디어 그룹과 얼피미디어 5개에 이르는 제3자도 MAXIM의 트레이드마크와 로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MAXIM 본인 얼피미디어 그룹에 귀속하므로 허락 없이 옮겨 볼 수 없습니다.

copyright©2010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CHIEF EXECUTIVE OFFICER
JOE MANGIONE
GENERAL COUNSEL
DAVID SIMCOX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MAXIM UNITED STATES
DENNIS PUBLISHING INC.

1040 Avenue of the Americas, New York, NY 10018
EDITOR IN CHIEF **JOE LEVY**

US HISPANIC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Belgium, Switzerland, Quebec

GERMANY Austria, Switzerland, Lichtenstein

CENTRAL AMERICA Guatemala, Honduras, El Salvador,
Nicaragua, Costa Rica, Panama

CHINA United States,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Australia, Canada

CZECH Slovakia

SERBIA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TURKEY Cyprus

ITALY

PORTUGAL

BULGARIA

SLOVENIA

ROMANIA

GREECE

KOREA

ARGENTINA

BRAZIL

VENEZUELA

MEXICO

PUERTO RICO

COLUMBIA

CHILE

ECUADOR

RUSSIA

UKRAINE

THAILAND

INDIA

INDONESIA

PHILIPPINES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

조금은 외로운 세 남녀의 한 집 스캔들!



정호연 연출 / 임재경 작곡

POP MUSICAL

BY RYUTA HOURAI

트라이앵글

Event

01_커플할인 30% 현장에서 연인임을 확인하는 예정자수를 보여주세요~

02_남남할인 40% 남자 2명 이상 관람 시 할인 가능

2010.7.27 OPEN

연극인 임재경의 **이다.**

12관 1999 인터파크 1544-1555 맥스티켓 1544-0113

www.theplay.co.kr

문의 021766-6007

Oberösterreich
by Franz Xaver Kroetz

경남 창녕군 길목연

“결혼 3년,
당신 정말 행복해?”

〈연극연인〉이 선택한 다시 보고 싶은 연극

8월 바캉스티켓
평일 40%
주말 30%
(인터넷 예매 시)

8/24, 25 오전 11시
모닝연극
전석 1만원!
(인터넷 예매 시)

2010.7.30(금) OPEN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맥스티켓 1544-0113 연극연인 www.thebestplay.co.kr

작 | 프란츠 크서버 크로츠(Franz Xaver Kroetz) 번안·연출 류주연 출연 김선영, 이주원 제작 제작지원 인터파크 인터파크 IN7 협찬 KB 연극연인 문익 02)766-6007

Letters

이달에 도착한 독자 사연이다! 쌤!



당첨

MAXIM 컬러티

안녕하세요. 8월호 독자 편지를 보니 어느 독자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MAXIM 사진을 찍어 보냈더군요. 그래서 저도 자랑질 한번 해봅니다. 모두 미국판 MAXIM입니다. 다른 남성잡지도 모으고 있지만 그 중 MAXIM이 가장 좋아요. 100권정도 모았었는데 어머니께서 아픈 것 그만하고 열린 정가나 기리고 전부 버리고 겨우 이 정도만 남았습니다. 한국 MAXIM도 어서 아름다운 여성들 사진 많이 실어주세요. -Chris lee

MAXIM 사랑에 경정이 붙었다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누가 누가 MAXIM을 더 사랑하나 어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한국판 MAXIM도 많이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물 나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MAXIM이 장가가는 데 도움이 될까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계세요. MAXIM엔 피룩 파룩한 미혼 여성들이 득실득실합니다. 하나 같이 MAXIM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혼남들을 미다하고 있지요. 하나 들어가세요.

인터뷰 유감

8월호에 실린 허경영 인터뷰를 읽고 불만이 있어 편지를 보냈나. 진짜 허경영을 만나 인터뷰했는지 어떤 의도로 그럴 실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허경영 같은 사기꾼의 말을 아무 비판 없이 기사화했나? 무책임하다! "MAXIM이라는 잡지의 특성을 이해해 달라" 혹은 "그를 조롱하는 의미로 실었다"고 변명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최소현 에디터의 반론과 해설을 넣어야 했다. 허경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옮겨 적는 건 너무 경솔하지 않나? -Lee on



독자님의 애정 어린 지적 감사합니다. 유머 차원에서 실은 인터뷰였는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에 관한 진실들이 알려지면서 미디어를 통할 수 없게 된 허경영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MAXIM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하더군요. 그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 독자들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에 별다른 논평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날카로운 독자평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대 내 여자야!

저는 짜질한 대학생입니다. 요즘 만나고 있는 '이대생'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고 있어요. 이 여자애, 프리미드가 장난이 아니네요. 땀이 쫄아져는 키도 180cm로 루저도 아니고, 또 잘생긴 편은 아니지만 이빨 하나는 잘 까요. 유머감각으로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런 자에게 부족한 건 학벌. 그 여자애와 비교해서 학벌이 조금 딸리네요. 학벌 차이는 진짜 있는 건가요? 진짜 이대 나온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이대 나온 여자는 어떻게 교사나요? MAXIM이 좀 도와주세요. -Winner 짜질남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학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신이 어떤 실수를 할 경우, 학벌이 좋으면 "인간적이다"라고 하고 학벌이 나쁘면 "멍청해서 저한다"고 손가락질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편집부에 SKY 출신 에디터 하나 보내드리지요. 학벌 빠곤 정말 맞았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사무실에 처박혀 아등아니 보며 깰질대고 있습니다. 보기 싫어 죽겠으니 제발 좀 데려가세요. 그녀가 이 인간을 한 번 보면 앞으로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가비엔제이 좋아 미치겠어요

저 지난호 MAXIM 보면서 좋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비엔제이 너무나 진짜 좋아하거든요. 특히 노시현 누나 광 좋아해요. 완전 귀여워요. 아예 진짜 감동이었어요. 저 몇 권 더 사서 모아놨어요. 사진도 더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서워요. 아이야! 진짜 너무나너무 좋아요. 저 폴라로이드 사진 꼭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팬 원정 래블. 장난 없음. 그래서 저 이거 안 받으면 울 거예요. 아. 진짜 좋아. -한장병



고마워요, 한장병 님. 근데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약은 일찍 끊는 게 좋아요. 지금 한장병 님은 (쓰거운 형제들)에서 한상진이 발매된다가 심장 트러블이 직진까지 간 것도 몇 배는 더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Women's Prickley Pear™
Down Jacket YL3081

올 겨울, 가볍게 따뜻해지는 법



Women's Prickley Pear™ Down Jacket YL3081: •별수, 오염방지
우수한 15 데니어 울니실드 재킷 •보온성이 우수한 조정량 구스다운 충전재, •울니이트
안감 사용으로 밖으로 뱉어가는 열 차단, •인터체인지 지퍼, •제품 주머니 별도 내장.
•자세한 사항은 www.columbiakorea.co.kr을 참조하십시오.

Columbia
THE GREATER OUTDOORS



'자블라니' 받고 싶어요

자블라니를 받고 싶어요. 정말 받고 싶어요. 정말로~! -용현식

수업 시간에 과감히 MAXIM을 책상에 올린 용기에 박수 보냅니다. 자블라니를 '자블라니'라 칭한 것은 독자님 나름의 개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웃기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용현식님의 사연이 도착하기 전에 자블라니 이벤트는 종료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식님이 보내준 동영상 속 수업 태도와 '자블라니' 표기에서 드러나는 국어 실력을 보니 현식님의 미래가 몹시 걱정이 됩니다. 다른 독자분이 아래 QR 코드를 아이폰으로 스캔하여 용현식님 동영상 속 교복과 교실 모양을 보시고 학교 이름을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그 학교에 MAXIM 9월호 1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답선생님이 MAXIM을 보는 인증샷과 선생님이 직접 서명한 통신문에 "현식 학생의 미래는 좀 걱정되지만 뭐 그렇게까지 어둡지 않다." 정도의 내용을 적어 보내면 제가 용현식님 빈에 1년 정기구독권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한 마디 할게. "대학 가면 애인 생긴다는 말 진짜 구라다."

수업 MAXIM

정식 맥시가 나오고 있는데도 왜 다른 데서도 똑같은 책이 나오는 거죠? 세 생각엔 어떤 게 정식 맥시이고 어떤 게 가짜지 너무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얼마 전 홈페이지를 보기 전까진 전 오히려 가짜로 알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비방 글을 써대는 일에도 있습니다. -Macros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마음이야 굴뚝같습니다만 저희는 대응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대신 미국에 있는 MAXIM 본사가 국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시간문제이니 저희 MAXIM KOREA는 좀 더 좋은 잡지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이미에 엄지 쾅).

우리 개새끼

어제 우리 집 강아지를 입양 보냈다. 사정장 계속 키우기가 힘들어서.. 사진의 개보다 1년6천 배 정도 예쁜데 공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보고 싶다. 우리 개새끼 -toahon84

강아지 이야기할 하는 걸 보니 7월호 MAXIM 독자 편지에 나온 하얀 개새끼를 보셨나 부군요. 이별은 언제나 이쁜 겁니다. 힘내세요. 입양 보낸 개새끼의 반지라가 하전하다면, 하는 짓이 게 같은 인간들을 관찰해 보세요. 9시 뉴스 틀리면 많이 나옵니다. 공을 치는 대신 '헿'을 치고 놀며, 때론 발정난 수컷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균형을 휘두릅니다. 아, '개새끼'란 말은 나올지언정 '보고 싶다'는 말은 안 나올 겁니다.



EDITOR'S REAL CHOICE

이달 MAXIM 스태프가 지른 물품들

핑크 키보드, 달달달...



강상현 에디터

"나름대로 키보드도 남자는 역시 핑크"



고경희 에디터

"월영을이라니~!ㅋㅋ"



김민혜 에디터

"운동하려고 스트레칭"



이영미 에디터

"종이 안 나와"

WANTED!

독자 사연과 사진 응모

사연이 채택된 독자에게는 4만원 상당의 (연극열전) 공연티켓 예매권 한쌍을 선물로 증정한다.



응모방법

우편 접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코리아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당신 현상도 보고 싶다

MAXIM을 탐독하는 사진을 보내려 수업 중 선생님께 물어 보면 딱 하 마하 MAXIM을 책상에 올려놓은 학생 상은 이미 나왔으니 더 독하고 격한 상황에서 MAXIM을 보는 용자의 도전을 기다리겠다. 사진 올린 블로거나 홈페이지 주소(URL), 사진 내용,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저어 reader@maximkorea.net로 보내면 선물을 치지할 수 있다.

당신의 사정이 궁금하다

생각은 우리가 하겠다. 당신은 MAXIM에 사연을 보내라. 재미없어도 좋다. 선물 못 받게에 대하여? 매일 독자 편지 코너에 선정된 사연 중 명을 추천하여 선물을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호에.

MAXIM은 잡지의 미래다 #2

종이 잡지의 **변신**: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읽자



1. 책에서는 볼 수 없던 동영상을 감상하고 싶다면?
 2. 땀방 터지는 선물 보따리를 받고 싶다면?
 3. 에디터가 소장한 미공개 사진을 보고 싶다면?
 4. 기사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하고 싶다면?
 5. 재미없는 기사를 쓴 에디터에게 욕을 하고 싶다면?
-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을 꺼내 QR 코드에 갖다 대라!

MAXIM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QR코드를 찾아라!
쉽 새 없이 선물이 터진다!

- MAXIM 과일요
- 대학교 (연극영화학) 시리즈 에디션
- 영화 (피라냐) 사사회 티셔츠
- 핸드폰 케이스
- Columbe의 아웃도어 용품
- 간지 찰찰 티셔츠
- 리믹 운동화
- 눈썹 왁싱관

"뭐 더 필요한거 없수?"



1. 아이폰 앱스토어나 T-스토어에서 '쿠루쿠루' 앱(App)을 무료로 다운로드한다.



3. 책에 나온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2. 앱을 실행한 후 'QR 코드 스캔'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구동된다.



4. QR 코드 속의 MAXIM을 만날 수 있다.

CIPROIS N

A MAXIM VIEW OF THE WORLD

MY FIRST TIME

캐시 반필드

줄비 대재앙 시리즈를 <레지던트 이블>을 삼킨 것은? 입이 꽃잎처럼 네 갈래로 시원하게 갈라지는 줄비도 물론 한 건 했지만, 결정적인 포인트는 강하고 신비로운 밀라 요보비치의 등장이다. 올 추석에 개봉할 <레지던트 이블 4 : 끝나지 않은 전쟁 3D>에는 눈을 땔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런던의 안개를 해치고 우리에게 3D로 다가오는 아름다운 영국 배우 캐시 반필드. 그녀를 맞을 준비 됐나?

MUS

첫 색시 화보

MAXIM 촬영은 정말 재미있었다. 거의 평생 카메라 앞에서 보내서인지 전혀 떨리지 않았다. 내 팬들 중엔 나를 10대 때 모습부터 봐온 사람이 많아서 조금 색시한 콘셉트의 사진을 보면 살짝 놀랄 거다.

첫 가파 신분증

친구와 함께 화장을 딱칠하고 하이힐을 신고 클럽에 가곤 했다. 한 번도 걸린 적은 없었다! 영국에선 술을 마시려면 적어도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친구와 처음 술집에 간 건 열네 살 때였을 거다.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어릴 나이다. 술집에서 어떤 남자 두 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실제로 몇 살인지 밝혔더니 둘 다 술잔을 거의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던 기억이 난다.

첫 키스

어린 시절 우리 집 근처에 살던 남자 애한테 반했다. 나한테 못되게 굴던 애였지만 첫 키스를 하게 됐다. 사실 얼마 전에 그가 갑자기 페이스북에서 말을 걸어왔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다행히도 내 남자 보는 눈은 열 살 이후로 계속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첫 배드신

《Filthy Rich》라는 TV 드라마에서다. 꽤 어릴 때여서 진땀 흘렸는데 막상 촬영 들어가서는 금방 분위기에 적응했다. 촬영 스태프가 방 안 가득 함께 있는 그 상황은 결코 색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첫 인상

남자를 볼 때는 매너가 좋고 눈이 예쁘면 보게 된다. 거기다 날 웃게 만드는 남자라면 보너스 점수도 준다. 아주 중요할 요소다.

그녀와 밀라 요보비치가 출연하는 《레지던트 이블 4: 풀나지 않은 전쟁 3D》는 8월 16일 개봉 예정이다.

☞ 비키니 Topshop

☞ 셔츠 River Island 비키니 하의 Calvin Klein

RICE CAKE With FISH ORGAN

우유 빛깔 내장송편

뜯은 뒤에서
채야 참지제

여러분의 무병장수가 MAXIM의 소망입니다.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생선 내장은 오메가3지방산이 풍부해 뇌와 심장 건강에 좋다. 하지만 물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보존해야 한다. 내장송편을 섭취해 미리 심장을 단련해두면 추석 연휴에 딱딱 집안 어른들의 취직, 결혼, 아이 걱정 3중 세트로부터 당신의 심장을 거둔처 지켜낼 수 있다.

오메가3지방산이 부족하면 생식이 발달이 저하될 수 있다. 생선 내장에 지방이 많다는 건 손님 **꿀꿀귀뚜** 두려운 비누기과 잔포가들의 거짓투령에 불과하다. 오메가3지방산을 다량 섭취해 개미처럼 키운 물건을 하리케 감고 어머니 앞에 살가죽 벨트를 내밀며 외쳐라.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낫습니다!"

RECIPE

재료: 싱싱한 물고기 내장, 솔잎 약간, 쌀발가루

- 1 물고기의 배를 갈라 내장 덩어리를 꼬집어낸다. 싱싱한 녀석보단 죽은 지 오래된 녀석일수록 내장의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다.
- 2 고중 세하얀 속살만 골라 내어 물에 씻어 건진다. 뭘니 뭘니 해도 속살은 우유 빛깔이 진리니까.
- 3 내장의 핏물이 빠질 동안 쌀발가루를 반죽해 알맞은 크기로 떼어낸 다음 반달 모양으로 빚는다. 귀찮으면 시장에서 파는 송편을 사서 안에 들어 있는 소를 제거해도 상관없다.
- 4 조개껍데기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송편 반죽 사이에 핏기를 제거한 내장을 짙게 채워 넣는다.
- 5 시루에 솔잎을 깔고 찐다. 은은한 솔 향과 내장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한데 섞여 올라오기 시작하면 가스 불을 꺼도 된다.
- 6 물기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기를 머금어 주름이 더 깊어진 내장을 한 입 배어 문다. 푹푹 떨어지는 육수가 풍미를 더한다. 그래, 이 맛이야!

오줌 내 여덟 살 때까지 아빤에 오줌을 썼어요. 내가 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부모님은 나를 양치름 떠받쳐주어 거든 실로 난 집에서 절대군주였다고 할 수 있지. 부모님 놀래주려고 정말 순전히 제미로 오줌을 걸긴 가리요.

발 날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다. 오 그 개집아이는 특히 내 아뭇다운 발을 좋아했지. 내 발이 아름답다는 건 나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이에 대해 거듭 감탄하는 그 애는 좀 엄청하다고 할 수 있지. 어느 날 그 애가 내 발을 애무했어. 감히 내 몸뚱이 내 자신이 그녀를 질투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영 들 때까지 그 여자애를 마구 때렸어요!

천재 아티스트 달리의 취향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가 자서전에서 한 말들을 모았다. 아무리 그의 말과 행동이 짜질할지라도 우리 같은 범인은 그저 '천재답다!'고 고개만 끄덕이면 된다.

BY 권연애 ILLUSTRATION 맹맹안

새 대가리 난 아무리 한하게 웃어도 이 사이에 낀 시금치가 드러날 위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양치질을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난 절대 시금치를 먹지 않기 때문이지. 시금치는 형태가 없어서 싫어한다고. 난 철저해서 내 아성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음식만 먹지. 예를 들어 조그만 새의 머리 같은 것? 바삭바삭!

진드기 내 등에 벌레가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진드기인 것 같았지. 나는 비명을 지르며 면도칼로 진드기를 긁어냈어요. 진드기 있는 곳을 절단하자 피가 붉어. 내가 난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 의사는 내가 잘라낸 것이 진드기가 아니라 점막이라고 말했지. 이거 참, 허무하군.

완벽한 몸 난 누구보다 이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때마다 즐거움이 마구 생겨났어. 특히 아침마다 날 깨우러 오는 줄리아를 놀래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녀가 오기 15분 전에 일어 나 옷을 벗고 가장 자극적인 자세를 고안했어. 그녀의 발소리가 가까이 들리는 순간까지 자세를 바꿔가며 정말 많이 고안했지요.



그 짓 내가 자라면 내 손도 같이 자란다고. 난 학원 화장실에서 '그 짓'에 대해 처음 알게 됐지. 그 짓을 하면서 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난 계속 그 짓을 해야 했어. 그 유혹을. 이번이 마지막 악이라고 다짐하면서도 계속했지. 결국 난 궁극적인 방법을 찾았어. 오 그 짓을 일요일에만 하겠다고 결심했어. 일요일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쾌락도 더해졌지.

변장 놀이 난 어렸을 때부터 변장 놀이에 몰두했어요. 알몸에 하얀 개털, 왕관, 민토 이 세 가지면 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아, 고 추가 없진 않았지. 그래서 허벅지 사이로 고추를 감춰서 이해야 완변한 거 같군!

저드랑이 나는 남들과 다른 옷을 입고 다녔지. 내 친구들은 그런 나를 흉모들 경호했어. "시금창 귀새끼처럼 생겼지만,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했지요. 그러나 럭셔리한 카페에 갔다 와서 평범하게 옷을 입고도 생각을 바꿨지. 친구들은 만류했지만, 내 결정은 확고했어. 왜 생각을 바꿨나? 럭셔리한 카페의 여성들에게 잘 보이길 싶었거든. 날 경멸하는, 저드랑이에 델이 없는 그 여성들에게 말이지!

지궁 너네들은 뱃속에 머물 때의 기억 따윈 없지? 난 천재니까! 다 기억하지.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난, 달리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 어니! 뱃속은 따뜻하고 쾌적한 낙원이었지. 색깔로 묘사한다면 빨강, 주황, 노랑 정도?

기습 공격 난 나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는 게 좋더군. 바이올린을 들고 있던 한 놈이 신발 끈을 매고 있을 때 달려가서 마구 때렸지. 때리고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다 잡히고 말았어요. 무릎을 꿇고 뺨박 말았지. 그 자식은 계속 날 때렸어. 난 비명을 질러댔지. 선생님! 달려와 무슨 일이나고 물어봐고. 난 이렇게 변명했어. "미선이 음악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바이올린을 밟은 것뿐이다!" 라고. 어뵈, 클하지 않나?

칸트 칸트의 글을 좋아해요. 한 줄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자부심과 만족감이 생겼더라고. 이런 소묘였고, 또 중요한 책을 쓴 칸트는 분명 천사일 거야.

소녀들의 쇼핑몰

소녀들이 무대 의상을 벗고 평상복을 꺼내 입었다. 우린 그 저 감사할 따름!



CUTY

아이유 in online shop
더 사랑스럽다. 아이
유한테 전소리 한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www.pinkygirl.co.kr

PINKY girl

CUTY

아이유 on stage
아이유는 얼굴도 예
쁘고 노래도 잘하고
시구도 수준급이다.
깜짝+발랄+상큼 3중
세트를 마구마구 발
산하는 귀요미.



LAUNDRY

KEEP YOUR GIRL
IN THE WASH. KEEP
YOUR CHIRING T.



카라 on stage
영양이축으로 우리들
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
더니 과도 루팡으로 변
신해 금기가 심정을 좋
차기기에 이르렀다.

Femme Etale

카라 in online shop
허라구의 재미하리,
창순글래머 신세경의
뒤를 잇는 미내 감지
영의 착한 몸매, 귀리
여신님의 사랑스러운
자태를 한 번에 볼 수
있다.
www.karaya.co.kr

Love!



티아라 in online shop
여동생 누나, 여친 옷
장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옷을 걸치고 있다.
여친이 입었을 땀 후
줄근한 티셔츠처럼
보였는데 티아라가
입으니 그렇게 청순
할 수가 없다. 역시 패
션의 완성은 얼굴이
다.
www.t-aradot.com

Natural!

Sexy

티아라 on stage
그대들은 나를 미치
게 하고 자꾸 자꾸 원
하게 한다. 처 처우 처
럼

쇼핑몰보다 피팅모델!

그래 이해한다. 당신의 눈은 이미 옷이 아닌 그녀에게 향했겠지.



블루핏

LOVELY&GIRLUSH

자매가 운영하는 4년차 여성이류 쇼핑몰. 언니가 의상 스타일링을, 동생이 피팅모델을 담당한다. 수려한 외모의 피팅모델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당신이 여성스러움이 넘쳐나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옷을 고르고 있었다면 이런만 곳도 없을 거다.
www.bluefitv



체리코코

LOVELY&LOVELY

남자는 체리코코의 그녀처럼 온몸에 "사랑차방앗간" 포스를 뿜어내는 여자친구를 원한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란 사실을 잊지 말도록! 그렇지만 당신이 로모라도 당첨돼서 이런 멋진 길을 만났다면 이곳에서 기거이 저를신을 영정해도 좋겠지.

www.cherrykoko.com



바닐라민트

CASUAL

깔끔한 의상 못지않게 깔끔한 피팅모델을 볼 수 있다. 가격대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켄주 일 스타일을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위해 들러기 좋은 쇼핑몰이다.

www.allopop.co.kr



SO HOT

은밀한 즐거웠기

그래 가끔은 아이쇼핑을 하자.

러브랑 - SEXY

그래 우리도 다 한다. 당신이 언젠가 생길 여자친구의 속옷을 고르러 이곳에 들렀다는 사실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편안함 '그것' 이 참 많다. 그자?

www.lovesang.co.kr

올트리플렉스 - SEXY

타일렛과 가터벨트는 이렇게 생긴 거였고, 당신은 그저 학습 차원에서 이곳을 들렀을 거야(음?). 절대 색시, 코스튬 의상이 궁금한 건 아니었지 아니었을 거야!

alxxx.co.kr

시즈마 - SEXY

당신은 이곳에서 귀한 공부를 했을 거야. 그래, 브라 지어가 꼭 가슴에 달린 건도모를 가릴 필요는 없지. 그 근처를 두르지만 할 수도 있는 법이야.

www.sizma.co.kr

섹시팝 - SEXY

남자가 원하는 의상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고 있고. 이제 남은 건 이걸 소화할 여자친구만 구하면 되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양구서 폭풍 눈물이 쏩...

www.sexypop.co.kr



유키몰

SEXY&CHIC

홍익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를 졸업한 한소영이 창업한 쇼핑몰. 깔끔하고 군살 없는 홈페이지가 인상적. 그녀가 고른 모던하면서도 섹시함이 잘 물어내는 의상이 돋보인다. 여자친구가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이곳을 둘러보자. 당신 역시 홈페이지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의상을 입은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충분히 행복할 거다.

www.yukimall.co.kr





착한 우리말 사전

BY 김희성 IMAGE 어사 (Dreamstime.com)

너 이노출~시기 입은 바로 뚫렸는데 말 비둘게 하는 거 다 있다. 뚫린 입이라고 막말 짝퍹 발사 하지 말고 착한 언어 생활로 입걸레 탈출하자고. 그럼 그래픽 킥 세종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 아래 나온 국립국어원에서 순화한 신조어를 열심히 익히자!

*주의: 이 순화한 신조어를 쓰면 똥따를 당하거나 사회 부적응자 취급당할 수 있어. 하지만 국립국어원이 당신 X라고 순화어 만든 건 예니 오해하진 마. 그리고 거기 직원들은 의무 사항이랑 예기하라는 말이나 구박을 많이 받았어. 거기들 너무 미안하지 마. 편하잖아.

재치부인 [명사]

다양한 끼와 재능을 갖춘 기혼 여성 활동가
익숙한 말 좀메타어나
유어의 다능어종마. 무지개어종마.
꽃구름부인
활용어 재치할매, 재치할매
올래 남편 흥보는 개그 따위로
재치부인이 된 박이선. 꽃구름
부인답게 돈도 많이 벌겠지.

까치발구두 [명사]

10cm 이상 아찔한 높이의 굽을
가진 구두
익숙한 말 킬힐
유어의 마루굽구두, 고드름구
두, 소소리구두, 오백구두
올래 까치발구두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가끔 그 여자 발목
을 분지르고 싶을 정도야.

독독순전화 [명사]

인터넷 정보 검색, 그림 정보 송
수신 등의 기능을 갖춘 차세대
휴대전화
익숙한 말 스마트폰
유어의 모뎀가능전화, 맞춤형
(휴대)전화, 슬기순전화
올래 터치도 안 되는 폰은은 버
러. 독독순전화가 대세야.

총괄이운동 [명사]

스프츠와 엔터테인먼트를
합성한 말
익숙한 말 스포테인먼트
유어의 모꼬지운동, 총괄이
운동, 어을운동, 눈길몰이운
동
올래 이번 월드컵 득점률 노
린 총괄이운동 중 단연 최
익은 밀도 끝도 없는 차우
팅* 강요되어, 하지만 결국
연어는님 모습에 들떠 거기
에 놀아난 내가 부끄럽다.

황금독신여성 [명사]

30대 이상 40대 미만 미혼
여성 중 고학력자 사회경제
적 여유가 있는 계층
익숙한 말 골드미스
유어의 금빛눈채녀, 금빛을
채녀, 금지탐아가씨, 노채녀
올래 년 돈 잘 버는 황금독
신여성도 아니니 닥치고 아
무 남자가 만나. 억울하면
금지탐아가씨가 되어보렴.
하지만 아마 년 안 되겠지.

누리물난전꾼 [명사]

온라인에서 불법 저작물을 전
송해 이득을 챙기는 사람
익숙한 말 해비업로더
유어의 쓰개질음림이, 까막뒤집
누리꾼
올래 내 하드디스크에는 누리
물난전꾼의 은혜가 차고 넘치
는구나. 잉어 인간인 나도 남는
시간에 까막뒤집누리꾼 일음
해볼까?

깜냥발기 [명사]

미래를 위해 더 나은 학력과 학
점, 토익 점수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는 일

익숙한 말 스태킹기

유어의 오꽃라라기, 으뜸울림
올래 그녀가 아무리 깜냥발기
에 매진해도 늘 눈앞에서 떨어
지는 건 순전히 얼골 때문이다.

통신머리띠 [명사]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을 가리
켜 이르는 말
익숙한 말 헤드셋
유어의 소리머리띠, 소리구마개
올래 내 귀에 캔디 대신 통신머
리띠

별별 공포증

새끼순둥만 한 비취벌레를 보고 쿡구멍이 벌
렁벌렁하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걸 비취벌
레 공포증이라고 하진 않는다(아마 강경조라고
하겠지). 정신의학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는 진짜 공포증을 모아봤다.

BY 김민재



공포 공포증

공포 혹은 공포증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다. 자선에
게 공포증이 생기면 예하니 노심초사하는 거다. 그럼
공포 공포증을 가졌까 봐 전전긍긍하는 건 공포 공포
공포증인가?

거울 공포증

거울 혹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병적으로 두려
워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을 직시하는 것에 대한 두려
움이 원인이야. 당당히 거울 보기 무섭다고? 당신을
보는 남들은 어쩌겠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별기한 상기 공포증

별기한 상기를 보거나 생각하거나 혹은 자기 몸이 성
기가 달린 것 자체에 공포를 느낀다. 당신의 아랫도리
를 보고 황당해버린 똥을 흘리는 그는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절대 당신의 아랫도리가 소
변해서 그런 게 아니다.

가디머 공포증

무엇인가를 가디머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불안하고 초
조해진다. 처음에는 긴 시간을 가디머야 하는 행위에
공포를 느껴지만 시간이 갈수록 침울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바로 당신 여자친구야.

영국 공포증

영국 혹은 영국에간게 공포나 미움을 느낀다. 비슷한
예로 독일, 일본, 중국, 네덜란드, 유대인 공포증 등이
있다. 한국 공포증은 없다. 잉어 마늘과 청양고추를 잔
득 들고 삼도 좀 둘러야 무사일거야.

채녀 공포증

도대체 왜?

무늬 공포증

미니스카프와 핫팬츠, 비키니가 즐비한 여름의 거
리, 무릎 아래 같이 팬츠와 스커트를 적극 반대하는
MAMI, 그리고 도가니랑 집이 무늬 공포증 환자들에
겐 생지이다.

좋은 소식 공포증

반전(反轉)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재 친구서
는 크리스마스 놀러 갈듯 갑도록 무늬 공포증 환자들에
겐 생지이다.

숫자 8 공포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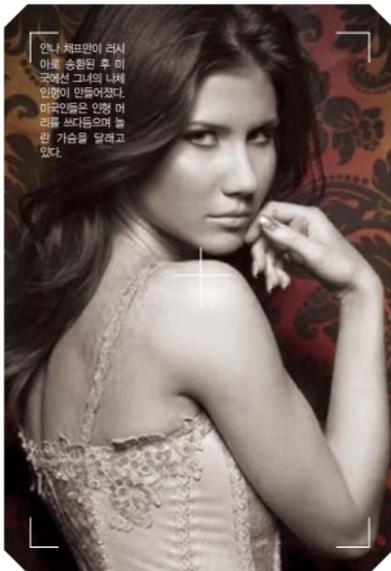
숫자 8에 공포를 느끼는 이 사람들은 8을 행운의 숫
자로 여기는 중국에 가면 정신분열이 일어날 거다. 아
꼭 숫자 8 때문이 아니라 **대불 사리조**를 오강으로 다
꺼버린 사크릴 수 있겠다.

여자친구가 스파이인지 확인하는 방법

당신의 여자는 침대 속에서 은밀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은밀한 작전을 수행 중인가?



얼마 전 미국에서 활동하던 미녀 러시아 스파이 안나 체프만이 붙잡혔다. 그녀는 이름다운 외모로 고위 관료나 사업가들의 혼과 단백질을 쏙 빼놓고 다양한 분야의 무수히 많은 기밀까지도 훔쳐왔다. 전 남편 알렉스 체프만은 "침대에서 그녀는 대단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그녀를 추억했다. 자. 이 정도면 그녀가 공산주의자 + 살인범기 + 악랄한 산업스피어라 해도 데이트는 물론 다량의 단백질과 더불어 간과 쓸개까지 다 빼 줄 의향이 불꽃불꽃 솟지? 이렇게 속업는 당신을 위해 우리는 심리학자이자 사기 전문가 조너선 알퍼트에게 당신의 미녀가 차마 밑에 비밀스러운 뭔가를 숨기고 있을 때의 징후를 물었다.



안나 체프만은 러시아에서 송환된 후 미국에서 그녀의 내재 인물이 만들어졌다. 미국인들은 인정 머리를 쓰기도하며 놀란 가슴을 달랠고 있다.

기만하 있지 못한다

"얼굴과 물건을 만지작거리려는 등 작은 거짓말쟁이가 받는 스트레스의 지표다. 손을 뜨게는 것도 자신을 보호하고 달래는 무의식적 행동이다."

얼굴에 다 쓰여 있다

"당신에게 신뢰를 주려고 부단히 애쓰는 과정에서 표정이 자칫 과장될 수 있다. 또한 행동과 감정 사이의 미스매치도 발견된다. 그녀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얼굴을 찡그리는 등의 표현이 그 예다."

베타맨처럼 말한다

"보통 때보다 말을 웅얼거리거나 '할로' 한다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둘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는 표시다. 거짓말하는 사람일수록 축약형을 쓰지 않으려 한다.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안 했어' 보다 '하지 않았어'를 쓰는 게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x

움직이다 슬쩍 빠져나간다

"당신이 스파이를 이야기 소재로 꺼냈을 때 그녀가 불편해하는가? 그렇다면 재빨리 야구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라. 진실된 사람들 대부분은 대화 주제가 갑자기 바뀌면 혼란스러워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놓는다."

꼬치꼬치 캐묻는다

"더더이 그녀가 '자기' 속으로 무슨 생각해? 가 아니라 '자기' 회사 기밀문서 폴더 속엔 뭐가 있어?'라며 다정하게 물어온다. 스파이 신고가 11만건이 139만건이 헛갈리는 당신이 번호를 114에 문의하는 사이에, 그녀는 유유히 원하는 정보를 캐서 중국으로 쏜다."

MY LUMP

얼굴 크다 놀리지 말아요

수줍음이 많도 못하고...

3위



중국 흑부리 아저씨

이 아저씨는 거대한 흑 때문에 입을 다물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작은 흑부리 아저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고 놀릴까 봐 5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의 흑은 원래 작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약초사에게 처방받은 약을 쓴 후로 눈 건강을 수 없이 저하되고 한다. 그 약초사 강남에 가서 흑에 전문 병원 치료면 가슴 벅차게 빠른 발견했

2위



하마 소녀

14세 아이티 소녀의 얼굴에 7kg에 달하는 종양이 생겼다. 그녀 얼굴이 점점 하마처럼 변해갔다고 해서 이런 증상을 인간 하마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녀의 부모가 정미원에 소녀를 "물 먹는 하마"로 이용했다는 일부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하지만 그럴싸

1위



중국 아비타겟

역시 중국 22세 꽃다운 나이의 우시우 연은 생유이형성증으로 인한 안면변형 장애로 얼굴 전체가 흑으로 변했다. 이 때문에 코로 숨 쉴 수도, 냉수를 마실 수도 못했다. 치료가 없던 딸의 부모는 온라인에 이 사연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그녀를 아비타겟으로 부르며 도움을 주었고, 그 결과 소녀는 얼굴 중앙 90%를 수술로 제거할 수 있었다. 나비 꼭 짰!

자기 머리 자를 때 썼어.



EMERGENCY

비상 상황 대처법 << 급류에 휩쓸렸을 때와 자위 도중 막 걸렸을 때



	급류	자위
양손을 들고 평평을 찾는다.	0	0
이 상황을 싸워 헤쳐나가기 위해 힘을 허비하지 않는다	0	0
당신은 결국 이 위기를 넘길 것이며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는 것을 떠올린다	0	0
자위를 멈춘다	x	0
자위를 재개한다	0	x

SELF CHECK-UP

입 냄새 자기진단법

취활성 황화합물을 측정하는 기계로 입 냄새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주관적인 편을 동반해야 한다. 임시로 시도해볼 수 있는 입 냄새 자기측정법은 다음과 같다.



방법 1. 허두에 손가락을 댄 뒤 손가락 냄새를 맡는다.

WARNING: 손가락이 썩어 있다. 자르지 마라.

방법 2. 잇몸과 치아를 손가락으로 문지른 후 손가락에 묻은 인연 냄새를 맡는다.

WARNING: 자고 일어나면 칙칙 혹은 썩은 식사 후 1시간 정도 입을 닫힌 후엔 실시하지 말 것. 우린 보령의 경고해!

방법 3. 혀로 손목을 핥고 5분 뒤에 손목의 냄새를 맡는다.

WARNING: 다시는 그와 손 접촉을 수 없을지도...

방법 4. 평평한 곳에 침을 뱉고 그 냄새를 맡는다.

WARNING: 당신의 몸에서 나온 분비물이야! 분노하거나 무정하지 마라.

방법 5. 이불 안에 혼자 들어가 입으로 숨을 쉰다.

WARNING: 자신의 입 냄새가 스스로를 질식시킬 것 같은 공포에 사투입입입이 나온다. 편입이. 코로 숨 쉬면 되잖아. 울지 마.

방법 6. 친구와 30분 동안 열심히 통화한 후 송화기의 냄새를 맡는다.

WARNING: 전화기를 바닥에 내장개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자기측정법은 자신의 실제 입 냄새를 다 못한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측정해볼 것

COMMON SENSE

입 냄새 기본 상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입 냄새도 가지가지

입 냄새는 전성구체, 가성구체, 구취공포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취는 대부분 전성구체에 속한다. 입속에서 부패 과정이 진행되며 나는 냄새와 그 외 다른 신체 기관에 이상이 있을 때 나는 냄새가 있다. 가성구체는 상태와는 느끼지 못하고, 자신만 맡을 수 있는 입 냄새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구취공포증은 입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그렇고 믿는 증상이다. 자, 당신은 어느 쪽인가.

입 냄새는 도대체 왜

사람의 입속에는 수백 억 마리의 세균이 꿈틀거리며 살고 있다. 이 수백 억 마리의 세균과 음식물이 만나게 되면 입속 미생물이 부패하면서 휘발성 황화합물이 스물 스물 발생한다. 이 휘발성 황화합물이 바로 입 냄새의 주요 원인이다. 어, 불행하지 마시오! 그래서 입냄으로 태어나서 수백 억 마리의 세균은 영원정질!



니 그거 아니? 니 입에서 생선 썩은 내 난다리도!

BY 김민혜 IMAGE 및(Dreamstime.com)

입 냄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좋은 예

1. 코를 의심한다

이상과열의 한 여성은 입 냄새 문제로 병원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속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 정밀 검사 후 냄새의 원인은 코에 있음이 밝혀졌다. 그녀의 코 깊숙한 곳에 20년이 넘게 자리 잡고서 고약한 냄새를 유발해온 구슬을 발견했던 것. 구슬이 어떻게 그 곳에 들어가게 됐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다.

2.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라. 일본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흡연과 입 냄새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오히려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보다 더 높은 황화합물 수치를 기록했다. 이제 흡연을 억압하는 놈들에게 이 이야기를 근거로 흡연을 항균작용을 통해 입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몇몇 비흡연자가 담배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토마토, 오렌지, 토마토는 황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한다.

3. 생활학 무기를 개발한다

폭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라. 라이트연구소는 적군에게 입 냄새를 유발하는 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폭탄으로 숨어 있는 적군을 감지하고, 적군 내 사기도 떨어뜨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하지만 이 제안은 국방부에서 꺼냈고, 당국의 고약한 입 냄새는 여태껏 구박만 받아왔다. 이제 그 입 냄새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나서보자! 라이트연구소에 연락해 당신의 입 냄새를 기증하라. 최고의 생활학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국방부에서 꺼내진 않겠다.

4. 질병을 예방한다

입 냄새는 입 이외 다른 신체 기관의 이상으로 인해 날 수 있다. 질 환이다. 냄새가 다르기 때문에, 냄새별로 질병을 구분할 수 있다. 당뇨병은 아세트 냄새, 신장 질환은 암모니아에 쉽게 맡혀 화장실 냄새, 간 질환은 달걀과 우유 썩는 냄새, 만성췌장증과 폐 질환은 생선 비린내를 동반한다. 입 냄새 환자의 5%는 입이 아닌 코 냄새로 골치를 앓기도 한다. 코에서는 주로 치즈 냄새야. 맛있겠는데?가 난다. 입 냄새로 몸의 질환을 알아낼 수 있으니 입 냄새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하지만 정말 달걀, 우유, 생선, 치즈의 섭취로 위와 같은 악취가 나는 경우도 빈번하니 함부로 몸이 아프다고 태너지 말고.



입 냄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나쁜 예>

1. 이혼한다

입 냄새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 2천 년 전 지독한 아가리 풍내는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었다. 배우자의 입 냄새를 사유로 이혼한 커플이 기록에 남아 있다.

2. 코를 자른다

중국 초나라 회왕은 자신의 입 냄새를 기피했다는 이유로, 한 여인의 코를 자른 전적이 있다. 사실 회왕의 입 냄새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회왕의 애첩 정수라는 여인은 회왕의 새 여인에게 질투를 느낀 나머지 그녀에게 "회왕은 입을 가리고 웃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거짓 사실을 알리었고, 회왕에게는 "그녀의 회왕님의 입 냄새가 싫어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거짓 사실을 알리 바쳤다. 우리 왕님, 배려심도 중요시지, 더 이상 자신의 색은 내를 말지 말고요 여인의 코를 베어버리셨다. 누군가가 당신의 입 냄새를 지적할 때면 그의 코를 썩듯 베어버려라. 다. 상대방을 위함이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서어아~

3. 입 속을 비운다

프랑스 루이 14세의 입 냄새는 그의 권위보다 더 무서우시 한 것이어서 신하들은 그의 지독한 입 냄새에 발발 떨어야 했다. 마침내 그의 주치의는 차가 입 냄새를 포함한 모든 질병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왕에게 차이를 모두 뽑아주고 건의했다. 주치의의 이빨에 넣어간 루이 14세의 모든 차이를 뽑아버리고 잇몸과 입천장도 제거했다. 그 후 입속 상처가 아물지 않아 생긴 피와 고름이 만들어내는 더 독한 악취가 신하들을 괴롭혔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자신의 입 냄새로 고통받는 신하를 생각해 입속을 청결히 만들어낸 루이 왕의 희생정신은 가히 본받을 만하다.

4. 남에게 덮어씌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한 여성이 입 냄새 문제로 아버지와 함께 병원을 방문했는데, 자살까지 생각했던 그녀의 입 냄새는 의외로 깨끗했다고 한다. 병원은 바로 그녀의 입 냄새를 증언하기 위해 병원에 같이 내방한 그녀의 아버지, 아버지의 입 냄새는 먼 거리에서도 고개를 돌릴 정도로 심했다고 한다. 혈육도 내던져버린 입 냄새의 공포. 아버님, 딸에게 입 냄새를 전가시키다니! 정말 뻔뻔하시지 말입니다!

5. 자살한다

입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데도 입 냄새에 대해 지나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구취공포증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걱정도 목숨을 잃기도 한다. 1938년 9월 한 대학 교수가 자신에게 입 냄새가 난다고 믿고, 결국 이를 이유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살인적인 입 냄새로 상대방에게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비하면 낫다고 해야 하나.

6. 원천봉쇄

예전가 무허마드는 질병 예방을 위해 신도들에게 마늘을 먹을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마늘을 먹은 신도는 냄새 나는 입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사원 밖으로 내쫓았다. 아니 이걸 뭐, 마늘은 먹었으나 마늘 냄새는 풍기지 말란 소리나. 어쩌란 말인가

SMELLY STARS

입 냄새로 고생하는 스타

그들은 입 냄새 나도 괜찮다.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당신?



데이비드 베크엄

생선 지방으로 만든 생선 지방은 아민산이다. 그에게 생선 비린내를 싫어한다. 빅토리아의 거식증엔 다 이유가 있었다.

나 냄새?

벤 에델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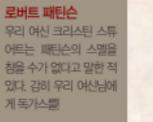
그의 지독한 입 냄새에 걸린 신드라 블록이 그에게 민트 한 박스를 선물했다. 고 신드라 블록은 이 민트를 주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너 나에게
우유향을 줬어

로버트 패티슨

당장 그만둬 우리 여신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패티슨의 스멜을 원을 수가 없다고 말한 적 있다. 강히 우리 여신에게 토크스!



제시카 심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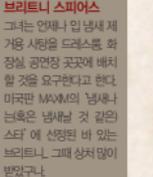
일주일마다 3천달러를 지불하는다고 고백한 바 있다. 치실 대신 그녀가 사용하는 것은 구강청결제 혹은 그녀의 스웨이드, 수축.



스웨이드로
두껍대요.

브리티니 스피어스

이런 때문에 수영이 싫어 그녀는 안락사 입 냄새 제거용 스텝을 드레스를 화장실, 공연장 곳곳에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 미군부 MAMM의 냄새나 뉴욕은 냄새나 것 같은 스타에 선정된 바 있는 브리티니, 그녀 상처 입이 보인다.



제니퍼 에니스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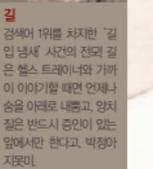
케미로 인한 입 냄새가 그렇게 독하다고, 제니는 베이트민과 일체 볼드윈이 증명했다. 브래드가 제니를 때를 때만 이유가 여가 있었구나 난 똘



브래드 피트
너 정말?

길

장어찌 감색이 1위를 차지한 '길' 입 냄새 시련의 진면목 길은 썸스 트라이나와 가까운 이 이야기할 때면 연애 수를 아러로 내놓고, 양치질은 반드시 중간이 있는 입에서만 한다고, 박정자 자담!



MAXIM'S CHOICE

8

잡스님의 아이폰 덕분에 우리나라 모바일 시장은 천지개벽했다. 스마트폰은 모든 이의 필수품이 되었고, 수많은 애플리케이션(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이하 앱)이 쏟아져 나왔다. 그중에서 MAXIM 이 쓸 만한 앱을 추려봤다. 무료 앱만 모았으니 걱정 붙여매!

BY 김광현 WORDS BY 이백근



기프트콘

기프트콘은 아이스크림 콘이 아니다

Q1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만한 앱은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일용백 역할을 할 기프트콘이 있다. 네이트 온과 휴대전화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상품 교환권을 신청할 수 있는 예시지 서비스다. 그간 스마트폰으로 기프트콘을 이용하기 까다로웠던 걸 생각하면 기프트콘 전용 앱의 등장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다.

티스토어(www.tstore.co.kr)



삼성증권

(mPOP easy)

업이나 사나 주식 생각이 인당스에게 필요한 앱이다.

스마트폰을 가졌다고 스마트폰 사용이 되면 된다. 편리한 실용성과 실효성 유익이 있어야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였다. 주식 거래도 마찬가지다. 편리한 거래를 원한다면 사용성과 디자인에

최적화된 삼성증권의 mPOP easy 앱을 추천한다. 사용자 친화적인 이 앱은 단상을 증권계의 스마트폰 보급을 만들어줄 거다.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핫 트랙스

(Hot Tracks)

음반 매장이 내 스마트폰 폰 안에 들어왔다.

음반 시장의 불황은 필연적으로 레코드 매장의 감소를 불러왔다. 오프 매장에서 음반을 구매하고픈 음악 팬에게는 최근의 주목할 만한 '핫 트랙스'에서 개편 앨범을 소개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꼭 필요한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핫 트랙스 앱 하나만 스마트폰에서 언제든 손쉽게 발매 예정 음반 음반 순위 인트로 기사를 만날 수 있으니 음악 편집에선 이보다 더 좋은 앱도 없을 거다.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MAXIM KOREA

내 손 안의 MAXIM!

MAXIM이 아이폰용 앱을 내놓았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SNS에 무서워 MAXIM을 들고 다니지 못하던 이도 유쾌한 생수 들고 촬영할 일이다. 결국이면 화려할 뿐 장려하는 불만만 다른 잡지 앱과 달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친화적 메뉴 구성이 인

상이다. 무료로 제공하는 모바일 앱과 유료로 구매하는 정식 앱으로 구분되니 필요에 따라 미리 선택하면 된다.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OK 캐시백

포인트 적립도 앱으로 OK!

올 상반기 핫 앱이 오기 전에 이제 더 이상 OK 캐시백을 적립하기 위해 카드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상품 구매 후 영상의 가상 카드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OK 캐시백을 모으고, 사용하는 게 낫긴 하지만 이런 당장 다운로드하더라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특닥

(Talk to Doc)

의상 상담도 앱이면 편!

스마트폰이 있으면 전문의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서울 강남의 차과 의경이 만든 특닥(Talk to Doc)은 간단한 의문 상담을 해줄 뿐 아니라 가까운 의과기관 위치도 친절히 알려준다. 병원 가는 게 귀찮거나

길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라면 사용해볼 만한 앱이다.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현대카드

M포인트 올

M포인트가 있다면 앱에서도 지름신 영접 가능!

광고만 잘 된다는 줄 알았는데 앱만 쓰는 소비자 이제 못지않다. 현대카드를 가진 스마트폰 유저의 M포인트를 모두 알려줄 거니까! 무슨 소리냐고? 현대카드 M포인트를 앱에서 M포인트 상품품은 물론 이마트, 일렉트로닉, 홈플러스 등 다양한 상품품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지름신이 강령하는 소리가 들리나.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두산 베어스

우리 곱들이들이 선수들 했다. 진짜 찻다는 건 아니고.

두산 베어스 국내 프로야구 중 가장 처음으로 스마트폰용 앱을 내놓았다. 두산베어스의 경기 일정과 중계 방송을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만 상대의 경기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 더 구단 팬이라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야구 팬이라면 경기 조커로 활용으로

하루를 가지고 있으면 편할 거다. 당선이 두산 베어스라면 치를 때쯤 야생의 팬과 관련된 이야기는 달라졌지만.

이튿스도어(iunes.apple.com/kr)

BOOKMARK

에디터의 즐겨찾기

MAXIM 일곱툼의 즐겨찾기 리스트를 공개한다.



1 TP 올릭 tpolic.com

노트북을 사랑하는 에디터 김씨는 오늘날 이곳에서만 노트북 사전에 해당 앱이다.

2 루리웹 rulivweb.com

게임을 좋아하는 에디터 김씨는 오늘날 이곳에서만 게임 영상이 가장 좋다.

3 킵캐이닷컴 kipkay.com

후배 몇몇이 좋아하는 에디터 이씨는 여기서 에디터 김씨 학생이 전공이 잘치하는 것을 배운다.

4 뽀뽀인사이드 ppopppu.co.kr

소풍을 좋아하는 에디터 고씨는 오늘날 이곳에서만 지름신을 들켜 준다.

5 언카우처드닷컴

uncoached.com/category/shes-uncoachable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에디터 유씨는 화보 촬영 시간과 기사 이애크를 한다는 핑계로 이곳에 상주한다.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MAXIM

보기만 했던 MAXIM을 이제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자.



STAR

만나고 싶었던 국내외 유명 스타들의 인터뷰와 멋진 화보가 당신을 기다린다.



FEATURE

스포츠, 연예 심리, 헬스, 비즈니스, 범죄, 역사, 경제 등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 모든 이야기가 펼쳐진다.



MEN'S KIT

자동차, 비디오펜, PC 장난감, 스마트폰 등 당신의 인생을 더욱 멋지게 할 아이템이 여기 있다.



FASHION

실용적인 패션은 바로 이런 것! 슈트부터 스트리트 룩까지 MAXIM이 알려주는 진짜 스타일을 익혀라.



CULTURE

요즘 뜨는 영화는? 여자와 불만한 공연은? 잘 모르는 게임은? 들을 만한 음악은? MAXIM이 알려주겠다!

AND MORE!

영상으로 즐기는 MAXIM

종이로 보는 콘텐츠에서 이제 동영상으로 종이에 묶여 있던 스타들이 마음껏 움직이기 시작한다. 스타의 생생한 화보 촬영 현장과 인터뷰, 흥미로운 영화 예고편과 영화보다 더 멋진 게임 트레이일러, 매달 뜨겁게 달아오르는 MAXIM PARTY 현장, 그 외 눈과 귀를 사로잡을 동영상들 기사와 함께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 방에 해결한다

기사와 관련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따로 컴퓨터나 전화를 찾을 필요 없다. 기사 속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터치만 하면 바로 연결된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인 당신에게는 MAXIM 어플이 담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된다.



내 맘대로 클로즈업

기사 속 화보들을 내 맘대로 확대하여 감상할 수 있다. 그랜드당신이 바라던 바로 그 기능!

다양한 이벤트

당도 보고 뽕도 따고, 어플도 받고 상품도 받고, 자세한 이벤트는 MAXIM 홈페이지(www.maximkorea.net)를 참조하라!



WHEN

현재 MAXIM 5월호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MAXIM 6월호 어플은 \$1.99에 판매 중입니다. 5월호를 다 보고도 6월호를 구입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생분 기사로 구성된 MAXIM 6월호 맛보기 버전(Free Version)을 먼저 즐겨라. 맛보기 어플을 보니 뭔가 싸다만 듯한 기분이 든다면? MAXIM 6월호 전체 버전(Full Version)을 구입해 찜찜함을 해소하자! MAXIM 어플 메인 페이지의 좌측 하단에 있는 라이브러리(Library) 탭을 터치하면 구매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이제 곧 7, 8, 9월호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기대하시라!

J&B Dolls



dance with J&B Dolls

주희

J&B Dolls 멤버인데 워스키를 좋아하나요?

저는 소주를 좋아해요. 하지만 J&B Dolls 팀원으로서 이제 저는 J&B를 많이 좋아하려고 합니다.

멤버 중 누가 술을 가장 잘 마시나요?

이 질문엔 멤버들이 모두 저를 지목할 것 같네요. 타고난 걸 어쩌나요? 술자리에서 취해도 다른 사람들은 제가 취한지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 날 오히려 제가 "너 어떻게 집에 갔어?"라고 먼저 물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 왜 제 취했어?"하고 놀라요.

술버릇이 안 좋은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 전 헤어집니다. 나쁜 술버릇은 고칠 수 없고 ভাল인 것 같아요. 전 깔끔한 술자리를 좋아해서 술버릇 나쁜 사람은 노! 노! 노!

데뷔 준비 과정 중 힘든 건 없나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니 즐거울 수 밖에요. 아직까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가끔 멤버들에게 인무를 가르쳐주는 데 저보고 나중에 강사 해주세요(웃음). 어릴 때부터 막연히 가수가 되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무대 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쾌감이 너무 좋아서요. 어느덧 여까지 왔네요.

활동하면서 만나고 싶은 스타나 만났는데 가장 인상 깊은 스타는 누구인가요?

비문세요. 제 물모양이나 자제권 신적인 존재예요. 한국의 비문세가 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연히 길에서 이정재 씨를 봤는데 모든 게 3초 동안 정지된 느낌이었어요.

어름도 다 끝나가는데 세련한 얘기를 들어보죠. 귀신 본 적 있나요?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의 집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은송

원지 은송 씨도 술을 좋아할 것 같은데,

전 술을 잘 못 마셔요. 유전이에요. 와인 한두 잔은 마시죠. 워스키는 와인만큼은 아니지만 와인 다음으로 좋아해요. 얼마 전에 처음으로 주회랑 술을 마셨어요. 우리 시인 항상 어색하다며 좀 친해지자고. 하지만 그 소주 한 병은 모두 주회 입으로... (웃음)

특별한 술버릇이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 술을 마시면 얘기가 많아진대요.

만약 남자친구가 술고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많이 마시지만 일요엔 괜찮지만 술버릇이 나쁜 건 그게 문제겠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좀 고치라고 부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두 번은 용서하겠지만 자주 반복하면... 흠, 하지만 진짜 너무 사랑하면 제가 참고 희생할 것 같아요.

J&B Dolls 연습 과정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힘든 건 멤버들과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예요. 전 몸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아픈 게 가장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씩씩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크게 힘든 점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 당연히 즐겁죠. 매일매일 연습하러 나오는 게 시험 보러 가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해요. 춤추고 노래 부르는 일이 정말 즐겁고 적성에 맞아요. 가슴이 벅차다고 할까요?

팬으로서 좋아하는 스타가 있나요?

가수 박정현 언니를 꼭 만나고 싶어요. 축하할 때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정현 언니 노래만 들었거든요.

귀신 본 적 있나요? 귀신 보면 음반이 대박 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빨리 보고 싶네요. 제가 똑같이 있을 때 민실 가족사에서 자랐는데 밤에 귀신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외국에선 귀신도 외국인이라고(웃음).



◀ J&B DOLLS

스키치위스키 J&B를 대표하는 퍼포먼스 팀. 현재 주희, 은송, 유림, 헤민이 멤버로 구성되었고, 015B의 장호일이 오디션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 과정을 지휘해 화제다. 그리고 곧 멋진 음악과 퍼포먼스로 무장한 그녀들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유림

유림 씨는 어떤 술을 즐겨 마시나요?

전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나마 위스키 브랜드 중 익숙한 건 J&B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끼리도 연습하고 틈에 관리 등의 이유 때문에 간단한 화이트 와인 술을 잘 안 마셔요. 그래서 전 각자의 술버릇이 무척 궁금해요.

술 대신 무엇보다 회포를 푸나요?

커피는 지겹도록 마셨어요(웃음).

유림 씨가 술을 좋아하지 않으니 술 많이 마시는 남자는 싫어하겠네요?

술 마셨을 때는 안 만나줄 거예요.

원래 가수가 꿈이었나요?

어릴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무대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면서 계속 발전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싶기도 하고요.

트레이닝 기간에 어떤 걸 느꼈나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요. 멤버끼리 궁합이 잘 맞아서 연습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피곤하고 힘들 때 서로 웃어주면서 힘이 돼요.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이 있나요?

탈린트 이정성 씨요.

네?

오랫동안 꼭 좋아했어요. 보고 있으면 재미있고 즐거워요. 꼭 만나보고 싶어요.

귀신을 무서워하나요?

지금껏 살면서 귀신 이야기 듣고 한 번도 무섭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만약 귀신이 나타난다면 사람을 무섭게 하지 말고 티알려서 돌려보낼 거예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주세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빛은 멋진 퍼포먼스 보여드릴게요. 기대해주세요!

헤민

위스키 외에 좋아하는 술이 있나요?

위스키는 다른 술보다 깔끔해서 좋아하고, 위스키 외에는 막걸리를 좋아해요.

멤버 중 가장 술래는 누구인가요?

전 주희 언니랑 자주 마셨어요. 아주 말술아십니다(웃음).

술버릇 나쁜 남자친구.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전 제가 술버릇이 안 좋아서 남자친구만은 취하지 않고 잘 챙겨줬으면 좋겠어요(웃음). 그런데 술버릇이 너무 나쁜 남자친 아예 만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연습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 땐 역시 실력이 늘지 않을 때죠. 전 그래서 트레이닝이 아주 즐겁습니다. 스스로 발전해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가수는 유명인가요?

전 본능적으로 이 길을 따라온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거울 보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혼자 인터뷰 연습도 했거든요. 이 일이 아니면 다른 일은 못할 것 같아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주희 씨는 만나고 싶은 스타로 비온

세를 꼽았어요. 헤민 씨의 우상은 누구인가요?

저도 비온세가 우상이에요. 꼭 만나고 싶어요. 아, 그리고 트레이닝 중에 현진영 씨를 봤는데 카리스마가 넘쳐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우리가 다편이었어요.

살면서 가장 선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가위에 자주 놀러요. 처음 가위 놀렀을 때가 중 3때였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올해 J&B Dolls의 활동 포부를 간단히 밝혀주세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과 항상 변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J&B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IMAGE Getty Images, Dreamstime

- 1 사진 속 캥거루는 아름다운 금발 여인의 어딜 보고, 무슨 말을 했을까? 당신의 폭풍 센스를 발휘하여 여기에 어울리는 말풍선을 달아보자.
- 2 [이메일] caption@maximkorean.net [스마트폰] QR 코드 스캔 후 댓글달기 [우편] (121-841)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6-36번지 MAXIM KOREA 빌딩 4층 편입부. 응모 마감은 9월 10일.
- 3 담당 에디터의 링크가리개 배치를 올리는 캡션을 보낸 독자에게 연극 관람권 2장 또는 MAXIM 1년 정기구독권을 선물하겠다.

조금은 외로운 세 남녀의 한 집 스캔들!

Event

2012.12.27 OPEN



LAST MONTH'S WINNER

“화룡점(畫龍點)... 젖!” - 김정태

술로 취한 김정태 씨 “개마고원의 다람쥐마냥 건방진 말투를 이해해달라”는 지루한 시투 잘 봤다. 그러나 젖이야 말로 핵심 중 핵심이라는 심오한 뜻을 담은 사자상이 “화룡점정”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였으니 선물로 MAXIM 1년 정기구독권 보내주겠다. MAXIM 보면서 술로 생활 밀착하고 연애 스텝과 작업용 집상시 생사시 올해 안에 화룡점정하길 바란다. 꾸욱~.

AND LOSERS

이보시오, 독자 양반 이게 대체 무슨 소리가 됩니까



아우씨 손가락이 짱아 -kmu045

이이고 내 새끼. -조민희

→ 너무 슬퍼서 말라.

오늘따라 맥이 먹고싶네 가래떡 공떡 -gomer

내가 젖소 재조기, 얼룩소. -gg95

→ 너무 난해해서 말라.

오늘따라 캔버스가 요동치거든. 눌러서 피워야

했는데 -seam316

→ 눌러서 짜지르면 안 되니까 말라.

힘 빼!!! 타지면 어쩌려고!!! -caboom

→ 정신 차려라 이런 캡션으로 어쩌려고!!!

말풍선이 어디 있어요? -hdome1

→ ... 내?

DRINK TASTER'S CHOICE

커피믹스 배틀

MAXIM 스태프의 마음을 함께할 새 커피믹스
스를 고르는 신성한 테이블에서 MAXIM의
간택을 받은 녀석은 누구일까?

BY 김희성 PHOTOGRAPH BY ARC STUDIO

MAXIM'S
CHOICE

네스카페 마일드 커피믹스

★★★★★

시크한 도사님녀인 MAXIM 직원들의 커피
믹스 선택 기준은 놀랍게도 '다방 커피'였
다. 네 가지 커피믹스 중 '다방 커피'와 가
장 비슷한 맛을 지녔다는 이유로 네스카페
를 우리들의 마감 친구로 간택하기로 했다.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이 커피를
참 잘 타~
고경희(메션 에디터) says 커피에 보리차를 섞은
게 제일까 심을 만큼 구수한 맛과 향이 인상적이다.
박해진(기획전략팀) says 느끼한 음식을 먹고 난
후 제격일 것 같은 진한 커피맛
유승민(피처 에디터) says 무심한 듯 시크한 맛
이 난다.

맥심 아라비카 100

★★★★☆

'맥심'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는
호감을 표하는 뜻도 없는 직원이 많았다.
씁쓸한 아라비카 특유의 끝 맛이 덜지 않
아 좋다는 평도 있었다. 하지만 커피도 잡
지도 역시 MAXIM.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은 커피를
참 잘 타~
최인영(기획전략팀) says 알 수 없는 호감이 들
면서 커피를 장기구독하고 싶다는 욕구가 밀려온
다. 02-333-1182
김희성(어시스턴트 에디터) says 유독 쓰게 느껴
지는 건 신배 에디터의 갈근 때문이었지 두근보
겠. 영?
이영비(피처 에디터) says 인생의 쓴맛이 느껴
진다.

알리카페 클래식

★★★★☆

말레이시아 왕자도 마신다는 수입 커피. 하
지만 글로벌한 잡지사 MAXIM에서 근무하
는 직원들의 입맛은 그다지 글로벌하지 못
했다. "곰팡이 쓴 것 같다"는 신배 에디터
의 한마디에 알리카페는 당장 내다버리기로
했다!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이 커피 참
잘 타~
유승민(피처 에디터) says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
허연 부유물만골이나 네 가지 커피믹스 중에 가장
저렴성이 강하다. 헤이즐넛에 가까운 맛
김지현(디자인) says 식으면 입자가 어떻게 퍼
서 먹기 싫어진다.
이영비(피처 에디터) says 허연 곰팡이들 똬에 타
서 주머니 날 죽일 셈인가?

테이스터스 초이스 마일드 모카

★★★★☆

왜 우리 할아버지께서 '테이스터스 초이
스~ 테이스터스 초이스' 하시는지 알아냈
다. 달다. 식으면 식을수록 단맛이 강해진다
는 점을 고려해 초이스하지 않기로 했다.
밀린 기사에 허덕이다 보면 식은 커피를 마
시기 일쑤니까.

진우빈(기획전략팀 과장) says 미스 김이 이리 와
서 좀 안아보게
김상현(피처 에디터) says 허공에 나는 듯맛이 가
볍고 경쾌하다. 처 첫사랑의 맛
최인영(기획전략팀) says 식당에서 주는 후식 커피
피 맛 속담에선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쓰나?
박해진(기획전략팀) says 향도 맛도 순하다. 식으
면 식을수록 특유의 단맛이 더 강해진다.



트레이너 강의 ONE POINT FITNESS

눈요기용 갑배 만드는 일 따윈 잠시 접어라. 남자의 진짜 힘은 탄실한 하체에서 나온다. MAXIMO! 빈약한 당신의 하체를 호날두 말박지로 만드는 운동법을 알려주겠다.

BY강상현 WORDS BY 트레이너 강상현(강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IMAGE 태리 하체재(Dreamstime.com)

Dumbbell Front Squat 덤벨 프론트 스쿼트

누가? 다리 전체의 근육 향상을 원하는 당신



1.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리고 양손에 든 덤벨은 어깨높이에 위치시킨다.
2. 가슴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발 뒤꿈치에 몸과 엉덩이의 중심을 실으며 천천히 앉는다. 바닥과 대퇴부(넓적다리가 수평이 될 때까지) 자세를 낮춘 다음 호흡을 내쉬며 처음 자세로 돌아간다.

주의 사항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Lunge 런지

누가? 대퇴부(넓적다리) 전면의 근육 강화를 원하는 당신



1. 어깨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서서 정면을 바라본다.
2. 한 발을 앞으로 길게 뻗은 후 양 무릎을 천천히 굽힌다. 이때 척추는 곧게 편 상태를 유지한다.
3. 뒷무릎이 땅에 닿기 직전까지 구부린 다음 천천히 시작자세로 돌아간다. 반대편 다리로 동일하게 실시한다.

주의 사항

앞으로 뻗은 무릎이 발끝을 가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칫하면 무릎 부상을 당할 수 있다. 통증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양손에 덤벨을 든 채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Side Lunge 사이드 런지

누가? 대퇴부(넓적다리) 안쪽의 자극과 근육 증진을 원하는 당신



1. 양손에 각각 덤벨을 들고, 양발은 어깨 너비의 2배 정도 벌린다.
2. 발끝은 각각 바깥쪽으로 45°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동시에 반대편 다리는 안쪽에 충분히 스트레칭이 되는 느낌 이 될 정도로 꼭 파준다.
3. 무릎을 굽힐 땐 상체도 같이 천천히 숙인다. 덤벨을 잡은 양손은 굽힌 쪽 다리의 발끝을 향하게 한다.

주의 사항

다리를 펼 때 호흡을 내쉬는 걸 잊지 말 것. 개인의 체력에 맞춰 10~15회씩 3~5세트를 진행한다.

WHAT WOMEN WANT

그녀를 위한 어드바이스

범만 되면 **하체가 붓는 그녀를 위해**

범만 되면 여친구없는 사람은 알아두면 손해 볼 건 없다는 하반신이 탕탕하다 못해 타깃 것 같이 팽창해~? 그런 걸 전문언어로 부종형 하체 팽창이라고 부른다. 이럴 땐 연부의 삼투를 줄이고, 칼슘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비롯해 알칼리성음에 좋은 미역이나 김 같은 해조류를 섭취하면 좋다. 안 그래도 다리 가 땀 뻘뻘 부어 예뻐한 그녀에게

"나한테 로직 맞으면 골로 가겠다"는 식의 쓸데없는 농을 던져 욕 차려지 말고 위와 같은 팁을 천재처럼 리, 그리고 "당신의 탱 탱 무는 다리조자 나에게는 사랑스럽다"는 게 드림을 연속기로 넣어줘라. 그럼 당신은 오늘 밤 그간 열성치 키워온 하체 파워를 그녀에게 새끼를 기 회를 얻게 될 거다.



온라인 작업 실패기

하지만 사이버 러버가
사이버 러버 되는 거 한순간이다.

기회는 많다. 나이 제한도 없다. 텍사스 주립대학의 연구 결과 따르면 인터넷으로 남자를 만나서 여성의 30%는 실제로 대면하자마자 참실로 향한다고 한다. 갓 블랙스 네트워크! 하지만 온라인에서 이성을 만나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기회가 많은 만큼 엄청난 숫자의 경쟁자가 다른 사람의 프로필, 트위터, 미니홈피, 메신저 대화명 등을 마음감정(경이)을 공공 뒤져내고 있기 때문이다. 표화 평소 좋아하는 이성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신의 작업이 너무 부담 없는 나머지 후~ 불면 날아가는 것 같을 정도로 비취질 수 있다는 사실. 온라인 작업질의 불타는 이슈라움에서 당신의 전략은 무엇일까? 그녀들의 경험담을 통해 접근 전략을 구다 들어보자.

간판

싸이 프로필에 뚫난 얼굴로 귀여운 척 보이는 남자 셀카를 보면 화면 속 2차원 이미지를 향해 뺨을 날리고 싶어진다. K25세, 김우원

처량한 빌라드에 기겁처럼 '안온이러면 언젠가 만날 거야' 혹은 '너무 야하다.' '눈을 똑똑' 등 손발 오글거리는 글을 골라거나 반대로 사니~하하하로 싸이를 도배하는 인간도 많다. 흥피 예민 화면은 영화 (친구)나 '비열한 거리'의 한 장면이다. 취향은 자유지만 너무 짜지는 대중가요를 배경에 걸아놓는 것은 별로다. 그리고 침입해 보인다. J28세, 커피전문점 매니저

중증 채팅하던 남자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입장했다. 이유를 물으니 집단 패싸움이 나서 그럴 해결하고 왔단다. 그는 자신이 집에 쫓겨 배에서 피가 난다며 '욕, 잠시만...' 이런 말을 토박도록 화면에 타이핑했다. 아냐, 그렇게 야하면 병원에 갈 일이지. O32세, 포토그래퍼

얼굴 사진은 없고 상반신 누드 사진만 찍 한니 올려놓는 남자가 제일 이상하다. 남치고 화장실 거울 보여 상반신 셀카 안 찍는 놈이 없는 것 같다. L28세, 취업준비생

당신이 여자를 파악할 때 오로지 '사진' 만 보는 것과 달리 그녀들은 음악, 글, 싸이 배려가 있지만 등 온갖 것을 다 눈여겨보고 있다. 별로 어렵지 않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운영자는 "여자들은 너무 활짝 웃는 사진보다 자연스러운 무표정한 얼굴을 선호하며,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시선이나 영감을 왜곡한 사진을 선호한다"고 조언했다. 프로 필의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무난한 클리셰를 펼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담백하고 우스꽝스런 듯한 톤으로 좀 있어 보이는 취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는 정도면 단다는 뜻 미국의 데이트 사이트 Plentyoffish.com을 운영하는 케이트 빌렌키는 이렇게 조언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착한 남자와 독서자 취미인 남자보다, 이스트 고대 문화에 관심이 많거나 친구들과 밴드를 만들어 연습을 한다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살짝쿵 뺨을 기어보도 상관없다! 어쨌든 욕망량 거울 앞에서 상반신 털의 셀카는 원만하면 자랑하자. 그리고 너무 잦은 배경화면, 배경음악 교체도 자랑하라. 무척 할 일은 능처럼 보인다.

대화 스킬

대화 중 철자 많이 틀리는 사람은 진짜 있어 보인다. '어떻게' '아쁘지' 알고 빨리 날아! 너 아무런 나 탕탕떨떨할 거야' 등등. 마음에 없다가도 무식한 게 타나면 정 떨어진다. J21세, 대학생

타프하고 남자다운 그 선배를 좋아했다. 어느 날, 그와 매신로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다. 나도 모르는 이모티콘과 물리사전을 이미지화한 싸이클은 거대 가타 '도리도리' '해방' '~음제' 등 주먹을 부르는 일명 '선배를 향한 열정'은 바로 급속 냉각됐다. N28세, 학생

"후우우우우~ 음배제, 저 왔어염" 으로 대화를 시



조금만 더 손에 힘을 주면 뽀빠야!

작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인자' 하나 뿐 이며! 구강 구경다구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 이다. 셋, 책뚱이를 뽑아볼랑게.

온라인에서 채팅으로 만난 남자와 두 번 이상 지지 않는 것이 내 철칙이다. 그리고 너무 직설적으로 자차고 하는 것도, 너무 뽕방리는 것도 싫다. W27세, 대학원생

온라인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랑 채팅을 했는데 자기 예기 회사 요, 가족 걱정 진로 고민만 쏟아놓고 안 건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자기 예기만 하니 주변에서 그 사람 예 기 싫어줄지 않고, 그래서 계속 채팅만 하는 전형적인 우 울남자로 보였다. O31세, 커피매니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여자에게 어필하는 첫 번째 스킬은 잘 듣고 적당한 리액션을 보이는 것. 그런데 말이 너무 빠르고 많으면 남자로서 매력 이 몹시 떨어진다. 온라인에서는 적당히 다장다감 하게 리액션만 쳐주는 것으로 여자의 호감을 살 수 있는데!

대화의 소재와 뉴질랜드는 그녀가 쓰는 대화형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웅~ 피곤' '이 또 한자카리라' '술 당간다' 등의 대화명을 쓰는 그녀는 지금 힘들고 대화 상대가 간절한 상태다. 이 런 대화명의 여자들만 골라 접근하는 것도 너무 먹 한다. 물론 그녀의 푸념을 몇 시간 동안 들어야만 다는 단점이 있다. 1시간을 얘기하든 3시간을 얘기 하든 그녀들은 어찌 못 다한 이야기 가 있기 때문 에 오프라인으로 만날 기회가 쉽게 열릴 수도 있다.

채팅 하다가 저 색스 메카부터 꺼내는 남자. N25세, 익사

그 녀석 순기력에 훑어 들려서 그렇다.

정성

트위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날 물어우려고 친해지고 글 까지 남긴 그 사람 트위터에 가보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다.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친해지고 글을 남겼잖 라. 이 자식, 넌 여자계 욕망을 줬어. M28세, 승무원

싸이 일촌 맺기는 상대의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소 스드. 그런데 짜리 짜리만 접근하는 용기 없는 남자들이 많다. 방명록만 남기고 그 이상의 연락은 하지 않는다. 만 나지는 약속도 싸이를 통해 잡으려 한다. '사이버 러브' 가 필요한 걸까, 아님 그냥 소심한 걸까? 이해할 수 있다. K27세, 학원 강사

밍밍한 관계가 지속되면 그 남자는 그냥 '사버 러 버' 로 추락하는 거다. 남자는 끈기 없게 달가게!

"혹시 OO 초등학교 나온 OO 알나요?" 혹은 "여러를 때 OO에 삼았어요?" 등 사단점은 질문을 쪽지로 보하는 사 명이 일주일째 1명 이상씩 꼭 갔다! 차용면 아는 사람만 달 잃고 답장을 보냈는데, 학생 그 남자는 내가 진짜 OO 에 삼았던 OO21세에 대해서 관심도 없더라. 그 남자의 관심사는 오직 이것 '이것도 인터넷인데, 일촌아냐...' 한 두 번 속일지만 지금은 당당 한 한다. S27세, 학원 강사

가기는 발달하는데 직업 방식은 왜 발달하지 않 나? 온라인 작업의 장점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 화할 만큼 친하지 않아도 적당한 인연이 있는 정도 나 간간히 아는 사이라면 오히려 메신저나 트위터 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작업 걸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조금만 그 대에 대해 신경 쓰면 그 녀의 취향, 취미고 또는 취미고 동선, 여가 생활 등 에 대해 더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온라인 직업의 매력이다. 너무 배색처럼 일만 여자에게 공포와 거부 감만 줄지 모르니 조심할 것.

가타 실매 이유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걸어오는 남자? 그 남자가 설명 원 빈의 의뢰를 가진 빛는 생생채널! 해도 내! 그냥 피 켜!다, 얼마나 못났으면 현실에서 자기 인연 하나 만 만들고 온라인에서 이려고 앓을까! 안쓰러운 마음만 속구 켜!다. P22세, 대학생

귀담다. 타이핑. L28세, 잡지 에디터

2010년 9월 독자 모델

최이윤

우리를 아찔하게 만드는 톱스타들의 다리는 사실 그녀의 것이었다. 연예인 보디 대역 모델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그녀의 아찔한 몸매 때문인지 촬영장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다.



촬영장 엿보기!



나는

언뜻 보면 잘 볼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재미없는 사람. 시끄러운 것보다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꽃꽂이와 독서가 취미인 여자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곳
키에 비해 긴 다리.

나를 볼 수 있는 곳
양재천에 오면 열심히 걷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거다.

남자친구
없다. 진짜다.

주량
술은 잘 못 마신다. 잘 마시고 싶은데 체질상 못 먹는다.

MN (러브 스위치)에서 마음에 들었던 출연자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에 불을 꺼버리더라. 불을 끄는 순간 미련 없이 단념했다. 이전 일방적인 사랑은 싫으니깐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었지 않나!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촬영 콘셉트
매혹적이고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 다리 길지?



다음 번엔
더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내 다리가 더 예쁘다. 화장발, 조명발 받으면 내가 재보다는 낫지!'
MAXIM 화보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여성 Come on!
하루쯤은 MAXIM 표지 모델처럼 판타스틱한 화보 촬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여성들 Come on!

1 MAXIMI 2010 Girl-Next-Door의 문을 두드린 여성 독자 모델을 찾습니다!

2010 GIRL-NEXT-DOOR 콘테스트는 2010년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하며, 독자 모델의 화보는 MAXIMI의 지면 또는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콘테스트 방식 및 우승자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Girl Next Door 콘테스트 최종 우승자는 상금 200만 원을 받으며, 2011년부터 MAXIM 모델로 활약하게 됩니다.

화보 주인공인 당신의 판타스틱한 하루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포토그래퍼, 헤어메이크업 전문 디자이너, MAXIM 스태프 등이 움직일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진 연락처와 함께 신청 메일을 보내주세요!

model@maximkorea.net

(단, 눈동자만 있고 코, 입이 없는 부산집 신형 학원이 불가능한 사진은 도리도리 사랑합니다)

※ 콘테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maximkorea.net 문의 QNA@maximkorea.net

LOVE or HATE

이런 남자가 좋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꾸밈없이 솔직한 남자.

이런 남자는 싫다
여자 많은 남자. 한마디로 바람기 많은 남자는 정말 싫다. 거짓말하는 남자도!

좋았던 데이트
많이 아팠던 날 남자친구가 손수 죽을 만들어왔다.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 정말 눈을 나도록 고맙다!

끔찍했던 데이트
어릴 적 짝사랑하던 남자의 데이트 예쁘게 보이려고 힐 신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쇼핑을 하지도, 발 아픈단 말도 못하고 하루 중일 돌아다녔는데 집에 와서 보니 발이 원천 민산창이가 돼 있었다.

RATED

YOUR ULTIMATE ENTERTAINMENT GUIDE



영화 (피라냐)
예매권 받기

피라냐 3D

식인 물고기 3D로 맛 좀 볼까? 혹시 헛집 수족관에 얼굴을 뽐이고 들여다보는 것과 비슷하면 어떨지? BY 이영미

저 등실한 가슴의 이쁜 아가씨가 낯설지 않지요? 이번 MAXIM 한국판의 커버로 등장한 켈리 브룩이다. 스토리 따윈 안중에 없었지만 우린 문화인이나까 대중 읽는 시늉이라도 하자. 스토리는 간단하다. 청춘 남녀가 신나게 모여 노는 호숫가. 갑자기 그 호수의 바다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200만 년 동안 인간 세계와 격리되어 있던 원초 피라냐 떼가 '종 같이 놀자'며 물러와서 파티를 벌인다. 질어서 더욱 상심한 인간들의 피와 살을 흥포한 식인 물고기 피라냐가 짹 짹 들어먹는 사이, 그래도 살겠다고 버둥대는 사람들의 혈투가 벌어진다. 유지태가 나온 공포영화 (거울 속으로)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 (미라를 연출한 일렉산드리아 김씨가 메가폰을 잡았다. 여기에 (300)의 제작진이 참여하여 생생한 고어와 스킬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피라냐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농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D로 물고기를 본다는 그 자체가 좀 무섭다. 그나저나 '단 3초! 살아있는 모든것을 먹어치운다!'는 티저 포스터의 카피를 보니 섹터 위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열차의 에디터 김 씨가 떠오른다. (자! 일어난 죽을 것 같은 하기를 느끼는 것도 피라냐와 비슷하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고기를 '미시지'는 말만 말아야. 영웅 갑자기 (피라냐 3D)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Dm 1위! NAVER 1위! IMDb 1위!

전세계는 지금 피라냐 열풍

개봉예정영화 검색순위 다음, 네이버 동시 1위

네이트 인터파크 보고 싶은 3D 영화 1위, IMDb 개봉예정작 예상스코어 1위

<300> 제작군단의 3D 씬머 블록버스터

피라냐

PIRANHA 3D

caffe Ti-amò 롯데이티 카페인 기념 문화이벤트 www.ti-amò.co.kr	PIXIX 픽스틱스의 함께하는 배려진 이벤트 www.pixix.com	seorakwaterpia 풀 에를 최고의 워터 이벤트 www.seorakwaterpia.co.kr	EASTAR'NET 피라냐 열풍보고, 이스타 환골무로 제주도 여행하자	TOMATO 커민 토마토의 부러워할 의견이 함께해요 - 피라냐 - 무료 시사회	IDIZA 이디자 데탕과 함께 즐기는 SUMMER 스페셜 이벤트	리빙콜라보레이션 동영가지원주의 함께하는 영아 이벤트
--	--	--	--	---	---	--

2010년 8월, 대개봉!

이벤트 **NAVER** 피라냐 **영화 예매는 YES24.COM**



《악마를 보았다》를 보았다.

보구나니 육화가 당기는 영화였다. BY 이병태

질러도 다 보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악마를 보았다》를 두고 인육을 먹은 뒤 게게에 주는 장면과 시신 일부를 바꾸어 던지는 장면 등이 인간 존엄을 훼손시킨다며 2차례 제한영역가로 판정했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영화는 1번 30초를 편집하여 청소년관람불가능 개봉할 수 있었다. 영화에서 절린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친절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멘트를 참조하라.

감독의 함정적도 발동

올 병사마가 나오니 쟁겨바이아! 하는 소녀 같은 마음으로 극장에 간 순수한 여자인. 병사마를 시릴 것 육화디에미 던진 감독 김지운에게 쓰러미! 라고 욕을 해대며 10분도 못 간다고 울부짖으며 뒤쳐나올 거다. 김지운은 여린 이의 비위까지 맞춰줄 만큼 친절한 감독은 아니었다. 불쾌함에 손끝이 지렁치터 해울 땀. 어. 물 같은 걸 끼었나?

하지만 역시 병사마

신은 루저에게 재물을 주겠다. 이병헌은 연기를 참 잘한다. 최민식의 부당스러운 존재감을 밀어버릴 정도로 말이다. 일단 액션 된다. 특수요원 전문 배우 이병헌은 이 영화에서도 탄력 있는 주역들과 발차기를 선보인다. (농놈), (아일랜드), (지아이토) 등에서 보여준 그 명성 그대로다. 선이 세밀한 감정 연기도 대한민국 최고다. 악마 같은 연쇄살

인마가 악흔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에 놀라 슬퍼하고 분노하다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과정 하나 하나의 섬세한 표정 변화는 영화를 보는 관객마저 그와 같은 표정을 짓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다. 사람 팔 뼈의 초점 없는 눈빛도 인상적이다. 진짜 맞간 것 같다. 흡사 즐기는 듯하다. 특히 복수의 증정을 찍고 뒤돌아 나오는 길에서 슬픈 듯 개운한 듯 오묘한 그 표정이 압권이다. 김지운 감독, 이병헌 이 영화 다 살렸으니 밥 사자겠다. 육화치, 육화,

뒤치기를 부르는 이름, 최민식

연쇄살인마를 연기한 최민식은 혼신의 힘을 다해 아래와 같은 것을 표현했다: 육두문자, 계절스러운 강간, 살인, 사체 토막, 잔인하고 동물적인 사냥 습성 등. 공포영화 (사)님을 본 후엔 딱 니콜라스 아무리 방긋 웃으며 로맨스나 코미디 연기를 해도 섬뜩한 것처럼, 앞으로 최민식이 어떤 영화에 어떻게 출연하건 (악마를 보았다)의 모습이 겹쳐 보일 것 같다. 그의 기계적인 살인마 연기는 몹시 불편했다. 최민식 스스로도 가장 몰입할 수 없었던 캐릭터 라 말할 만큼 캐릭터가 가진 악마성이 그만큼 지독했다는 뜻이다. 이것도 다 감독 때문이다! 박찬욱 감독은 (찬절한 금지곡)에서 그가 여자의 뒤를 덮치게 했고, 이병헌 영화에서도 꽤나 질척한 뒤치기가 나온다. 아마 감독들은 최민식의 격렬한 둔부 움직임으로 폭력성과 정복욕을 표현하려 했겠지만, 감독이던 사람들은 최민식만 보면 뒤치기가

그들의 불멘소리

김지운. 이병헌. 최민식이 가져 사사회에서 남긴 말이다.

》 김지운 감독은 '캐빙'으로 감격스럽긴 처음이며,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무든 할능은 어우사'. (공명)은 동아! 같은 재료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녀스래를 말했다.

》 이병헌은 김지운 감독을 들어 '감독이 영화의 공을 자기 배우에게 돌리고, 주역을 배우 쪽으로 돌리는 걸 배우 연출을 잘 못한 모양이라고 농담을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김지운 감독 표정을 보니 그걸 농담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겠다?

》 최민식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는 (플랜다스의 개), (일프스 소녀 하디) 같이 푸른 풀이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싶단! 알프스 소녀 하디를 강간해 푸른 이기가 가득 된 같은 산 속에서 쇼츠를 토막 내듯 플랜다스의 개에게 먹인 뒤 거 목을 따는 걸로 파비레를 장사?

떠오르는 변태인가? 하는 의문이 술을 켜지시 시작한다. 정말 최민식 영명은 뒤치기를 부르는가?

육화 좋아해?

김지운이 썰고 고어 그리고 토막된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다. 고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에디터에게도 말이다. 특정 장면만 편집하면 아마 9분 고어 물이랑도 해도 믿을 듯. 게다가 9분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체 절단 장면의 살기나는 완성도란! (악마를 보았다) 관람 후, 한국 영화에서 나올 절단씬과 유행 폭풍 1년 치를 몇 시간만에 다 본 기분이었다. 잔인한 장면은 많지만, 이 영화에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니(물론 그것만 거기에 남을 순 없다). 걸출한 캐스팅, 개신된 불쾌한, 복수(액션)극이 주는 카타르시스, 긴간이 터지는 감칠맛 나는 대사, 그리고 옛은 여체(사체)와 김민식-최민식 콤플렉스 등 영화 관객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면모를 이 영화는 갖고 있다. 아했건 보고 인 보고의 결정은 관객이 하는 것이니 더 이상 말기할부하지 않겠다. 아했건 나 (덜골튼 인생)에도 황정민의 칼 쏘는 시운드와 속도감(이제시절)이 없었는데 역시 예상! 맞았다. 김지운 감독은 육화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PREVIEW

이달의 신작 BY 김혁성



패가
술을 차한을 떠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라지고, 남은 건 그들의 책은 영상뿐이다. 관객들은 그들이 남긴 영상을 보게 된다. 패가 30분 후의 영상은 영상 상하반

지안 김혁성 감독의 놀라운 재미는 있다. **8월 19일 개봉**



레지던트 이블 4: 콜리지 않은 전쟁 3D
레지던트 이블의 앨리스가 3D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는 사형사만한 괴물 오묘비바리의 액션이

우리의 인기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관람을 망설이아-? 그럼 일단 14로 풀이보라. **9월 16일 개봉**



익스펜디블
윌트 루드그렌, 아놀드 슈워제거, 실버스터 스턴, 톰 브루스, 윌리스, 미키 루크, 이언질, 랜디 카우어, 스티브 오스틴, 제이슨 스톱페인 이 영화에 나온다. 내용은 중요치 않다. 여기에 액션 같은 걸 끼어-? **8월 19일 개봉**



안젤리나 졸리가 남긴 떡밥

지난 7월 28일 안젤리나 졸리가 (솔트) 홍보 차 한국을 방문했다. 할리우드 대스타에게 떡밥 거리도 참 많이 던져놓고 갔다.



남젤이 브래드 피트인 게 자랑

"내가 자신이 가장 섹시하다고 느끼나는 질문에 졸리는 수줍음하며 '브래드 피트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답했다. 둘이 사모용 거 아니냐'고 대답했다."

브래드 피트의 이기심

"브래드 피트는 당시에 위험한 액션 영화에 출연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질문에 졸리는 '내가 공격당하는 건 싫어하지만 내가 다른 남자를 때릴 땐 좋아하는 나머지 차츰침을 만천하에 개방했다."

난 이미 죽었는데?

"영화 (원티드) 후속작 출연 제의를 거절할 걸로 알려졌다. 질문에 졸리는 '당황하며 후속작에 출연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원티드)에서 죽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죽은 사람이랑 뭐가 이랑만?"

또 등장할 웨인 드립

"자녀들이 비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사할아라는 질문에 졸리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국 방문이 예정되었는데 외국 배우에게 할 거수 비에 관한 질문은 때론 나오는 거니 웨인도 출연해서 웃고, 이거 비 모른다'고 이런 한국에서 웃겨날 거세."



대지의 신 졸리

그녀는 임산한 아이들을 위해 입양을 주제로 다른 영화 (공부터)에 출연했지만 영화 선택 기준에 대해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임산 계획에 대해 기자가 묻자 '지금'은 계획이 없지만 차후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모르겠다고? 이리다! 전 세계인이 졸리를 입양하고 부르게 생겼다. 뭐 나쁘지 않은데? 임마 미안

한국 팬타스틱 해로

누군가 '한국은 해외 기수급 가수가 들어올 통로가 거의 없고' 말하자면 그와 얽어 안타깝은 정성)이해 졸리는 '그것 참 팬타스틱하게 버려줄 생각' 대답을 했다. 졸리가 한국에 다녀간 다음 날 해외 타블로이드 잡지는 우릴 비웃고거리도 하듯 졸리의 과거 사진을 폭로했다.



BLADE OF GLORY

〈마체테〉의 대니 트레호

유희남자 유쾌동태! 이 영화를 손꼽아 기다렸다! 이리다 예티들 손가락 다 뽑히게 생겼다. 만년 조연에서 드디어 주연을 꿰찬 대니 트레호에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듣는 걸로 일단 아쉬움을 달래자.

대니 트레호는 졸리 무섭게 생겼다. (히트), (코어), (데스페라도), (씬 시티) 등 등장하는 영화 속 그를 볼 때마다 우리 동료 안 나올 만큼 겁을 집어먹었다(그는 실제로도 전과자다). 이번엔 그는 몇 편의 전작에서 그를 활약하게 그려는 데 재미 붙인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의 (마체테)에서 주연을 맡았다. 때맞춰 그를 만나 유희 남자인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컷 냄새 풍기는 전형적인 영화에 수도 없이 출연했다. 이번 영화를 어떻게 평가하니?
아마도 내가 만든 영화 중 최고일 거다. 로버트 드니로, 제사가 알바, 린지 로한, 마벨 로드리게스, 존 손스 스티븐 시갈, 치치 마틴... 배우들을 보라, 죽인다! 드니로와는 예전에도 일한 적 있다. 다시 만나니까 어떤가?
그가 이렇게 말다. '외우 대니, 이게 너의 첫 주연작이던 진짜 내가 자랑스러워 (히트) 찍을 때부터 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드니로씨, 커피나 좀 주겠다 주겠어?'

멋지군 이번 영화는 어떤 내용인가?
스티븐 사람이 내 아내와 딸을 죽인 마약상이고, 나는 그에게 복수를 한다. 나쁜 놈 지르고 싸는 게 내 일이다. 알다시피 내가 극중에서 자주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섹시한 그녀들과 함께 작업하는 건 어땠나?
일단 먼저 린제이, 그녀는 영화에서 아주 멋졌다. 마벨 로드리게스는 신의 눈물 빌풍과 같았다. 그녀는 위랄개... 진짜 고풍적이다. 그리고 제사가 좋아? 난 그녀에게 어떤 정도 키스했다.

젠장, 운이 좋군.
맞다. 내 친구 마리오 맥스와 크레이크도 나한테 키스하려 들었다. 제사가 알바랑 키스했으니까, 이제 나에게 키스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천하의 대니 트레호도 무서워하는 게 아니?
나 수갑 알레르기가 있다. 1960년에 출소한 이후부터니 왜 오래 되었지. 다시 가고 싶지 않다.

감옥에서 배운 게 있다면?
트러블과 거리를 두는 게 남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일마를 잘 돌보아야한다!
우리가 왜 (마체테)를 보러가야 하는지 이유를 대 보라.
당신이 문학적 가치를 추구하는 관객이라면. 보지 마라. 근대 안된 진짜 남자가 우었인지 보고 싶다면 (마체테)를 보라. 좋은 영화가 탄생하려면 딱 38가지 있어야 한다. BABY(아), BULLET(총알), 그리고 BLOOD(피), 우리 영화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ABOUT THIS FILM

마체테



이 영화 중 특이하다. 좀비 액션 (플래닛 테라)와 속 시범한 슬러시 (데스 브루프) 등을 옛날 동시대화한 뒤 무슨 영화 (그라티아 하우스)를 기억하-4000년 전 유물인 두 개의 영화로 나눠 개봉했다? 아! 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강렬한 예고편이 있다. 제목은 마체테... 이것은 로드리게스 감독이 장난으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많은 팬들이 이것을 실제로 영화화해줄 거라고 기대했다. 2012년 이 영화가 미국에서 릴리즈된다고 일단 그 캐스팅이 대단하다. 제사가 알바가 일단 알바를 뛰어주고, 로버트 드니로와 스티븐 시갈 두 세이-할배가 열연을 펼친다. 그리고 MAXIMO 시라하는 악동 린제이 로한이 울 누드 등장 주연 대니 트레호를 제외한 모든 배우들이 너무 행해서 놀라울 지경이다. 그 외에 마드 (로스트)로 우리에게 익숙한 이엘 로드리게스, (플래닛 테라)의 멋진 딸인 로즈 맥고언 등이 등장한다. 여태 뭐가 팔을 쥘지 않나?

박희본

계산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보석 같은 배우를 발견했다.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STYLING 고경희 ASSISTANT 조창진
COOPERATIONS DEG GALLERY D'CLOCK,
CLUB MONCO(02-2138-7769) Galia(02-3447-1098)





화이트 컬러 원피스 Gain
심버 핏피 에디터 소장



MAXIM과의 인터뷰라 긴장했다고 들었다. 스태프들이 편하게 해줘서 촬영을 재미있게 끝냈다. 사실 아이돌(뮤직) 시절에는 화보를 찍을 때 누구는 차만 입고, 누구는 모자를 꼭 쓰는 등 지켜야 할 룰이 너무 많이 피곤했다. 그러다 보니 허벅지가 굵다는 스스로 인드 고장관념 때문에 짧은 바지나 치마를 피하기도 했다. 이제는 전혀 개의치 않지만 말이다(웃음).

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처럼 실제로도 털털한 성격인가?

사나리오에 캐릭터 설명이 많지 않다. 달랑 26세의 카페 알바생이라는 설정밖에 없었다. 촬영하면서 말투와 캐릭터를 만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내 실제 모습도 많이 배웠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데 가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동발 행동도 서슴없이 하는 편이라 시이코, 돌아이라는 말도 자주 듣는다.

윤성호 감독이 '자연스러운 연기가 발군이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데?
그저 열심히 했을 뿐인데 감독님이 잘 봐주시는 거다. 감독님이 연출을 잘해주시는 덕분이었겠다. 실제로 '두근두근 흥어 드림' 편을 촬영할 당시에는 몸이 안 좋아서 연기에 대해 이것저것 계산할 겨를도 없었다.

당신은 어떤 스타일의 배우를 좋아하나?

코믹 연기의 달인 잭 블랙, 유아함의 대명사 케이 트 블란켓, (텍시 드라이버) 시절부터 좋아한 로버트 드니로, 우리나라 배우 중에는 전도연, 김태희, 김옥수 선배님을 좋아한다.

김태희를 좋아하는 건 좀 의외다.

실제로 만나면 어디 한 군데 흉집을 데가 없을 만큼 느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당신이 본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다면?

《매암》을 보면 "자신의 재능에 헌신하라"는 대사가 나온다. 스스로를 잃어 인간으로 생각할 만큼 한창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 대사를 듣는 순간 '파직' 하고 마음속에 스파크가 튀었다.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 그룹을 그만둔 후의 심경은 어땠나?

스스로를 낙넫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방법이 문제였다. 스타레가 생일 때면 미친 듯이 술을 퍼마시곤 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다.

한때 같은 소속사이던 소녀시대의 태연과는 요즘도 연락하고 지낸다고 들었다.

연은 내가 걸그룹에서 활동했던 아이만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정작 기사는 SM 엔터테인먼트의 태연만 연락이 닿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도 그때 일던 사람들과는 연락하고 지낸다. 그나마 내가 태연을 홍보에 이용해 먹은 뉴앙스의 기사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요즘 만나고 있는 남자사람은 있나? 있어도 없다고 말해달라.
없다. 됐나? (웃음)

이상형은 어떤 남자인가?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면서 느낀 건 연애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란 사실이다. 내에 대한 무한한 이해심을 가진 남자. 전 우주를 통틀어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면 좋겠다.

이제 당신은 가수보다는 배우로서 모습이 훨씬 매력적이다.

난 아직 배우라는 말이 낯설다. 노래 송파가 별로인 가수를 뮤지션이라고 부르지 않잖나. 배우보다는 '연'이라는 호칭이 더 편하다. 애 그리고요 난 가수를 그만두지 않았다. 오히려지 마라(웃음).

알겠다. 트위터를 하나?

물론이다. 팔로우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치고 팔로우 신청을 받아준 걸 못 봤다.

그걸 리개! 나만 일러라.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직접 신청해주겠다.

고맙다. 역시 예쁜 사람은 마음도 굽다.

미디어를 가리지 않는 뼈뫌한 장난꾸러기 영화감독 윤성호

MAXIM은 재기 넘치는 천재 감독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BY 김광현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이혼한 전처를 잊지 못하는 비윤의 아내가 그녀 못지않게 비윤의 삶을 사는 사람과 지고 부는 이야기다. 제목은 징 쉼 고다르의 1980년작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 빌려왔다. 제목이 마음에 들어 꼭 한 번 써먹고 싶었는데 영화로 만들고 싶진 않았다. 시트콤이어서 냉큼 제목을 집어왔다. 제목에서 카리의 구하리가 연상될 뻔한 대놓고 써먹기로 결심했다. 주인공 마누라 이름이 구하리다.

에피소드 1편 〈두근두근 오디션〉은 대박이었다. 뒷쪽지를 건도보

에 비유하는 센스라니 당신의 경험이 녹아든 에피소드였나?

나도 좋아하는 에피소드다. 보통 스토리만 경향이 녹아 있다면 개코 코드만들은 머릿속에서 쥐어 찐다. 1편을 보고 나에게 실망했다고 말하는 여자 팬도 있었지만 상관없다. 일의 일비하는 팬은 나도 사랑한다.

어려 너무 풀한 반응 아닌가?

몇 년 동안 영화를 하다 보니 이글이 낫다. 내 작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영화 잡지에 기고한 글을 모조리 스크랩한 분도 있었다. 그들을 일일이 다 신경 쓸 순 없는 법 아닌가!

“배우라는 직업은 가진 사람들은 외롭다”는 대사가 인상적이다. 사람은 다 외롭다. 배우, 연예인이라고 외롭지 않잖아? 그런 의미다. 만약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였다면 “법조인은 외롭다”는 대사가 됐겠지.

차기작이 〈육상 소녀〉(가제)로 정해졌다.

사나리오는 써든 상태인데 사나리오대로 찍을 확률은 희박하다. 사나리오대로 풀자면 10억이 필요한데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극장에서 개봉하는 TV 단막극이라고나 할까? 예산도 딱 그 정도(웃음). 일단 지분금 역할을 할 두 배우 박희권, 박희본은 확보한 상태다. 〈육상 소녀〉라고 정말 육상 소녀를 다룬 상투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다. 사람은 누구나 명예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육상 선수다. 이 영화는 한 소녀가 명예에서 풀락 뛰었다 내려올 때까지의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가 될 거다.

박희본이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 이어 〈육상 소녀〉에서도 주연을 꿰찼다.

내가 출연을 부탁했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에서 기대 이상의 인기를 보여주자 배우가 바로 박희본이다. 특히 자연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이런 연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자연스러움까지 계산해서 노련하게 연출하는 배우도 있다. 하지만 나처럼 예민한 사람에게 연기가 꼭 차 보여 부담스럽다. 난 연기할 때 약간의 틈이 있는 배우가 좋다. 그녀가 바로 그런 타입이다.

당신과 박희본이란 배우는 큰 무대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중이다.

고맙다. 가능성이 있고, 질의기를 바란다는 말 아닌가 지금은 여유가 없거나 나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하지만 나중에 잘 풀리면 한결 부드러운 남자 될 거다. 내가 하기 싫은 곳임은 똥방 예전사기 해줄 테니 말다(웃음).

당신 영화를 다운로드해도 상관 없다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가? 물론이다.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은 최

소한 수수료 확보하기 전까지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오히려 손해다. 일단은 사람들이 나와 내 영화를 길게 감상하는 게 급선무다. 공연도 일 정화 같은 스타를 섭외할 때 무작정 연락만 넣을 순 없는 노릇이다. 물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충분히 늘어났다. 내 다음 작품 활동을 위해서라도 불법 다운로드를 금지할 거다.

함께 작업하고 싶은 배우는?

미국의 알리스 카시 액션 연기도 곧 잘 하더라. 우리나라에서 와서 액션 영화를 찍으면 멋질 거다. 〈오피스〉의 스티브 키엘도 좋아한다. 짜질만 중년남 연가는 단연 그가 최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찍으면서 딱 20분 동안 함께 작업한 공로전 우리나라에서 연기가 되는 몇 안 되는 여배우다. 이들과 함께라면 끝내주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다(웃음).

기억에 남는 영화 대사가 있나?

일단 내 영화는 패스. 다른 사람이 좋아해주면 기쁘겠지만 내가 좋아해본 적은 없다. 마릴린 먼로의 〈뜨거운 것이 좋아〉의 마지막 문장이 “세상엔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죠”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90점짜리 영화를 100점짜리 영화로 만들어준다. 나는 보통 50점짜리 영화를 70점으로 업 그레이드하기 위해 대사에 공을 들이는 데 말이다! (이 영화는 마릴린 먼로의 대표작이자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해 볼 수 있는 영화다. 영화를 보고 나면 윤성호 감독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다)

MAXIM 홈페이지에 〈할 수 있는 자가 있는 자가 구하라〉를 소개하는 건 어떤가?

대환영이다. 우리는 무단전제 재배포를 사랑한다.

당신도 트위터를 하나?

물론. 나도 남성잡지 에디터의 삶을 취재할 일이 있으니 필요우레 달라. 그리고 보니 나와 박희본을 함께 찍으려는 이유가 MAXIM 독자스러운 남자가 필요했기 때문은 아닌가

앗, 미안. 대박나라.

CRAZY VS CRAZY

2PM 콘서트 VS 지산 락페스티벌

지난 여름 지산은 여러모로 뜨거웠다

주요 가 사	 Miss A WIN	 해피파 과물 뮤지션
인기 율도	99.9% WIN	60%
주요 시 의 의미	인(경)+애(드름)+ 애(지)+임(켓)=흥?	웃 잃는 게 뭐임?
전 투 력	오빠를 욕하는 순간 그녀는 녹색 과물로 변신할 거다.	합창은 여자보다 2 만하게 보인다. 2 되는 건 자연재해
행 성 상 황	0% 단 내가 욕만20라 면 성공률은 100%! WIN	70% 암컷들이 산수를 칠 지도. WIN
인기 집 중 상 황	스탠딩식이라면 클 립과 비교할 수 없 는 후끈함!	그녀들이 열까지 부 러워 줄 거다. 아 좋 구내 흥가면 WIN
후 유 종	"오빠 사랑해" 하지만 그 오빠가 당신은 아닐 거다.	과도한 사투리와 이 친 슬럼프에 민감한 당신의 몸짓이 WIN
결 과	지산 송! 나의 록 스피릿은 우주를 돌을 스피어!	

연극열전3 여덟 번째 작품 <경남 청년군 길귀편>

남을 갇힌가, 말 갇힌가 그것이 문재
로다!

연제 7월 30일~9월 19일
어디서 동승이센터 소극장
문의 02-766-6007

결혼 3년이 채 안된 신부는 임신한 사실을 알
게 된다. 신부는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것이
종아실 거라고 믿지만, 남편 증상은 대학 진
학을 위해 나태를 권유한다. 그러면서 둘 사
이에 아이를 두고 불화가 생긴다. 우울하고
무감각이 된다. 격리된다. 유괴하면서 날
카를 써서 당신의 공감을 울린다. 당신도 솔
로라면 그렇게 내가 연애도 결혼도 안 한
다 라고 예뻐 유괴하기 좋겠다.

연극열전3 여섯 번째 작품 <너와 함께라면>

영계백숙. 오오오오~!

연제 7월 23일~10월 31일
어디서 대학로 문화공간 이따만
문의 02-766-6007

연극 《너와 함께라면》의 주인공은 73세 캔
아와 28세 아이유이 커뮤다. 캔은 노년인 아
유이의 장래 걱정 방문하면서 결혼 하라는
말을 위해 예쁘게 꾸며지려는 해방을 서
했다. 영희(엘렌 미스터 맥도날드)는 연극
(웃음의 대학) 등을 좋아하는 관객이런
이 연극에 또 한 번 열광할 거다. 연극 세력
이 밀려나고 있는 것과 함께 보라기는 것이 좋
다. 만약 성공이라면 막이 내린 후 혼자 극
장을 나설 때 노닐 씩씩함을 이세인이유이
의 광범한 모습을 감성하는 기쁨으로 뒤
로받을 수 있다.

연극열전3 일곱 번째 뮤지컬 <트라이앵글>

고교 시절 연애의 실기 시험 때 교탁 앞
에서 트라이앵글을 때리던 그 생 생각
나네.

연제 7월 27일~9월 29일
어디서 대학로 문화공간 2이 2관
문의 02-766-6007 / www.theatreplay.co.kr

연극 《트라이앵글》은 남자 2명과 여자 2명
한 장에 실제 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작
가 지창성 도연연과 스토커를 피해 도연연의
장미 치들어온 복귀 경험한다. 그리고 결
정의 스토커 영이(이) 등장한다. 유명한 소
설가(인) 아버지의 그에서 벗어-고자 하
는 소설가 도연, 자신의 노래 실력에 한계를
느끼는 경민, 짜임새와 고인하는 영이(이) 서
로 부딪히고, 싸우고, 헤어져서 한층 더 성
장하는 과정을 신나는 뮤지컬로 풀어냈다.



DJ DOC 7집 (종류) 오빠가 돌아왔다

실질 한국에서 힙합을 흥하게 한들다. 좋은 평등어
리에 디스(한미로 깨다)기러도 했다 차연 주변에
서 저 놓 싸가지 없다고 난리법석이다. 이런 상황
에서 DJ DOC는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오가는 절묘
한 노래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며, 자신들이 속한 힙
합 레이블 부다 시온드를 착실하게 여어 삼렸다. 노
련해진 악동들은 그간의 날카로움을 지우고 허허실
실 지내왔다. 하지만 놓아도, 이들이 빠져도 사지는

사지다. 6년 만에 돌아온 7집 (종류)에서 DJ DOC의 이하는 자신의 이른 과거를 안주거리로 지
인 이름을 철저히 빼어준다. 최초의 장면에 디스 송이라 별명 붙은 '부치지 못한 편지'를 들다보면 5
집 《The Life...Doc Blues》에서 《포조라》를 부른듯 그들의 독특한 목소리가 겹쳐진다. 강창열까지 모
뮈셔 비튼을 이어받은 이하는 DJ DOC다운 음악을 들려준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맛은 없지만 루저
마음에 불 지피기엔 충분한 정도로 감칠맛 나는 멜로디와 가사로 무장했다. 정통 힙합으로 돌아갔
더니 레아신 모델과 노나는 녀석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솔직히 말하는 그들의 음악이 가
슴에 와 닿는 건 당연한 결과다. 다양한 뮤지션이 참여해 음악이 풍성해진 건 장점이지만 음반 전체
의 통일감을 해친 것은 아니다.



보아 6집 (HURRICANE VENUS)

보아가 돌아왔다. 빌라드제의
에이스 김동률, 덴스계의 불무
침 지용-까지 힘을 보태 최근
SM 음반 중 가장 높은 완성
도를 자랑한다. 출중한 가창력
이 겸비된 파워풀 퍼피앤소도 여전하다. 문재? 보아의
이전 초자금이 예전 같지 못하던 거다. 아이돌처럼 무척
가수. 다비라고 부르면 무척같이 떨어진다. 신의
가 기대한 것 기계적으로 잘 조합된 음반이 아니라 그녀
의 색깔이 묻어는 음반이다. 그런 점에서 (HURRICANE
VENUS)는 잘 만들었기에, 팬들의 아쉬움도 더 적절
반의 성공.



시크릿 (MADONNA)

타이를과다다 주조장정 한 단
어를 반복하는데 어색하지 않
다. 심지어 이 단어는 여릿송
에 각인되어 자연스럽게 노래
를 흥얼거리게 되니 이 정도
면 후크송이라도 인정해주지. 타이틀 곡 (MADONNA) 역시
'타이틀 곡 때봐'를 이만큼이나 흥얼거린다. 가수
가 다른 가수의 이름을 노래에서 수십 번 반복하다니 이
곡을 만든 강지(83년경) 컴비의 센스가 박수를 쳐주고
싶다. 여기에 'MADONNA' 라는 대신 다른 단어를 넣어
도 어색하지 않을 익숙한 멜로디가 매력해주니 아무 생
각없이 즐기면 이만한 노래도 없다.



지금까지 당신은 스타1, 2를 비롯해서 인기 있는 게임이라면 장르를 가리지 않고 해설을 도맡았다. 무슨 게임이 가장 재미있었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스타1, 2>. 그리고 보니 모두 블리자드 게임이군요.

해설자 입장에서 볼 때 스타2와 전작의 가장 차이점은 무엇인가? 스타1이 전술적인 면에 무게를 둔다면 스타2는 전략적인 면에 집중하게 된다. 아무래도 스타2는 전작보다 새로운 전략이 나올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스타2>의 중계 파트너 이현주 캐스터, 안준영 해설과는 호흡이 잘 맞는 편인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서 셋 모두 시청자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긴박감 때문에 서로 잡혀 있다. 처음에는 각자 파트를 나눠서도 중계했었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했다. 지금은 각자에게 시간을 배분한 후 서로 이야기를 토사하는 형

식으로 중계를 진행한다. 셋 모두 게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계 형태다.

당신의 해설은 날 것 그대로의 과격함이 매력적이다. <스타2> 중계에서 너무 알뜰해진 것 아닌가!

지금도 충분히 까놓고 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방송 출연이 어렵다(웃음). 하지만 스타2 중계가 1번보다 정적인 건 사실이다. 스타에 10년 동안 익숙해진 시청자의 눈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렵다. 시청자 게시판이나 실시간 채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다던 점도 나 아닐 것이다.

게임 해설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일단 게임을 잘 해야 한다. 출시된 지 3~4년이 지난 게임이라하면 어지간한 전략은 다 나는 상태니 말만 잘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해설자가 게임을 잘하지 못하면 게이머의 전략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하루 4시간은 꾸준히 게

임을 하면서 래더 랭킹(베스트 순위) 10위권 인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꿈 TV의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이하 GSL)는 게임 해설자에게 정말 좋은 기회다.

물론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국한된 기회는 아니다. 스타2에 승부를 걸고픈 모든 이의 기회다. 스타1이 출시됐을 당시 주변 여건 때문에 프로그래머로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은 물론 그간 빛을 보지 못한 프로그래머에게도 놓칠 수 없는 찬스다.

GSL 우승 상금이 자그마치 1억 원이다. 당신도 해설자를 때려치우고 대회에 참가하고픈 마음이 굴뚝같겠다.

물론이다. 매일 아침 리그 운영 방안을 고민할 때마다 참가하고픈 마음이 용솨음친다. 솔직히 첫 대회에 참가하면 적어도 준결승까진 무난하게 진출할 자신이 있다. 지금 GSL 시합 분위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스타2 리그를 취재하러 온 기자까지 우승 상금이 눈이 멀어 대회에 참가할 기세니 나로서는 오죽하겠나(웃음).

스타2는 소수 유닛 컨트롤과 날카로운 전략을 잘 짜는 프로그래머가 총할 것 같다.

스타 출신 프로그래머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게이머간의 재능 차이는 크지 않지만 스타 프로그래머의 훈련량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일반인과 넘사벽 차이가 나는 경기력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게 스타2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보라. 물론 스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도 그만큼의 연습량을 소화할 수 있다면 누구나 총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

MAXIM 독자에게 스타2에 대한 팁을 준다면?

자만에 목매지 마라. 스타2는 전투가 메인인 게임이다. 적절한 병력 구성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중점을 두라. 그러려면 상대 진영에 대한 정찰은 필수다. 본인 지원만으로도 최중 유닛까지 생산이 가능하니 멀티 욕심은 작작 버리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MAXIM과 스타2와의 공통점은?

남자의 필수품.

동감이다.

AMAZING GAME SHOW

스타크래프트2 리그

상금 6억 원 규모의 화려한 게임 대회가 온다!



올해 펼쳐지는 2010년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이하 GSC)는 2011년 본격적으로 펼쳐질 GSC 대회의 출진 선수를 뽑는 전초전이다. 출진 전 선수를 뽑는데 우승 상금 6억 원의 열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행인 거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대회 등수에 따라 획득한 포인트 등 급이 결정된다. 1~3위까지는 '코드 A', 33~49위까지 '코드 A 로 구분'되어 총 상금이 12억에 달하는 2011년 GSC 시즌을 치르게 된다. 내년에 이상이면 누구내국적 나이, 직업 등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다 참여 가능해 나 자신도 G22강의 캐뮼를 능가하는 게임의 뉴타이머라면 과감히 지원하라. 게임 오역에서 역대 연봉을 받는 프로그래머의 드라피터한 변신도 꿈이 아니다. 참여 신청은 꿈 TV 홈페이지 gsg.tvtv.com에서 가능하다.

채정원



프린터서 해설가에서 꿈 TV 정식원으로 자리를 굳혔다.

꿈 TV에서 <스타2> 해설로 활동하던 입담을 자랑하던 채정원은 얼마 전 글로벌 스타크래프트2 리그 운영팀장으로 초대돼 꿈 TV에 입사했다. 자신은 그룹 UN의 최정원이 아니라 '채 정원'이라고 거듭 강조한 그는 이름을 정황하 후기(배틀그로)고 말했다. 채정원 이제 됐다? 만족해? 좋아? 응? 괜찮아? 뭐지?

24 HOURS TO LIVE



노유민

'만두'가 노유민에게 끼친 영향. BY 김민혜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 이은택

어떻게 죽고 싶나?

안락사. 복잡할 거 싫다. 간단하고, 편하고, 쉽게 가고 싶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갈 것 같나?

생애 미련이 많이 남는다. 그래서 그냥 생령이 되어 이승을 배회할 거다. 어영이나 예쁜 여자들이 많은 강남 거리를 활보해야지.

지금도 예쁜 여자들이 많은 거리를 활보할 수 있지 않나?

사비 가는 사람이 많아서 못 돌아다니다. 특히 요즘은 캐릭터 때문에 더 심해졌다. 밥 먹을 때 사인 요청이 돌아서서 '밥 먹고 하겠다'고 정중히 말했더니 바로 뒤 돌아서서 '지가 연예인이면 디아?' 이러더라. 내가 재수가 없다는 이유로 밥에 칠 뺀 사람은 있었다.

꽃미남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겠는가?

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서 하고 싶은 게 없다. 그

시절 형들이 술자리나 여자 만나는 자리에 나를 자주 데리고 다녔다. 거기서 하고 싶은 것 다 했다. 아주 세계 놀이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놀아서 지금은 오히려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더 좋다.

여자랑 하는 게임뿐 아니라 컴퓨터랑 하는 게임도 원 없이 했다고 들었다.

이런도 형이랑 친했을 때, 그 형 속속 근처에서 일 주일 내내 게임만 한 적이 있다. 일주일간 잠도 안 잤다. 그러고 한도 형에서 3일을 내리 잤다. 발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서 한도 형은 내가 죽은 줄 알았더라. 프로그래머 자격증까지 딸다. 난 뭐든지 한번 시작하면 '프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지금은 일 때문에 게임은 잘 안 한다.

과거의 당신처럼 게임에 미친 이들에겐 한마디 한다면?

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 게임 프로 MC를 한다든지, 자격증까지 뚝뚝나 소수사에서 서도 뭐라고 안 하더라. 게임으로 돈을 벌었다졌으니, 게임을 하면서 몰입해야 한다. 일 다 때려치



노유민 인터뷰
보러 가기

우고 한 달 정도 게임에 몰입해아는 정도 실력이 쌓인다. 물론 나는 게임을 하면서 맘도 망가지고 페인이 되긴 했다.

카드 많이 긁는다고 들었다. 죽기 전 카드를 딱 한 번만 긁을 수 있단다?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은 한 달 사용 한도를 50만 원으로 막아놨다. 죽기 전에 한도 풀고 자동차나 비크르 살 거다. '야티'도 해보고, 실컷 즐기다 죽어야지.

술책해서 피 본 적 있나?

방송에서 명훈이 행천명훈의 옛 여자친구 실명을 그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그 이후부터 명훈이 형이 나랑 방송하기 싫어한다. 나랑 같이 방송하면 피 본다고 하더라. 술책해서 피 보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명훈이 형이다.

그럼 '명훈이 형'에 대한 당신의 술책한 모습 한번 보여달라.

형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유독! 차미만 두르면

다 좋다고 할걸? 바람도 많이 피웠다. 형을 만날 때마다 항상 옆에 여자가 있고, 매번 다 다른 사람이다. 몇 명 만났는지 세기 힘들 정도다. 능력도 좋아서 예쁜 여자만 만났다.

반대로 당신이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 바람 피웠는데 안 피웠다고 한 거. 나도 여자를 많이 만났다. 고딩 때 어디까지 걸쳐왔다. 하루에 한 명씩 만났지. 당시는 뽀빠로 연락하던 '좋은' 시절이었다. 뽀빠로는 위치를 속이기 쉬웠거든. 가끔 다른 이름을 잘못 이야기해서 뜨끔했던 적도 있지만 걸리진 않았다.

고등학교 때 짝 놀았다는 소문이 있다. 싸움도 잦았나?

난 시비만 걸고 빠졌다. 왜 말만 하는 애들 있잖나. 난 성훈이(문성훈한테 일러바치기)만 하고, 성훈이는 나대신 주역을 휘둘렀다. 성훈이가 애들 많이 때렸다.

때리고 싶은 사람이 있나?

굳이 때려야 한다면 나를 괴롭혔던 군대 선임들. 나보다 나이도 어렸다. 요즘 군대는 폭력이 없고 대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 말로 갈구는데, 특히 내리갈굼이 심하다. 군대에서는 못 때렸고, 지금은 제재했으니까 때리고 싶다.

군대 생활은 어땠나?

행군과 같은 힘든 훈련을 끝냈을 때 느낀 성취감은 최고였다. 하지만 일방적인 생활이 훨씬 낫지. 군인과 일반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다르다. 군인이 있을 땐 주눅이 많이 들어 있었어. 양동근, 김재원, 재덕이 핵강재덕이랑 전철을 자주 애용했는데 항상 문 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군대에 있을 때 소녀시대를 좋아했다고 들었다. 로망이자 우상이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더 좋다.

여자친구가 좋나? 엄마가 좋나?

둘 다 날 보고 싶어 하면 여자친구를 선택할 것 같아. 둘 다 아파다고 하면 엄마에게 갈 것 같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죽기 전에 여자친구와 엄마, 둘 중에 한 명만 만날 수 있다면?

여자친구. 아. 어머니 죄송.

죽기 전에 여자친구 만나서 뭐할 건가?

못 해본 거 다 해보아지 못해본 체위 못해본. 아무튼 아한 거 다 해보고 싶다.

9월에 나오는 솔로앨범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미디어 템포의 듣기 편한 음악과 신나는 댄스가 담

긴 싱글 음반이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음악은 무엇인가?

남들이 듣기 좋아하는 음악, 유행하는 음악. 난 대중가수다. 뚜렷한 색이 없다. 폭이 유행하면 틈을 하고, 합점이 유행하면 합점을 하는 게 대중가수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나만의 색을 가지겠다는 욕심은 없다.

음악과 예능 둘 중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음악. 본인이 가수니까. 예능은 음악을 위해서 하는 거지. 메인은 아니야.

<뜨거운 형제들> 하차의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

처음으로 욕을 실컷 먹었다. 그렇게 여파가 클 줄 몰랐다. 방송 하나로 안티도 생기고 나도 망가졌다. 프로그램이 나랑 안 맞기도 했고, 더 이상 의미가 나빠지진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소속사와 고인애 앨범에 주력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부수적인 이유로는, 여자친구와 많이 싸웠다. 아무런 '아바타 쇼케팅'이라 해도 여자친구가 보기'에 기분 나쁘지. 나뿐 아니라 다른 남자 있는 출연진도 쇼케팅 때문에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

'만득이 시리즈'는 왜 했나?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항상 '만득이'가 떠다닌다. '만득이 노유민', '노유민 만득이' 캐릭터가 20세기 소년이라, 일부러 열풍 개그를 한 거다. 욕 먹은 각오도 물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욕 먹을 줄 몰랐다. 원래 만득이 시리즈는 하루 개그다. 여자친구 없다는 반응, 그게 웃음의 포인트지. 그런데 어린 시청자들은 만득이 시리즈를 모르니까 더 따증을 냈던 것 같다. 재밌다는 사람도 꽤 있겠다 재밌지 않았나?

하야... 잘 모르겠다. 죽기 전에 한미디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하겠나?

무대 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다.

MAXIM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재미있는 성생활에 대해 많이 알려달라.

노유민에게 만득이란?

음반이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사람.



날 그만 잊어줘...



로티플 스카이

Rottyful Sky



그녀의 뮤직
비디오 보러가기

가요계를 강타한 최강의 키드,
로티플 스카이가 MAX에 강림하다.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한결 MAKE-UP 장우진 STYLING 최재은
COOPERATION Ra Beauty Care





반갑다. 하늘이란 이름으로 '웃기만' 한 노래를 발표한 지 9년 만에 대중 경로로 돌아왔다. 당신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간단한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오랜만이다. 디지털 싱글 음반 〈No Way〉를 발표한 일렉트로닉 장르를 사랑하는 가수 로티를 스카이다. 잘 부탁한다.

로티들이 포커판의 '로열 스트레이트플러시(같은 무늬의 10, J, Q, K, A 카드, 포커에서 가장 강력한 패), 일명 '로티플'을 말하는 건가?

빙! 소속사 사람들이 포커를 좋아한다(웃음). 누가 일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장시간 회의 끝에 만든 이름이다.

오늘 아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

마냥 귀엽다. 특히 노래 잘하는 아이유 같은 아이들을 보면 귀여워 깨물어주고 싶다.

당신이야말로 아무로 나이에를 꿈꾼 원조 아이돌이었다.

그런 멘트는 내가 아니라 당시 홍보를 담당한 분이 임의대로 붙인 거다. 그때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대답하는 형태였다. 인터뷰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지금은 나도 나이를 웬만큼 먹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다(웃음). 그래서 말하지도 않은 내용이 덧붙는 경우는 없다.

연예계에 몸 담았다가 학교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었다.

아렸을 때 정말 내성적이었다. 활동이 끝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적응하기도 어려웠다. 아이들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많이 보냈을 정도다.

또래와 달리 일찍 사회 경험을 해서 그랬을 거다.

소속사가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생활했다. 언행을 잘못하면 소속사에서 아딘맞는 일도 잦았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봐야 해서 피곤했다. 하지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웃음).

본인의 가창력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는 말을 들었다.

실제로 그랬다. 독서를 하면서 글쓰이의 지혜를 배우듯 다양한 아티스트의 음악을 들으며 그들의 노래 솜씨를 배우는 데 주력했다. 가창력은 단순히 고음을 잘 소화하는지 여부를 말하는 건 아니다.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의 변화를 잘 조율할 수 있는지, 노래에 진심을 담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다.

정규 음반은 당신의 자작곡으로만 채울 생각인가?

발표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규 음반은 다양한 분들의 음악으로 채워질 거다. 자작곡으로 음반을 내놓기에는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

의와다. 음악 이야기를 할 땐 겸손이 자나신 것 같다.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음악이 좋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나?

연문들은 집요하리만큼 당신의 과거 시절을 언급한다. 피곤하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누구나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면 신기하듯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류시원 사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때론 부담스럽지 않나?

음악은 물론 가치관도 잘 이해해주는 든든한 지원군이다. 부담스럽게 생각해보는 적은 없다.

일본 진출은 계획하고 있나?

아직은 잘 모르겠다.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열심히 할 생각이다.

기계음을 좋아해서 선택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좋아한다고 들었다.

사실이다. 선택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리도 좋아한다.

록 페스티벌도 좋아하나?

물론이다. 2007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케미컬 브라더스가 내한했을 때 무대의 맨 앞을 정령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 봐 눈 주위를 짝이 화장으로 무장하고 갔다. 모지에서 사진을 찍어갔는데 메인 컷으로 등장해서 당황했다. 하지만 화장이 거의 변장 수준이었기 때문에 알아본 사람은 드물었다.

전 세계 일렉트로닉 장르 대부분을 섭렵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봤다.

오해다. 그걸 다 들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루에도 수천 곡이 일렉트로닉 장르란 이름을 달고 등장한다. '일렉트로닉 장르를 좋아해서 많이 들었다' 정도로 생각해달라.

쉬는 시간에 주로 뭐하고 노나?

난 정말 게임을 사랑한다. 루리웹이라는 사이트에서 고정적으로 활동 중이다. 특히 플스(PS) 게임 광팬이다. 친구들이 액박(XBOX 360)을 사라고 꼬드기지만 난 흔들리지 않았다. 알고 지내는 용산 전자상가 상인분도 여럿이다.

오 마이 갓! 당신은 공돌이의 이상형이다. 게임을 좋아하는 미녀라니!

요즘에는 여자들도 게임을 많이 즐긴다. 내 주변 여자들은 이미 내가 모조리 게임계로 포섭했다. 당신 주변에만 없는 거 아닌가?

어서 이상형을 밝혀라!

와드는 보지 않는다. 생까물만 없으면 된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싫어하다.





하늘이란 이름은 나에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다음에 또 MAXIM과 화보를 찍을 생각 없나?
언제든 환영이다. 핫한 잡지의 대명사 MAXIM 잡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당신하늘이 높은 계절이다.
활동 계획이 궁금하다.

실제로 어머니가 알고 높은 가을 하늘을 본 후 이
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마음만큼은 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가을까진 음반 활동을
계속할 것 같다. 만약 잠시 쉬게 된다면 파리를 다
녀를 생각이다.

당신에게 '하늘'이란?

친구들은 나를 (사)이고 또는 17호(드래곤볼에 등
장하는 인조인간)라고 부르고, 집에서는 손발이 오
그라들지만 애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늘이란 이
름은 나에게 여전히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보니 17호와 싱크로율이 대단하다.

드림을 워낙 좋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17호는 크리링과 결혼해서 많은 지구인에게 희망을
줬다.

나도 크리링을 매우 좋아한다.

어서 빨리 쿡쿡이 없는 대머리가 되어야겠다.

WANTED

로티플 스카이 <No Way>

디지털 싱글 음반



'웃기네'의 하늘이 9년간의 공백을 깨고 로
티플 스카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싱글 음반
을 내놓았다. 그녀가 직접 작사한 타이틀곡
'No Way'는 일렉트로닉 장르 특유의 기계
음과 그녀의 목소리를 잘 버무린 세련된 곡이
다. 사실 그녀는 매드모아젤이라는 인디 그룹
에서 캐스커의 이준원과 함께 활동했을 만큼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일렉트로닉에 정조준
해둔 상태였다. 기묘하게 여전사라면서 봉어
처럼 입맛 땡긋거리는 이들과 달리 매끄러운
라이브는 물론 싱어송라이터의 자질까지 두
루 갖춘 섹시한 기계전사 17호 로티플 스카이!
그녀가 내놓을 정규 음반이 더욱 기다려진다.

BASEBALL

MISSION FAILED

반지 원정대의 무너진 꿈

박찬호가 우승반지를 손에 끼는 게
아직지도 어려운 일이었다.

우승 때 무릎에 한기증이 난

다던 알렉스 로드리게스조차 양
키스에서 우승 반지를 득템했거
늘 우승 위해 혈강으로 이적한 양키스
에서 내쳐졌으니 말이다. 불행 중 다행인 건 피츠버그
파이리츠가 그를 영입해서 메이저리거로서 수명 연
장은 가능해졌다. 선발 출전이 가능하다면 16만 달러
돈 아시아 최다승(23승)을 넘어설 수 있다. 불혹(40세)
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득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공
을 던지는 박찬호를 MAXIM이 응원하겠다.



MAXIM TIM



이달의 스포츠 소식

BASEBALL

GODDESS HUNTER

야구계의 여신 김석류가 야구계의 별명가이 김태균을 사로잡다.

BIG BALL SHOW

치열한 MVP 경쟁

승자는 누구인가?

내가 오프 시즌에 온전히 몸을 만들면 이 정도 성적을
보여준단 건 잘 알겠지? 올 시즌 내 모습은 2006년의
영광을 재현할 기세야. 지금 페이스대로 가면 무수 트
리를 크라운다스. 평균 자책점 탈삼진 1위는 문제없
지. 사실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기록은 O3플레이티
스트로 선발투수가 60경기 3할점 이하를 기록한 건가
어. 물론 O3를 한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지. 승리하려면
점수가 필요하고, 이런 온전히 배타집에 달려 있는
게 아니. 하지만 나처럼 출전할 경기 모두를 9월 14일 기
준 22게임 출전 22게임 O3를 O3로 막아내면 3명
이상만 내면 승리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거 아니겠
어? 이런 투수 또 없다니까. 게다가 이번 시즌을 끝으
면 해외 리그로 진출할지도 모르니까 이쯤에 MVP 한
번 더 주는 게 어때?



이대요



유한진

VS

올 시즌 독하게 마음먹고 배타집을 했는데 당당히 괴
물 녀석도 이런듯이 이틀 공을 던지더라고. 이대로 가다간
2006년의 재현이 될 것 같지는 느낌이 딱 들거든. 그
저서 확실한 체력과 전략을 세웠지. 지난 9월 14일 내
가 광주 구장에서 KIA 타이가즈와 치른 원정경기 2회
에 가운데 팬스를 넘어가는 3점 홈런을 날리는 걸 다
보냈지. 모로겠네. 그 홈런으로 10경기 연속 홈런
을 15일 기준으로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했어. 그
전까지 메이저리그 최고 기록이 대일 황(1979년, 돈
매너리(1979년), 쉐인 그리피우(1993년)가 기록한 8
경기 연속 홈런이었는데 내가 이걸 넘어선 거야. 이
에 올린. 다음은 내가 뒤 자리를 굳히게 공구리를 좀
저쳐야. 어허는 올해는 세계 신기록 세우겠다. 올
런했다 잘 됐으니 내가 꼭 MVP를 받아야겠다.



태균은 석류를
좋아해~!

김석류 아니oser가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형인 건 인정하지만 자바부터 마린스의 김태균
과 비교하면 처지는 게 사실이다. 올 시즌 자바부터
저러니 해도 능력이라 쓰고 돈이라 읽는다는 말이
와 3년 계약을 한 김태균은 시즌 연봉이 약 19억 원
에 달하는 스포츠 재벌이니까 그렇지만 팬심김태
균을 향한 게 아닌 건 잘 알고 있겠지?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라서 이들의 결혼 소식이 발표된 후 수
많은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김태균 사바르다!" 라
는 글이 난무했다. 특히 그녀가 자서전 <아이리브
베이스볼>에서 야구 선수와 사귀지 않을 거라고 한
말을 공개 받은 남성 팬들은 분개당했다. 한때 김
석류 아니oser가 이상형이라고 밝혀 마음이 하는

위로 떠났을 뚝대 자이언츠 강민호 선수의 충격
(?) 역시 만만치 않았을 거다. 결국 남자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능력이라 쓰고 돈이라 읽는다는 말이
란 사실을 김태균 선수님이 몸소 증명해주셨다. 최고
능력인 것만 있으면 어신이든, 미녀든 다 굴복시킬
수 있는 거다. 이런 생애는 너무 늦었고 다음 생애
는 꼭 능력을 갖춘 멋진 남자로 다시 태어나길 기도
해라. 그나마 김석류 아니oser가 일본에 다녀온
즈음에 김태균 선수도 마침 몸이 안 좋아서 라인업
에 빠진 게 우연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정말 김태
균 이 "사바르다!"

SPORTS ES!

MAXIMO 선정한 이달의 스포츠 이슈들, NBA 오프시즌 결산은 따로 빼줬으니 놀라지 말 것! 이번 달엔 야구 소식이 흥하구나! By 김광현 IMAGES 렌카로, 게티/Getty Images)

SOCCER ANTI FOOTBALL

레알! 100만의 팬 양성 경기



우리가 리오넬 메시가 위대한 선수라는 건 지난 월드컵을 통해 익히 경험한 바 있다. FC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 클럽이란 사실도 잘 안다. 그렇지만 지난 8월 4일 서울 상암 구장에서 K리그 울스타와 펼친 친선 경기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 한마디로 '레알(마드리드)! 100만의 팬 양성 경기'로 요약할 수 있겠다. 비록 K리그의 수준이 세계 3대 리그에 비하면 손색이 있을 순 있었지만 적어도 한 리그의 울스타를 상대한다는 베스트 나루 인업을 보여주려는 모양새라도 내는 게 예의다. 게다가 이번 친선 시합을 주최한 스포츠앤스토리라는 업체의 병마 운영과 한국프로연맹의 실질 소가 더해져 굳이 남양주 월드컵 우승 주역인 사비, 이니에스타를 기용하는 게 아깝다라고 굳이 티를 낼 필요는 없었다. 대충과 메시처럼 라인업에서 빼려고 하다 메시가 최소 30분 이상 출전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만(약 3억 원), 최대 40만 유로까지 돈을

들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급하게 투입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라니 그간 수비 위주의 축구를 '안티 풋볼'이라 비난하던 구단과 한국에 온 FC 바르셀로나가 같은 구단인지 의문이 될 정도였다. K리그 팬으로서 이런 분위기를 K리그 울스타가 풀어 주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호출이 전혀 맞지 않은 K리그 울스타는 19분을 뒀 메시에게 2골을 헌납했다. 그날 경기에서 김영광 선수의 신들린 듯한 선방이 없었다면 결과는 더 참혹했을 거다. 앞으로 한국 축구가 급실거려서 외국 유명 클럽을 모셔오지 않기를 바란다. K리그 팬이 울스타전에서 바라는 건 유명 클럽과의 굴욕스러운 시합이 아니라 중부 대 남부 연합팀의 치열한 경기라는 사실을 바로 같은 한국프로연맹이 알아줬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 FC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 이따위로 공을 칠 거면 두 번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마라. 알겠나!

SOCCER

SOCCER CINDERELLA 이게 바로 인생역전!

그것 공놀이가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줄이야!



팬유 유니폼을 입은 포르투갈 출신의 베베는 길거리 노숙자 대표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포르투갈 3부 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타고난 신체 조건과 재능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한 베베는 1부 리그 빅토리아 기아르스의 러브콜을 받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선수를 찾던 영국 스퀴터의 눈에 속 들어왔다. 레알 마드리드를 비롯해 맨유까지 그를 탐내는 빅 클럽은 많았지만 포르투갈 현 축구 대표팀 감독인 카를로스 케이로스스의 조언에 베베는 맨유행을 선택했다. 맨유의 파기 할배는 신인 대니 맥백을 신드래프트로 임대 보냈던 것처럼 베베를 단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카데미 그기 맨유의 '군' 경기에 꾸준히 출전하던 '빅지성의 라이벌' 등장, '빅지성의 워치 홀드론들' 등등 수많은 피라미드에서 벌어질 거다. 지금은 노숙자에서 이천리만 740만 파운드(133억 원)를 받게 된 축구계의 신드래프트 이공이 베베의 사실 정당한 기적이라 충분하다.

GOODBYE

양신의 퇴장

우리나라 최고의 교타자가 이별을 고하다.

2000년 프로야구 울스타 개편이 끝남과 동시에 양신(양준혁이 시즌 후 은퇴를 전격 선언했다.)이 주전 라인업에서 복선 양준혁은 후배를 위해 배양물을 던져주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를 수평 중이었다. 본인 말로 수업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지만 그간 프랜차이즈 선수를 개백다구처럼 버리는 상성의 못지않은 버릇이 도진 거다. 리이범 팀인 K9 와이판스의 김성근 감독조차 박정근 선수를 3년째 울스타전에 출전할 양신을 40명이나 기용하면서 배양했다. 이렇게 우리 나라 프로야구를 이따기 해 배양할 수 있는 소리가 시즌이 끝나기도 전에 은퇴 선언을 하더니 양신은 현역 생활의 욕심을 더 부리다 은퇴를 망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연이러고 부르는 라이온즈(문성) 아니라 대우·경북 시민의 야구 구단 배양을 받으며 경기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거다. '돈성'이란 별명은 선수나 팬에 대한 배양이 없이 우승 타이틀을 얻는 것이라는 이별을 받기 위해 할말이 땀기 때문에 붙은 그런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해가 갈수록 심성 라이온즈의 팬이 갈수록로 이별하는 이유가 있다.

양신의 화려한 성적

이 정도는 되어야 짜릿함은 다스릴 듣는 거다.

통산 타율 0.38	통산 타점 1393점
통산 득점 1299점	통산 안타 238개
통산 홈런 37개	최다 홈런2경기 경기
최다 타수 7,235 타수(신성애) 들어선 (투수)	

NBA 2010년 오프시즌 결산

떠들썩했던 2010 NBA 오프 시즌도 서서히 마무리되어간다. 최대어로 손꼽힌 르브론 제임스가 마이애미 히트행을 선택하면서 벌써부터 히트의 우승을 점치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드웨인 웨이드,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시라는 엄청난 트리오를 구성한 마이애미 히트는 과연 NBA를 지배할 수 있을까.

BY 김성현 WORDS BY 조현얼/할란 우키 편집

IMAGES Getty Images

CHICKEN MAN

결쟁이 르브론

황제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길을 택하다.

스무초 역사상 전례가 없는 'THE DEOSON' 이라는 디오 없는 이적소부터 "웨이드 전수는 스스로 프랜차이즈를 떠나지 않는다"는 바본까지 르브론의 이번 행보를 놓고 말들이 많다. 한창 팔팔한 나이에도 벌써부터 우승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버린 탓이다. NBA의 전설 찰스 바클러는 "리그 MVP를 두 번이나 차지한 전수는 다른 스타들을 끌어오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는 제 발로 걸어갔다"며 그의 선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개인의 선택은 존중해야지만 이번 르브론의 결정은 상당히 실망스럽다. 찰스 바클러, 칼 멀린, 게리 페이튼처럼 십 수 년간 노력하면서 프랜차이즈 팀을 우승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한 게 아니라, 단 7년 만에 우승 가능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전성기에 오른 시장에서 슈퍼스타들과 함께하는 편한 길을 택하기에 더욱 그렇다.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그 누구도 프랜차이즈를 버리고 우승에 무임승차하려 하지 않았다. 그동안 르브론의 이름 앞에 붙었던 'KING', 'CHOSEN ONE' 이란 별명은 이제 날려 보내야 하지 않을까. 안순에 챔피언 반지를 질 만큼 리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명성 '결쟁이' 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것이다.



마이애미 히트, 역대 최강의 '빅 3' 탄생

웨이드, 르브론, 보시 트리오를 결성한 마이애미 히트는 시즌이 시작하기도 전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세 선수 모두 20대 중반의 팔팔한 전성기에 모였기 때문. 드래프트 5순위 이내 세 선수가 리그 데뷔 7년 만에 한 모인 것은 NBA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미국 대표팀 동료로 만난 이후 4년간 치밀한 계획 아래 결국 한 팀에 모인 이들은 다른 팀을 압도하는 전력으로 벌써부터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전망은 밝다. 2006 세계선수권대회와 2008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세 선수는 함께 뛰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 더구나 플레이 스타일도 겹치지 않는다. 셋 모두 이타적인 성향을 자각기에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란 평가 대수다. 다만 2~3년 내에 우승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강박관념이 트러블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점은 걱정이다.

여기에 흔히 '빅 3'를 구축한 팀들에서 나타나는 벤치의 약세도 찾아볼 수 없다. 히트는 '빅 3'의 네임 밸류가 마음껏 활용하며 리그 최고의 3점 슈터 에디 하우스, 3개 포지션을 맡을 수 있는 다재 다능한 백인 슈터 마크스 밀러, 노련미가 돋보이는 빅맨 주완 하워드 등을 데리고 왔다. 상당할 만한 보강인 셈이다.

현재 ESPN에서 NBA 해설을 맡고 있는 제프 벤건트는 "사카고 불스가 1996 시즌에 세웠던 정규 시즌 72승을 깰 것이다. 1972년 레이커스의 33연승도 역시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히트의 전력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2010 영예의 전당에 입성한 스키터 피펜은 "72승? 어림없는 소리다. 아직은 보스턴 셀틱스가 리그 최강"이라며 벤건트의 예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히트가 리그를 압도할 최강 전력을 구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웨이드가 스스로 연봉까지 깎으며 르브론, 보시 두 드래프트 동기를 눈 앞에 히트, 과연 그들이 2010~11 시즌에 어떤 식으로 리그를 지배할 지 기대된다.

마이애미 히트, 역대 최강의 '빅 3' 탄생



LA 레이커스

전년도 챔피언 LA 레이커스도 히트 못잡은 일한 오프 시즌을 보냈다. 센터급 스피드도 30%대 레업 성장 공룡을 보이는 등 노쇠화가 뚜렷한 포인트 가드, 데릭 피셔의 뒤를 받칠 선수로 스티브 블레이크를 영입했다. 아직 5~6년은 거뜰한 선수로 레이커스의 고질적인 약점인 번 포지션을 실제로 전담이다. 또한 밥 맥두뎀을 잡고 쓰러지는 앤드류 비버의 부상 보충으로 여전히 쓸쓸한 블록 능력을 자랑하는 티오 레플리프도 데리고 왔다. 레이커스 팬들이 가장 반길 만한 소식은 옛 반스의 레이커스형 뉴스다. 지난 시즌 올랜도 매직 소속으로 뛰었던 반스는 레이커스와 경기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리아 오닐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주인공. 하지만 코비와 오닐은 "그날 일은 다 잊었다. 레이커스에 입단한 것을 환영한다"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료가 된 론 아테스트는 "반스는 스페리이드를 맞은 사자의 심장을 갖고 있는 선수다. 가디너 터프 하기도 가슴떨어 엄청나게 많다. 아주 흥분된다"는 그다운 말로 반스의 영입을 반겼다.



사카고 불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의 강호 사카고 불스가 돋보인다. 불스는 리그 최고의 파워 포워드로 꼽히는 카를로스 부저를 5년, 8,000만 달러에 영입한 데 이어 정교한 백인 슈터 카일 코버와도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 수비력이 뛰어난 로니 브라운에게도 불스 유니폼을 안겨줬다. 지난 시즌까지 유타 채스에서 뛰던 선수 세 명을 한꺼번에 빼온 셈. 기존의 데릭 로즈, 조이킬 노비, 루울 덩 트리올에 조지 홀진 3인방이 더해질 불스의 새로운 선출에 많은 팬이 기대를 걸고 있다.



보스턴 셀틱스

지난 시즌 준우승팀 보스턴 셀틱스도 해줄 수 없다. 거미줄 수비를 자랑하는 토니 알렌이 멤피스 그리즐리스로 떠났고 라시드 월리스가 은퇴를 선언했지만 폴 피아스, 레이 알렌과 재계약하며 전력 누수를 최소화했다. 여기에 '오늘 브리더스'인 사카고 오닐, 제이미 오닐을 한꺼번에 영입하며 리그 최고의 골밑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10여 년 전 한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한 '천황제 사카고 절대 아니다. 지난 시즌까지 팀 내 주전 센터로 뛰었던 কেন드릭 퍼킨스가 부상에 따른 생활 훈련으로 내년 2월이나 되어야 돌아올 예정)이기에 이번 오프 시즌 움직임은 대단히 탁월했다. 롱카를 받았다. 참고로 셀틱스 주전 5명의 평균 나이는 34세로, 30개 팀 가운데 가장 많다. 이름 되던 이탈리아 세네에 AS의 AC 밀란 못지않은 노년경 팀이라 불리도 무방할 것 같다.

THE ONE

NBA 역사상 최강팀!

NBA의 역사가 어느덧 60년을 훌쩍 넘겼다. 레이커스와 셀틱스는 33년의 우승을 합치했고 불스, 샌인토니오 스퍼스도 포함 10년의 우승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NBA 역대 최강팀은 누구일까?

1위 1996-96시즌의 사카고 불스

NBA 정규 시즌 역대 최다인 72승을 기록하며 기존 기록을 3승이나 경신했다. 82경기 동안 불스는 평균 105.2점을 넣고 92.9점을 내었다. 득·실점 차이가 무려 11.9점. 1998년 2월 2일, LA 레이커스 홈경기서 99 대 84로 승리하면서 4승 3패를 기록(03:26)을 기록하는 등 시즌 내내 상대 팀들을 압도했다. "숫자가 증명해주지 않는가? 1996-96 시즌 불스가 최강 팀이다." 당시 불스 왕조의 주역이었던 피펜의 말이다.

2위 1995-96시즌의 보스턴 셀틱스

래리 버드, 로버트 패리시, 케빈 맥하일리가 이끈 셀틱스는 홈에서 무려 40승 1패를 기록하는 등 정규 시즌 도합 67승 15패, 플레이오프에서 15승 3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손꼽힌 우승을 차지했다.

3위 1986-87시즌의 LA 레이커스

매직 존슨과 앙투안-다비, 바이런 스킳를 앞세워 정규 시즌에서 65승을 쌓아올렸다. 이후 플레이오프에서는 단 세 번만 패하며 아주 손쉽게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플레이오프가 이토록 쉬운 적이 없다"는 압둘-자비르의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그 외

1971-72시즌의 레이커스 NBA 최다인 33연승을 기록
1982-83시즌의 필라델피아 76ers 플레이오프 성
적 우승 때

1970-71시즌의 밀워키 벅스 젊은 카림 압둘-자비르의 무자비한 스킵이 흑운의 존재



가장 원초적인 스포츠 격투기를 말하다

당신이 격투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신 역시 살아만 링 위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한 사람의 격투기 때문이다. BY 김남훈 WORDS BY 김남훈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투쟁하는 인간처럼 멋진 생명체도 없다. 살고 있는 환경 스스로 피폐하여 다른 동물은 물론 같은 인간마저 사소한 이익을 위해서 살육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달한다. 대규모의 무력 충돌이란 어느 한쪽이 피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전쟁에 임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인간의 역사는 곧 전쟁의 역사다.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인간을 최종적으로 제압하는 수단인 바로 격투기다. 어찌 보면 폭력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공격적 지향성은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의미에서 이체된다.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의 민족, 아니면 그런 건 집어쳐둔다고 하더라도 내 가족, 내 목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총알이 떨어지고 칼이 부러진 상황에서 오직 믿을 것은 자신의 팔과 다리뿐. 축구, 야구 같은 구기 종목이나 육상 종목들이 절대자의 체이나 귀족의 오락거리에서 시작된 것과는 달리 격투기는 철저하게 생존을 그 근원으로 하고 있다. 격투기에 스포츠로서 선수 인간을 위한 최대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규정을 넣는 것이 바로 격투 스포츠다. 격투 스포츠의 승자는 모든 것을 얻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팬들의 관심은 승자에게 쏠린다. 관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자신은 승자에게 축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링 안의 패자가 자신이 아니라라는 걸 안다고도 있을지도 모른다.

격투기의 매력 하나 단점을 뛰어넘는 노력 격투기의 승패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기조점명은 바로 하드웨어다. 중량을 맞춘다 하더라도 키 크고 팔 긴 선수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리치가 길면 안전거리에서 상대의 안면을 두들길 수 있다. 자신은 상대를 공격하고 적은 자신을 공격할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그래서 격투기는 불공평하다. 그런데 이게 또 매력이다. 팔이 짧은 선수는 철저히 싸워야 한다. 적의 주먹으로 얼굴이 난장판이 된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계속 두들겨 맞을 뿐이다. 다리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면서 스텝을 경쾌하게 밟으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며 안으로 피고돌아야 한다. 어찌피 안전거리란 없다. 때리면서 맞거나, 맞으면서 때리거나. 두들겨 맞는 것은 필수 옵션이고 주먹을 날리는 것은 흥분 조건이다. 그런데 이 기계가 승패를 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리 봐도 불공평하고 때론 일방적일 것 같은 경기였는데 완전히 열세였던 도전자가 챔피언을 압도하는 것이다. 앞서 격투기는 격차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했다. 달리보면 현실세계 상리상생을 가로, 세로 7m 링 안에서 재현하는 일종의 디오라이다. 돈 없고 핵 없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가진 자에게 복수를 하는 것은 현실에서 정말 보기 드문 일이다. 격투기에선 이것이 가능하다.

격투기의 매력 둘: 파이터들의 열정

링에 오르는 자들은 정해져 있다. 링 위의 박진감 넘치는 삶에 정신이 혼미해졌거나 링 밖이 무서워 그



김남훈

UFC 해설자, WMA 프로레슬러 (주) OFK 대표이사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격투기와 프로레슬링에 대한 확고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그가 왔다.

안으로 도망간 사람이다. 유독 격투기 챔피언 중에는 어린 시절 학악하고 어린 심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많다. 2m의 거구이면서 UFC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팀 서버는 부모님과 떨어져 할머니와 살면서 유독 같은 반 아이들의 괴롭힘을 많이 당했다. 사울함에 갇힌 적도 있다. 웰터급 챔피언인 조르주 생미에르 또한 학교에서 돌아올 때 한쪽 발은 맨발인 적이 많았다. 그들은 링 밖이 무서웠다. 링 안에서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링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취를 이루었다.

얼마 전 권투 선수 배기석 선수가 시합 후 사망했다.

그는 앞서 말한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현실 세계에서 청년 가장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그리고 최근의 4연패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프로선수 생활을 그만두려고 했다. 링 안과 밖. 그 어느 쪽을 가지지 않고 정말 열성 싸웠다. 그의 청춘을 보라. 그의 청춘은 현실과 열정을 모두 갖았다. 현실과 열정이 만들어낸 멋진 건 대결코나나.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삶의 기운을 얻는다. 배기석 선수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났지만 자신의 삶을 더 한 층도 낭비하지 않았던 그를 보면서,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충실한 삶을 살았던 여러 파이터를 보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재검점한다. 그래서 우리 격투기를 본다.

그가 추천하는 UFC 명경기



브록 레스너 vs 세인 카인

종합격투기 역사상 최강의 괴물 브록 레스너.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최후의 마수 세인 카인. 2008년 7월 6일 UFC 강기장에서 펼쳐진 이 세상은 기술과 작전(이) 지배의 해빙점에서 바로 '힘과 야성'이 발목을 튼 경기의 전환점을 보여준 명승부. 미국에서 회당 6만 원 넘는 유료 시청권(이)에서 140만 원이나 나갔는지 말할 수 없는 경기다.

FILL YOUR INNER EMPTINESS WITH MATERIAL GOODS

STUFF



S10

아이패드를 대신할 멀티 태블릿 PC가 등장했다. BY 김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연제까지 아이패드 터량과 늘어놓을 건개 전자제품은 모루지기 자신이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던가. 이제는 아이패드를 대신할 제품에 눈을 돌릴 때가 왔다. 그렇다고 아이패드 사이즈의 하이엔드 노트북을 지르거나 부당스런 운 가격 때문에 중외 걱정부터 입신다. 이쯤 면 훌륭한 태블릿 노트북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번에 출시된 Viliv S10은 윈도7 운영체제를 탑재했고, 화면이 10"로 회전하는 멀티 터치 터치스크린이 동시에 여러 개의 터치 포인트를 인식하는 기술) 태블릿 노트북이다. 일단 멀티 터치 반응 속도는 아이패드와 비교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와이파이는 물론 외장 메모인 외이브로도 탑재해서 인터넷 접속은 오히려 아이패드보다 한 수 위다. 여기에 기존 넷북(10.4 X 6.00 해상도)보다 환경 넘어진 화면(9.66 X 7.68 해상도), 1kg의 가벼운 무게, 한 번 충전하면 10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한 번갈아서 배터리를 제품의 매력에 더한다. 아이패드 출시 전까지의 간극을 메울 만한 제품을 찾고 있었다면 S10이 안성맞춤일 가다. 문의 www.myviliv.com 1588-0097 가격 79만9천 원(기본 사양)



MUST HAVE ITEMS

이맘때면 당신에게 고독이란 몹쓸 친구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너무 걱정하진 마라. 우리에게겐 메달 지름 제품 이 있고, 지르는 순간만큼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다. MAXM이 당신을 대신해서 9월의 지 름 리스트를 작성했다.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정은
HAIR 이도우 MAKE-UP 고영은 MODEL 이하나

ASUS / U35JC

당신이 고독한 가을 남자 콘셉트로 커피 전문점에서 죽치고 있으려면 노트북은 필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 노트북이 나 지를 손 있는 법이다. 이럴 때일수록 제품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센스가 필요하다. 외부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길고, 포 토산을 비롯해 무거운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한다면 아수스에서 내놓은 U35JC를 장바구니에 담아두자. 엔비디아의 울티 머스(트랜스포머)가 아니라! 기술을 적용해서 복잡한 작업일 땐 노트북에 탑재된 그래픽 카드를, 단순 작업일 땐 메인보 드에 내장된 그래픽카드를 자동 선택하기 때문에 전원 관리가 효율적인 제품이다. 97%에 달한 부스터 기능을 지원하는 6 CPU를 채택해 멀티태스킹에도 강한 연조를 보여준다. 우리나라 대기업 제품에 비해 AS는 다소 아쉽지만 가격 대비 성능 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지름을 아꼈다면 커피 전문점에서 시크하게 노트북으로 뒷장갑을 하는 일만 남았다.

문의 kr.asus.com 1666-6688 가격 119만 9천 원



**ASUS
ENGTX460 DCU TOP 768MB**

외롭다고? 지금 당장 (스타크래프트2)에 접속하라. 당신 어찌 지금 조용이면 싱글 캠페인은 모두 끝냈을 테 남은 건 배틀넷에서 다른 유저들과 피동 싸는 전투를 벌이는 일뿐이다. 하지만 데스크톱에 장착된 어리바리한 그래픽 카드가 발목을 붙잡을지도 모른다. 물론 옵션을 저화질로 조정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남자라면 쾌적한 게임 환경을 위해 과감히 그래픽 카드를 교체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다. ASUS의 ENGTX460 DCU TOP 768MB는 원도 7과 칩셋공함인 다이렉트X10을 지원하는 지포스 GTX460 GPU를 채택해 이전 제품보다 전력 효율을 높였다. 특히 클러에 신경을 많이 쓴 덕에 원래 GPU 성능(675mhz)보다 상황 조정된 오버클럭(700mhz)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돌아간다.전력 소모도 큰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당신의 멋진 그래픽 카드를 티출하고 이놈을 영입하면 (스타2) 생활이 흥할 거라 소리다. 물론 그전에 당신 컴퓨터의 CPU 성능과 메모리 용량이 낙력한지 체크부터 해야겠지?

문의 kr.asus.com 1566-6888

가격 26만 원대

(좌)

핑크 포인트의 지브라 패턴 돔,
핑크&블랙 컬러 슈즈 모두 Gaia
화이트 소크 에디터 소장
화이트&블랙 컬러 귀걸이, 핑크 컬러 팔찌
모두 JAMIE&BELL

(우)

스카이 블루 컬러의 점프 슈트 Gaia
스카이 블루 컬러 슈즈 DONNICHETI
화이트&블랙 컬러 귀걸이,
블루, 화이트 컬러 팔찌 모두 JAMIE&BELL

화이트 & 블랙 스트라이프 패턴 뎀스 CLUB MONACO
신바람의 신들 Galla
화이트와 블랙 컬러 귀걸이 JAMIE&BELL
화이트 & 블랙 체크 패턴 시계 GLAM ROCK
by HOROLOGIUM

FUJIFILM
INSTAX MINI 75 MIKEY MOUSE

우리가 흔히 즉석카메라, 폴리로이드 카메라라고 부르는 녀석의 장점은 원아디로 (진원율) 커고, (모드별) 바꾸고, (사진을) 찍고, (사진을) 뽑고, ~'~' 로 요약할 수 있다. 찍은 사진을 현장에서 관중으로 바로 확인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카메라로는 근접 거리 촬영이 불가능했다. 최근 후지필름이 카메라는 그대로 두고 인스탁스 미니 전용 접사 렌즈를 장착해 40~60cm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피사체도 선명하게 찍을 방법을 찾아냈다. 기가 막힌 녀석들 여기에 카메라가 달린 제품만 보면 미친 듯이 셀카를 찍어대는 사람을 위해 접사 렌즈 뒷면에 작은 거울도 장착했다. 어떤가? 당신 여자친구가 촬영할 만한 아이라이프 없나? 덧붙여 미키 마우스가 왜 이렇게 그려진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당신이 질러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재장!

문의 www.fujifilm.co.kr 02-3281-7700

가격 ### 원



에니컬 프린트 모노카니 수영복 TANKUS
스트랩이 많은 벨리 밴드 DONNICHETI
가조스트랩 위에 핏이 딱한 팔찌와
깊게 들어진 블랙 웨딩이 에디터 소장
매달 소재 반금 JAMIE&BELL



FUJIFILM
INSTAX MINI 75 MIKEY MOUSE

방앤올웬슨이 만들면 서브우퍼도 때깔이 다르다. 풀림 모양으로 디자인된 베오랩®은 장식용으로 물론 그렇게 모서투기엔 가격이 크레이지 모드지만 소징하고픈 생각이 들 정도다. 성능 역시 디자인 못지않게 쟁쟁하다. 베오랩®에 서 용된 손바닥만 한 크기의 아이스 파워 영프는 수백 와트(Watt) 이상의 미친 출력을 자랑한다. 이놈 하나면 당신이 시간 듣지 못했던 드림의 타격을 음의 충격을 썩는 베이스 소리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 자음을 담당하는 서브우퍼라고 구석에 처박을 필요도 없다. 벽에 한 손이 튕림처럼 가자면히 켤 수 있으니 인터리어 소품으로도 최고다. 문제는 역시 가격이다. 서브우퍼를 구매하기 위해 지갑에서 200만 원 이상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당신이 베오랩®이 들려주는 절진 자음을 듣는다면 지름신을 맞고 싶고 싶은 마음이 산대미처럼 커질 거다. 눈과 귀의 즐거움을 위해 베오랩®을 지르고 마이박스 동정의 세계로 광속 질주 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짜릿 거 한번 켤 리. 리. 리.

문의 www.bang-olusen.com 02-518-1380
가격 290만 원

하이틴과 블랙 컬러 귀걸이 JAMIE&BELL
머플러가 달린 가죽 바스트 Gala
핑이 라틴 톱피 에디터 소장
블랙 스포츠 VOV
블랙 가죽 슈즈 모텔 소장

GAME PARK HOLDINGS
CAANOO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을 즐기던 년엔도 DS
나 PSP가 좋겠지만 고전 콘솔 게임은 즐기고
싶을 땐 에뮬레이터 전용 게임기가 제격이다.
'멤버드'로 유명했기에 저조시에선 도움이
됐을지 미지수지만 게임피크 홀딩스가 기존의
OPZ를 대신할 차기작 카누를 내놓았다. 카누
는 PSP처럼 아날로그 스틱을 추가해 게임 조
작이 한결 변하고, 신동 모터를 탑재해서 빠릿
한 손맛을 느끼게 해준다. 아예 전용 게임기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자체 콘텐츠를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해서 리드 액션 (리드오스)와 피
츨 게임 (프로피츠)를 비롯해 연내에 30종 가
량의 게임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펙 자체도 년
엔도 DS보단 한 수 위기 때문에 부가 기능으
로 저음역대 동음성 및 음악 기능도 즐기기에
나쁘지 않다.

문의 www.gp2xwiz.co.kr 080-200-0428
가격 16만 9천 원





LEOPOLO REALFORCE 87

당신이 리얼포스 87을 구매한다면 주변의 반응은 "마치곤"이라는 단어로 정형될 것이다. 30만 원이 넘는 키보드를 사용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하지만 하루 종일 키보드 앞에 붙어 자라는 키보드 워리어나 PC방 패인들은 일종의 키보드만이 자신의 손과 어깨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가격이 절반 원이라는 비움을 자백하고 리얼포스 87을 구매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장전 용량 무접점 방식 키에 일정 수준 이상 압력을 가하면 자동으로 인지하는 덕분에 장시간 악몽을 꾸는 손에 부담이 가지 않고, 키보드 각 열의 키와의 리드가 떨어져 손가락이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게임 컨트롤 미스도 줄어든다. 키보드 손쉽게 탈착이 가능해서 자신에게 최적화된 스타일로 언제든지 키를 재배치할 수 있다. 고급 어댑터를 사용한 주철 받침 이어폰으로 다 시 들어갈 수 있다. 리얼포스 87의 훌륭한 키감을 잊고 보면 나중에 새겨 넣는 값싼 키보드 쓰는 두 번 더는 사지 않을 것이다.

문의 www.leopold.com 050-2020-1030
가격 36만 원

COREX

COREX TANGE

픽시를 본격적으로 타고 싶다면 이 정도 부품으로 꾸러보는 건 어떨까? 가격대는 만만치 않지만 이렇게 당신만의 픽시를 완성한다면 현존하는 부품 교체 없이 즐거운 라이딩에만 몰두할 수 있을 거다. 픽시 자전거 전문점 3.57의 라이더 권유권이 추천했다.

문의 www.fixie.co.kr 02-332-0357
가격 170~180만 원대

FRAME	COREX Tange 55 SIZE
HEAD	Hatta Swan Super Deluxe
CRANK	Suging 75 Sg144 Gold
PEDAL	MKS Custom Nuevo
TOE CLIP	MKS Steel Single
CLIP BAND	Kashimax SINGLE STRAP
CHAIN RING	Dura Ace 48T
SEAT POST	Nitto

SADDLE	Kashimax Saddle
HEAD POST	Nitto Steel 105
HANDLE	Nitto Steel 125, 380
GRIP	Soyong Long Grip
HUB	Promax 36H
RIM	FRONT: Mavic, REAR: Mavic
CHAIN	Izumii Gold
COG	Dura Ace 16T

FIXIE!

대세는 픽시다!

BY 김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조희현 HAIR 이도우
MAKE-UP 구영은 MODEL 이혜리
COOPERATIONS
3.57 VOV, Calvin Klein(02-3446-7725)
adidas Originals(02-3447-3446)
Gala(02-3447-1098)
JAMIEG BELL(070-8247-7834)
HEAD(02-2138-7769)

라이프 스타일 VOV
복무 언더웨어 Calvin Klein
복무 스타일 숏츠 Gala
패션 액세서리 JAMIEG BELL
공용차 adidas Originals
출시 예정의 발모 모피 반가형 스타일 레퍼 캐주얼 슈트 JAMIEG BELL

픽시 자전거란?

뒀인 줄은 알고 타야 할 것 아닌가. 픽시는 픽스트 기어(Fixed Gear)의 중심로 고장된 상륜 기어를 가진 자전거란 의미다. 픽시의 상륜 기어는 바퀴를 바퀴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할 수 있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엔 바퀴가 멈춰 버린다. 그리고 상륜 기어 자체는 프리 휠 메달을 굴리지 않아도 자전거가 돌기 시작하는 형태임에 비해 픽시는 메달을 굴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브레이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초심자가 타는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다는 게 좋으며 프레임에 브레이크 구멍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유의사항

픽시를 단순히 외관이 예뻐다는 이유로 구매하면 곤란하다. 브레이크가 부재, 상륜 기어오르막걸에서 기어바퀴동 마찰 없는 게 설치하고 바퀴를 밟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고장만 해도 픽시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픽시를 타기 전에 잘 알아두어야 할 라이딩 팁은 자전거보다 코인발 필요가 있다. 픽시가 일반 자전거보다 하체 운동 효과는 더 뛰어나지만 몸 말뼂지가 되고 큰 날자라면 픽시에 도전하는 게 좋다. 예쁜 자전거에 꽂히는 여자는 의식론이

픽시 자전거는 완제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다. 각각의 부품을 조립해 하나의 완전한 자전거 즉 이 세상에 1대뿐인 자신만의 자전거를 만드는 과정도 픽시가 가진 매력이다. MAXIM에서 픽시 전문 매장 3.57이 추천하는 2대의 완성된 픽시를 소개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부품을 체크해 멋진 픽시를 완성해보도록!

픽시의 기본 스킵

이 스킵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픽시를 타는 즐거움은 배로 늘어난다.

스키딩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옹의 중심이동만으로 픽시를 멈추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뉴욕이나 동경처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환경이 아닌, 사심을 잊지 않자 당신이 공공도로에서 픽시를 탈 일이 많다면 스킵보다는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한다. 스킵을 할수록 발 밑에 깔린 당신의 픽시는 저음에 도착해서야 멈추게 될 거다.

스탠딩

픽시는 페달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춘다. 스탠딩은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

에서 픽시가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테크닉을 말한다. 한줄을 45° 정도 기울여주면 보다 효과적이다.

페이키

반디디로 역주행 상근 기어를 가진 픽시라서 가능한 테크닉이다. 주로 스탠딩 상태에서 페이키로 연결되는데, 첫 페달링을 강하게 해주면 균형 잡기가 한결 수월하다. 이때 핸들을 밀어내는데는 논김으로 버텨주는 게 포인트. 마음이 급해서 페달이 넘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풀리던 실 패할 확률 100%다.

결국 돈이 문제인가?

요즘엔 픽시 완제품을 저렴하게 공동 구매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인 픽시 자전거 커뮤니티 두 곳을 소개한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픽시를 구하고 싶다면 이곳을 참고할 것

픽시헤어

cbsn.kr/forum/index

이곳에서 주로 공동 구매하는 오프로드 우 픽시는 40만 원대다. 크롭과 올리브린 등의 합금으로 이뤄진 크로몰리 프레임을 사용하는 데 기존의 하이테크 프레임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탄성력과 강성이 좋아서 튼튼하다.

픽시공화국

cbsnnews.com/republic

이곳에선 50만 원대 일명 '픽시'의 공동 구매를 진행한다. 픽시는 단단한 스텝과 합성리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문용으로 적절하다.

ANCHOR

ANCHOR CARBON S SIZE

이젠 픽시가 일반 자전거보다 더 편한 달신이라면 슬슬 비싼 부품으로 갈아타고 싶은 마음이 싹튼 거다. 선수용 못지않은 픽시를 만들고 싶다면 이런 조합으로 구성해보는 건 어떨까? 주머니는 텅텅 비게 될지라도 완성된 픽시는 당신의 수족 같은 편안함을 선물할 거다. 마친가치로 픽시 자전거 전문점 3.5%의 라이더 전용권이 추천됐다.

문의 www.fike.co.kr 02-332-0357
가격 300만 원대

FRAME	ANCHOR Carbon S Stee	SADDLE	Fizk Servelo Team
HEAD	Halia Swan Super Deluxe	HEADPOST	ITM
CRANK	Sugino SG144 Gold	HANDLE	Profile Airwing 420
PEDAL	MKS SyVan Track	GRIP	Shiva Cobra
TOE CLIP	MKS Steel Single	HUB/FRONT	Campagnolo REAR: Dura
CLIP BAND	N/S Toshi	RIM/FRONT	Zipp, REAR: Mavic
CHAIN RING	Sulfin 75 S-Cubic	CHAIN	Izumi V
SEAT POST	3T Seat Post	COG	Euro Asia 18T

MAXIM DRIVING

MAXIM 비교 시승기 #3

국산차도 좋지만 아직 수입차가 주는 포스는 그녀를 당신의 참대로 이끄는 데 30% 정도의 파워업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 웬만한 국산차보다 저렴한 2690만 원짜리 수입차 두 대를 갖다놓았다.

BY 유승민 PHOTOGRAPH BY ARC STUDIO ASSISTANT 김희성

CIVIC

2690만원



CALIBER

2690만원



2010 Honda Civic

사벽이 땀가? 그렇다면 적어도 당신 동행엔 2,660만 원이 있다. 당신은 분명 합리적이고 시크하며 자아가 강한 도시남일 거다. 혼자다 중에 마이카로 사벽을 고려하는 사람 대부분은 높은 연비에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구매자다. 그만큼 현재 사벽은 '연비가 높은 차' 라는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 안 그래도 좋은 연비에다가, 아마도 혼다가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사벽의 이름으로 출시했기 때문일 거다. MAXIM도 처음엔 그렇게만 생각했다. 그러나 도로 위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그런 이미지는 어지럽어 깨지고 말았다.

DRIVING

'연비가 좋은 차' 사벽 그것도 2,000cc가 아닌 1,800cc의 가속력은 놀라울 수준이다. 복잡한 도심에서 차선을 바꾸고, 추월하고, 끼어들기용 감행해 보면 사벽이 발휘하는 놀라운 순간 가속력은 놀 수 있다. 분명 사벽의 주행 성능은 연비의 유명세에 가려 저평가받고 있다. 이거야 원 얼굴이 너무 예쁜 나머지 뻔뻔한 몸매가 빛이 반짝 여자라고 나 할까. 연비와 출력에 모두 훌륭한 차. 말이 쉽지 동전의 양면처럼 갖추기 어려운 이 두 가지 덕목을 훌륭하게 소화하게 만드는 건 확실히 바로 직렬 4기통 SOHC I-VETEC 엔진 덕이다. 단순히 힘이 낮아 연비가 높은 경차의 엔진. 효율력을 살리기 위해 기어를 벌벌떨며 마서대는 슈퍼카의 엔진. 이들의 장점을 모두 살린다는 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SOHC I-VETEC 엔진은 속도에 따라 고풍력 패턴과 연료 절약 패턴으로 스스로 전환하는 영리한 엔진이다. 한타라도 쓸 때 쓰고, 아낄 땐 아끼는 엔진이란 소리다. 사벽 2.0에 쓰이는 DOHC 엔진이 더 고성능인 건 사실이지만 1.8 SOHC I-VETEC 엔진이 더 높은 연비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2.0보다 더 뛰어난 엔진이 아니기 싶다. 아마 이 녀석은 돌아본다면 2.0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출력과 가속력이 만족스러울 테니까.



코너링 또한 명품이다. 서울 강변북로는 외외로 꽤 급한 커브가 많은 도로다. 사벽에 이 도로를 80km/h 크루즈 기능으로 달렸는데도 코너에서 몸 흔들림 없이 무척 부드러운 코너링을 선사했다.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닛부터 전면 유리로 이어지는 곡선은 거의 직선으로 이어진다 싶을 만큼 유선형 구조에 가깝다.

DESIGN



사벽의 와이퍼는 매우 특이하다. 시승 기간 내내 배가 내려서 와이퍼를 항상 작동해야 했다. 보통 두 개의 와이퍼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 사벽의 와이퍼는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치 사람이 두 손으로 바깥 방향으로 손을 내딛듯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두 개의 와이퍼가 충돌할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부딪치지 않고 적절한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2010년형의 디자인에서 가장 고무적인 발전은 바로 휠 디자인의 변화다. 단조



틀던 사벽의 휠은

2010년형에서 웬만

한 튜닝할 부럽지 않은 멋진 모습으로 부활했다.

실내디자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른바 '멀티플렉스 미터'라고 이름붙인 사벽만의 계기판이다. 운전 중에 가장 많이 확인해야 하는 속도계를 디지털 액정 표기 방식으로 바꾸고 앞 유리 깊숙한 곳으로 밀어넣었다. 다른 차에서는 주행 중에 속도를 확인하려면 시야를 아래쪽으로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 하는 데 비해 사벽에서는 숫자로 액정에 표기된 현재 속도가 항상 시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환 주위를 기울일 필요 없이 거의 없다. 디자인적으로도 훌륭하다. 가로 구도가 아닌 세로 구도로 뻗어 있는 멀티플렉스 미터는 마치 슈퍼카의 클러스터를 옮겨놓은 듯하다.



CRUISE

고속도로에서는 사벽의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크루즈 컨트롤, 즉 정속 주행 기능이 일정한 속도 이상으로 정지 없이 한참을 달려야 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도 마치 밟고 있는 것처럼 일정 속도로 스스로 달리는 기능이다. 요즘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비교적 많이 보편화되어서 그다지 신기한 건 없지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처음 써본다면 오른쪽에 주어지는 자유가 얼마나 쓸쓸한지 알겠다. 발가락이 가려울 때면 느긋하게 발을 위로 들어올려 쿡으면서, 가속과 감속은 가속페달이 아닌 액셀/디젤 버튼을 손으로 눌러 조절할 수 있다. 핸들은 체형에 따라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텔레스코픽 핸들이니, 핸들을 당신에게 최적화해놓았던 이제 양반 다리를 하고 앉자 마치 게임하듯이 손으로 스티어링 휠만 조작해보자.

사벽의 크루즈 컨트롤은 40km/h 이상의 속도에서 가능한데, 스티어링휠에 리모콘 버튼으로 붙어 있다고 시세에서도 아무 때나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엔 곤란하다. 수시로 속도를 올리거나 멈춰야 하는 도심에서는 시도가 나기 싫었다. MAXIM은 시간당 고속도로 나갈 수가 없어 강변북로에서 사벽에 시험받았지만 서울은 크루즈 기능을 쓸 곳이 한 군데도 없다.



트렁크는 예상 외로 꽤나 넓어서 깜짝 놀랐다. 박서리 캐시가 들고 다니던 캐디랑 골프 가방을 여유 있게 4개 정도 넣을 수 있겠다니 말이다! 후방 짐을 감지 센서가 있는 건 좀 싫다. MAXIM 애드레가 사용하기 전에 어딘가의 다른 자가 한발 앞서 시승했는데, 후방 감지 센서가 없음을 시유리도 하듯 영영임을 멋지게 굿했다. 성질마라리군.

주요 제원

엔진	사벽 4기통 SOHC I-VETEC
배기량	1,799cc
변속기	전자제어식 자동 5단
연료	가솔린
구동방식	전륜구동
최대출력	1400rpm
최대토크	17.7kg·m/4,300rpm
공인연비	13.3km/l(12등급)
공차중량	1,255kg

2011 AVANTE

2010년 상반기의 화두가 기아 K7, K5였다면 하반기 태풍의 핵은 현대 아반떼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BY 유승민



가격	1,399만원~	1,366만원~	1,490만원~	1,430만원~
배기량	1,598cc	1,591cc	1,598cc	1,591cc
연비	13.0km/ℓ	15.2km/ℓ	15.0km/ℓ	16.5km/ℓ
최대출력	114마력	124마력	112마력	140마력
최대토크	15.5kg m	15.9kg m	15.9kg m	17.0kg m

역시 우린 샘 불이는 걸 좋아한다.

'이번때의 숫자들로 인해 세상의 중형차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 차를 이번때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현대차가 이번때를 출시하면서 전면에 내걸고 있는 카피다. 지난 8월 2일자로 현대자동차는 '중형 Compact' 라는 신개념을 들고 이번때 2011년형을 공식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지금도 인터넷상에서는 2011 이번때를 두고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분명 그동안 경쟁사나 현대의 일부도 있을 것이고, 날카로운 준중형기도 있을 것이며, 얼마 전 다른 차를 샀다가 이번때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진 구매자도 있을 거다. 어쨌거나 이 땅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모든 이에게 화두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대자동차는 절반의 성공을 안고가는 셈이다. 특히나 이번 2011 이번때는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인 홍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젊은 감각으로 게릴라성 홍보 이벤트로 짙짙한 재미를 본 기아 마티즈 크리에이티브와 MINUS 분방기로 한 모양이다. 이미 MAXIM이 진작에 사용하고 있던 QR코드 홍보까지 도입한 걸 보

면 더더욱 그렇다.

이 녀석, 덩치만 좀 키우면 2,000만 원 중반대 가격 이하도 될 스펙이지만 사기캐릭이 되어 준중형 시장을 쓸겠다는 각오로 1,480만 원으로 아반때가 되어 나타났다. 얼핏 보면 해바람이 고전하느니 경량급 리그로 내려가서 다 작살내겠다는 심산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준중형 자동차 시장은 해바람도 웬만큼 명함을 내밀기 힘든 죽음의 리그다. 이미 각 자동차 회사의 특급 에이전트들이 준중형 시장에서 피튀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다. GM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르노삼성사의 SM3, 기아의 포르테, 현대의 i30, 이 이쯤만 들어도 쟁쟁한 히트작들이 지금 대한민국 준중형 시장의 F4다. 경쟁 수입 차종과 비교했을 때 거의 반값으로 후려쳐 버리는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다. 전혀 밀리지 않는 성능의 우리 F4는 수입 차종 쪽은 전혀 안중에 없는 듯하다. 경쟁 관계에 있는 외국산 준중형스버루 레가시, 볼보C30, BMW3 시리즈, 도요타 프리우스, 아우디 S4, 폭스바겐 제타, 벤츠 C클래스들은 세계적 인기명차에도 한국의 불꽃튀는 준중형 시장을 손

가락 뺏겨 지켜보고 있다.

준중형이라는 이름의 사각의 링에서 임수정의 빈약한 몸매만큼이나 상대적으로 임팩트가 좀 약했던 건 현대 i30였다. 해지백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정통 세단 경쟁을 벌이던 라프, 포르테, SM3의 대결 구도에서 한발 비켜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 이제 현대가 사기 유닛에 가까운 세단으로 선수 교체를 감행했다. 기아, 삼성, 대우가 긴장하는 소리가 들린다. 포르테와 라프는 이미 MAXIM의 테스트 드라이빙을 거쳤으니 하루빨리 SM3와 이번때의 대결을 선사시켜야 할 듯하다. 2010 이번때에서 주목할 점은 SPAS라는 이름의 자동 주차 시스템이다. 운전자가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만 조작하면 센서가 작동해 핸들이 좌우로 혼자 이리저리 돌면서 주차되는 기능이다. MAXIM이 2009년에 폭스바겐 티구안을 시승하면서 체험했던 자동 주차 기능을 국산차에서, 그것도 이번때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거다. 게다가 백미러에는 후방 카메라 영상이 디스플레이된다고 한다. 그럼 이제 이걸로 주차하 다 꼭 끊으면 현대차에서 보상하는 건가?



MAXIM BUYER'S EDGE

SONY, DSLR 알파 사고 MP3 발매

스니코리아의 DSLR 알파는 구매 고객에게 방수 워터맨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워터맨 플러스 알파 여름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알파 550(500)450 도말을 구입하고 장품 등록 후 이벤트 사은품을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증정한다. 물론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두라. www.sony.co.kr



도루코, 6종날 면도기 페이스엑셀(PACE XL) 출시

대한민국 대표 면도기 브랜드 도루코가 면도를 귀찮아하는 남성들에게 선풍품 페이스엑셀(PACE XL)을 선보인다. 6종날에 내로 불레이드(Narrow Blade) 기술을 적용해 절삭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면도날 뒷면에 부착된 트리머는 구레나룻과 코밑수염을 면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090-022-3211 / www.pace6.co.kr

리복, 토닝 슈즈 라인 런튼 출시



리복이 신고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토닝 운동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신개념 아이템 '남성 토닝 슈즈 라인'을 선보인다. 토닝 운동은 근육 활성 운동을 말한다. 리복 런튼의 근육 활성 운동 기능은 미우주정공국 엔지니어로부터 검증된 바 있다.

가격 148,000원 / 문의 02-3446-4058

레벤드매일, 켄우드 울루파 추석 선물 세트 출시

와인 전문 수입업체 레벤드매일은 추석에 맞아 울루파 카베르네 소비뇽과 울루파 울드바인 진판델로 구성된 켄우드 울루파 추석 선물 세트를 출시한다. 두 와인은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자랑한다. 선물 세트는 신세계 백화점 스타슈퍼 강남점 및 주류 전문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10만 원 / 문의 02-3497-6888



BLANK 5 SPACE, 초상화 그래픽 티셔츠 출시

캐러티 남성복 BLANK 5 SPACE가 문화 패션 그리고 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아이콘들을 담은 초상화 티셔츠를 제작한다. 초상화가 그려진 티셔츠는 단순한 소재와 블랙&화이트의 대비되는 색감으로 캐러티의 심정을 꿰뚫는 감동함과 진정성을 전한다.

문의 02-616-5911



DOX JAPAN, 컬러풀한 둥근 볼테 안경으로 가을 훈남 되길!



20~30대 패션 피플들이 선호하는 아이웨어 브랜드 DOX JAPAN이 유행을 포인팅 있는 볼테 안경을 출시했다. 출시 상품은 기존의 넓고 큰 프레임 특징을 살리면서도 기존 제품보다 두께가 얇고 다양한 프레임으로 제작되었다. 핑제링, 피스타, 플라자데이 등 수많은 연예인이 애용하는 패션 아이웨어로 알려져 있다. 가격 137,000원 / 문의 053-866-6566



파나소닉코리아, 루믹스 FX75 출시

파나소닉이 터치 셔터에 광각을 지원하는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루믹스 FX75는 렌즈 밝기 등을 업그레이드한 명품 라이카 렌즈와 광학 5배줌을 장착했다. 터치 셔터 기능도 있어 32인치 LCD 액정을 손으로 똑똑 터치하여 사진과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색상은 블랙, 실버인 골드, 블랙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 40만 원 / 문의 02-533-8452

필립스, 스포츠 이어폰 3종 출시

필립스 진지는 향상된 생활방수 기능과 함께 격렬한 운동에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스포츠 이어폰 3종을 출시한다. 각 제품에는 빠르게 갈라수릴 때 이어폰 케이블이 손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클립과 보관용 케이스를 함께 제공한다.

가격 2만~4만 원 / 문의 02-709-2000



파나소닉코리아, 전기면도기 2종 출시

그리스의 훌륭한 전대남 신상을 기억하는가? 명명만 그려온드가 추구의 생명이려면 면도의 생명은 불규칙한 수업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파나소닉코리아는 35년 곡선형 면도 망으로 불규칙하게 자란 수염을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면도기 형태서 ES-L350과 형태서 ES-L730 2종을 출시했다. 5년 충전 하인 1회 면도가 가능하다.

가격 198,000원, 199,000원 / www.panasonic.kr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series의 가을 재킷!



어떤 캐주얼 브랜드 시즌즈에서 2009년 새까맣게 정미와 재질을 결합한 디자인의 가을 재킷을 출시한다. 재킷의 디테일에 가죽 패치워크 처리가 되어 디자인적 요소를 더했으며 체크 패턴에 도넛까지 뒤편에 남성스러움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멋스럽게 출시되었다. 2009년 가을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시리즈 재킷으로 가을 남자로 변신을 시도해보자

가벼운 두뇌 운동을 위한 이앤아이 퍼즐(Enl Puzzle)

이앤아이 퍼즐은 세로로 나뉘면 5개의 조각이 8종의 일목달목한 색상으로 원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이며, 컬러의 조각을 일직선, 지그재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출 수 있어 정해진 정답이 없다. 이는 창의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이앤아이 퍼즐은 고보문고, 영문고 등 서점과 (주)에, 옥션 등의 온라인 플랫폼 판매 중이다. 문의 031-945-5468



시간 <세로토닌하라>

정신과 전문의 이시형 박사가 출간한 <세로토닌하라>의 열풍이 거세다. <세로토닌하라>는 어느 자기개발서와 다르게 일상생활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태도와 마인드를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로토닌형 삶에 동참해 진정한 여유와 행복을 찾는다고 하자. 가격 14,000원



스타일 살리는 비콤 심플리 블랙 크로스백

성운인태수사회의 시크 앤 세시 패션 집합 비콤은 트렌디한 디자인에 차별한 블랙 컬러로 분위기를 더한 비콤 크로스백에 비콤의 나비 문양을 넣어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인 심플리 크로스백을 만들었다. 도합한 정장과 캐주얼에도 잘 어울려 패션 리더들에게 추천할 만하다. www.bequem.co.kr



이노이브, 풍당세 데이&나이트 케어 출시

프랑스 내추럴 스킨케어 브랜드 풍당세에서는 자초드름 무더위 속에서 무겁고 습하고 날카로운 밤에 자친 피부부를 회복해 줄 데이&나이트 케어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 이 두 제품은 조성 및 복합성 피부에 적합한 제품으로 외부 스트레스 및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부를 보호해준다는 물론, 피부 보습 및 탄력 회복 기능까지 겸비했다. 문의 1644-6965

머헬, 헤리티지 아웃도어 슈즈 Wilderness 출시

전 세계 판매 1위 아웃도어 브랜드 머헬이 월더나스 슈즈를 출시한다. 월더나스는 100년이 넘는 수제화 장인력이 노르웨이의 전통 방식으로 제작한 아웃도어 슈즈로, 디자인이 스트리트 패션에도 어울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과 시티 패션 스타일을 모두 만족시켜줄 최고의 아이템이 될 것이다. 가격 59,000원



글램락, 걸프스트림 컬렉션 신제품 출시

글램락이 2010 F/W 시즌을 맞아머어 트렌디한 브라운 컬러의 걸프스트림 컬렉션 신제품 GF7005를 선보인다. 걸프스트림 컬렉션은 손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에 따른 정확한 비율을 연구하는 등 인쇄 공학에 중점을 두어 디자인했고, 크로노그래프와 스틸 밴드를 갖추어 그 기능성도 높였다. 문의 02-3834-1332



LG전자, 3D PC 풀 라인업으로 PC 시장 재편 나서

LG전자는 서울스퀘어에서 진행한 3D PC 신제품 발표회에서 노트북, 데스크톱 PC, 모니터 등 신제품을 소개하며 국내 3D PC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선보였다. 3D PC가 게임, 교육 등 다양한 3D 콘텐츠 활용은 물론, 영상 제작 및 인타를 통한 혁신까지 가능해 3D 대중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ww.lge.co.kr



후지필름의 인스타크스 전용 접사 렌즈, 컬러풀 필름

한국 후지필름은 깜찍한 미키 디자인의 인스타크스 미키 접사 렌즈와 개성 있는 사진 연출이 가능한 인스타크스 미니 컬러풀 필름을 동시에 출시한다. 인스타크스 미니 접사 렌즈는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사진이 하기 어려웠던 근접 촬영을 용이하게 해주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진이다. 함께 출시한 인스타크스 미니 컬러풀 필름은 사진에 다양한 컬러를 입혀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 www.film.co.kr

MINI, 해운대에서 특별한 프로모션 개최

해운대에 나타난 조스를 타치하려고 바다 위를 달리는 아우아(MINI)와 MINI 해상구대가 조스와 추격전을 벌였다. 아우아(MINI)는 계절과 마케팅의 일환으로 매년 모험이지만 유리라 정오, 예드레프 방향 지시등까지 달아놓았다. 제트스키를 탄 MIN는 실제로 수속 운전자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미니백패더, 관한 가치는 버리지 해상용 MIN는 출시되지 않을 거다.



BELKIN, 아이폰4 전용 케이스 4종 출시

벨킨에서 아이폰4 전용 케이스 4종을 출시했다. 실드 마이크로 케이스는 반투명한 재질로 되어 아이폰을 보다 시원하고 돋보이게 한다. 실드 스크 케이스는 두 가지 스크를 사용해 아이폰을 충격으로부터 최후방 보호한다. 이밖에도 실드 이클립스, 실드 퓨전 케이스는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했다.
문의 02-669-0740 / www.belkin.com/kr



WANTS ALL: COLORS



컨버스, Seasonal Color Collection 출시

올 F/W 시즌에는 봄이 살짝 다운된 같은 색조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컨버스가 오리지널 라인의 대표 격인 허 테일러 리에온을 시즌 컬러 트렌드를 반영해 총 4가지 운동화 컬러 세트를 출시했다. 9가지 컬러와 각 고유한 이름을 붙였으며 한정 판매하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세련된 매장으로 달라가자.

루미녹스, 7050 네이비 실 시리즈 출시

루미녹스의 7050 네이비 실 시리즈는 미 해군 특수부대의 아간 작전 수행을 거쳐 그 기능을 인정받은 시계로, 강화 유리섬유 케이스를 사용해 가볍고 견고하다. 200m 방수 기능은 물론 모든 루미녹스의 시계에 적용되는 루미녹스 방광 테크놀로지는 철축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도의 동력 없이 밝은 빛을 25년간 유지하게 해준다.
가격 399,000원 / www.luminorwatch.co.kr



SEIKO, 프리미어 빅 캘린더 크로노그래프 출시

세계 전문 브랜드 S&W의 프리미어 빅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는 60분까지 초장이 가능한 고성능 크로노그래프로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한다. 또한 깔끔한 화이트 컬러 문자판에 고급 스틸로 만든 레드 브라운 컬러의 가죽 스트랩을 더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사용자의 용역을 높여주는 세이코의 프리미어 빅 캘린더 크로노그래프는 멋진 남성에게 꼭 필요한 클래식한 패션 아이템이다. 가격 850,000원 / 문의 02-511-3882 / www.seikokorea.co.kr



바세린 퓨어 스킨 젤리 오리지널, 리뉴얼 출시

140년 동안 일명 바세린 연고로 불리던 바세린 페타블리엄 젤리가 바세린 퓨어 스킨 젤리 오리지널이라는 이름으로 리뉴얼 출시된다. 올해 140일이 된 바세린 퓨어 스킨 젤리 오리지널은 일명레 3중 정제 과정을 거쳐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층을 온화하게 보호해준다. 또 기존 100g들이 외에 휴대가 간편한 50g들이를 새롭게 선보이며 세련도 소질할 수 있게 했다.



카페라테, 광고 속 2AM 이상 정정 이벤트

매일유업 캠퍼브 브랜드 카페라테의 새 광고 모델로 2AM이 발탁되었다. 카페라테는 새로운 광고 모델 선정을 가려내 홈페이지를 통해 2AM이 광고 촬영 시 착용할 의상을 중첨하는 이벤트를 벌였다. FIND YOUR BLACK이라는 주제에 맞게 블랙을 콘셉트로 하여 패션 사진만으로도 응모할 수 있다. www.ecaatalk.com

SIEG, 로맨틱 웨딩 슈트 출시

남성 캐주얼 캐주얼 브랜드 지미카(FW) 시즌을 맞아 로맨틱 웨딩 슈트를 선보인다. 로맨틱 웨딩 슈트는 웨딩 촬영에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로, 세련된 모던함이 묻어나는 베스트, 재킷, 팬츠로 이루어진 3PCS 제품이다. MIN는 지미카 로맨틱 웨딩 슈트를 향한 관심이 되어 보는 이의 부러움을 사는 것은 물론, 동시에 감각적인 스타일링으로 주목받는 트렌드 세터가 되어보자.



굿스킨 랩스, 트리액티라 인 토털 페이스 세트 판매

에스티 로더 캠퍼니의 굿스킨 랩스가 내놓은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 트리액티라 인 토털 페이스 세트는 오는 9월 CJ 오쇼핑 채널에서 시즌2 판매 방송을 시작한다. 굿스킨 랩스의 트리액티라 인은 주름 자유가 되는 예방으로 볼볼 강도로 안티에이징 라인업에서 한 단계 높은 균한 글로벌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현재 홈쇼핑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문의 02-3440-2750



MAXIM

NEXT MONTH'S
COVER GIRL

EXCLUSIVE
LINDSAY
Shooting MAXIM!

MAXIM

2010 OCTOBER ISSUE

길들지 않은 린지 로한의 매력을 비롯해
골 때리게 재미있고, 유망하고,
섹시한 MAXIM의 컨텐츠를
MAXIM 한국판 10월호 매거진과
MAXIM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 속 e-매거진으로 만나세요.

장기구독 신청 및 과월호 구입 문의는
잡지 맨 뒷장을 참조하세요.

IMAGE Getty Images

ICON

BY 김상현
WORDS BY CHRIS METZEN
IMAGE BY BLIZZARD
COOPERATION BLIZZARD KOREA

Jim

〈스타크래프트2〉를 주름잡는 마초남 짐 레이너가 MAX에 출연했다.



스타크래프트2
동영상 보기

Raynor

얼굴 보기 참 힘들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면서 자셨나? 그간 태만 자지령을 상대로 혁명 일으키라, 우리 애들 무기와 밥을 챙기느라 많이 바빴다. 그래서 이런 준비 덕분에 아이크투리스 엠스크를 이길 수 있었다.

칼날어항 케리건은 일순 상실감이 엄청났다 보다. 꽃이남 짐 레이너는 어디가고 투박한 외모의 중년 아저씨만 남았다. 당신 진짜 눈치 없고, 그런 소리 종종 듣지? 종족전쟁 이후 참 힘든 4년이었다. 싸우거나 일하지 않을 때엔 늘 케리건 생각을 했다. 가끔은 술만 이 짐을 청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케리건 사진을 보면서 술을 마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당신 주량이 궁금하다. 유스키 진과 위스키를 가져오면 주량을 보여주겠다. 당신 나와 대적할 수 있겠나?

순도 한 번 안 잡아 본 케리건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그녀에게 우리가 모르는 매력어 숨어 있나? 글썽, 시사는 기스를 했다고 해서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 케리건과 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함께 싸웠었고, 그동안 그녀와 즐거웠던 시간도 있었어. 어쩌면 우리가 손을 잡았는데 당신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가져 저그 세력으로부터 구해낸 케

리건을 하마터면 눈앞에서 잃을 뻔했다. 〈스타크래프트2〉의 주요 무대 코프틀루 지역에서는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는 경우가 없다. 이곳의 삶은 힘들고 늘 폭력으로 끝을 맺는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더욱 기쁘다.

그때도 한때 한술밥을 먹은 동료 타이거스를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한방에 보내 버린 건 너무 아팠한 행동 아닌가? 타이거스는 내 친구였다. 그가 그리웠다. 맘이 달라. 지금도 난 그 순간을 매일 생각한다.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순간적인 판단이 생겼다. 남자라면 남자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 후회는 없다.

프로토스의 제라툴은 당신의 완소녀 케리건이 무자를 구할 영웅이란 사실을 알려줬다.

이직 인류를 구하진 않았다. 내 친구 제라툴의 예언을 믿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다. 두고 보면 알겠지.

이야기를 좀 바꿔보자. 당신은 변두리 연방 보안관에서 반란군의 리더가 되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승세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그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지거나 그렇다. 난 모든 일에 늘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 말했을 때 부끄러운 일 때문 절대 하지 않는다.

당신은 실제로 어떤 병과에 속해있나? 정말 마린인가? 321 식민지 유격 대대 '천국의 악마들' 소속이다.

혼자서 상대하는 저그 병력(또는 해치온 저그 병력)은 어느 정도인가? 마침 1,000마리 가량의 저그 무리가 이 방으로 돌진 중이라니 이 녀석들과 싸워보면 알겠군. 당신이 총을 가져왔길 바란다.

음... 당신은 정말 슬픈 배신을 당했다. 연방 보안관까지 자낸 사람이 너무 무른 것 아닌가? 당신도 알다시피, 영혼을 믿지 않는 우습고 사나워한 사람이 되긴 어렵지 않다. 그렇지만 순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게 그만큼 훨씬 낫다. 거짓말쟁이들이 1천 번, 만 번 나를 배신해도 최후의 승자는 바로 내가 될 테니까 말이지.

다른 종족의 대장군(제라툴)과도 허물없이 잘 지낸다. 의사소통이 여의치 않을 텐데 그들과 어떻게 친해졌나? 예전에 테사드라라는 프로토스 장군이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줬다. 아예 든 그거만 상관이야 제라툴과 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구한 사이라면 인종 차이 따윈 아무것도 아니지.

저그와 프로토스 혼종은 당신의 경험으로 비쳐볼 때 어떤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저그는 수적으로 우세하고, 프로토스는 유닛 하나하나가 강력하다. 저그 대군의 각 유닛이 프로토스 광전사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해 봐라.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거다. 하지만 우리 태란은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위풍수를 친 엠스크도 타도했고, 케리건도 되찾았다. 당신이 굳이 우주를 위해 용 쓸 필요는 없어졌다. 솔직히 말해보자, 앞으로 당신의 계획은? 아직 엠스크를 죽인 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있지만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거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MAX에 출연한 소감이 궁금하다.

워, 난 유명 인사나 배우는 아니다. 그냥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는 남자일 뿐이다. 사실 난 주량이 얼마는 질문도 답하는 일 따위보단 전쟁터에서 충직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크리스 멧젠은?



인터뷰를 도와준 크리에이티브 개발팀 선임 부사장 크리스 멧젠은 1994년 블리자드에 합류해 〈스타크래프트2〉(워 크래프트2, 3), 〈다이블러 2〉(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주요 작품 제작에 참여한 진중한 게임계 마스터의 손이다.



짐 레이너 5분 5답

당신 취미는?

멕시코 사랑하기

주로 사용하는 우주선은?

전용 수송선이 있다. 어느 정도 개조
하긴 했는데 자세히 알려줄 순 없다.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꼽자면?

타이커. 옛 호너가 가장 친하다.

당신의 진짜 나이는?

어디 보자. 지금이 2504년이니까...
그냥 300이상 400하라고 해두겠다.

좋아하는 술은?

술이리엔 뭐든 상관없다.

이혜인

블랙 상의 실버 밴딩
모두 J&B
블랙 워싱 팬츠 TANKUS

PURE & 이해인 SEXY

순수함과 섹시함이 공존하는 매력 만점의 그녀 이해인을 만났다.

BY 기획자 WORDS BY 권영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이석우 MAKE-UP 권영민 ASSISTANT 조정민
COOPERATIONS TANKUS, VOV(02-3445-7725) XIX, VAN MARRA at SODA, CLUB MONACO, DONNICHETTI(02-2138-7769)
JAMESBELL(010-8647-7804) LMO STREET, GUESS Underwear(02-914-0663) SHOESONE(www.shoesone.co.kr) PINKFLU(www.pinkflur.co.kr)





브라운 컬러 피 XIX
와이빙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블랙 스포츠 VOV
브라운 컬러 앵글 부츠 VAN MARRA at SODA



MAXIM 화보를 찍고 난 소감이 궁금하다.

화보 촬영 중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거울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모험하는 걸 좋아해서 촬영 내내 즐거웠다.

하지만 아직 길 길이 멀다. 이태인 수녀님의 인지도를 뛰어넘진 못했다.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서는 이태인 수녀님을 넘어선 지 꽤 됐다. 관련 기사도 많이 나올 조연엔 검색 순위가 살짝 바뀌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검색된다.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을 하나만 고르던가? 히로스에 로코는 지겨우니 그만두자.

꽃사슴네 이 별명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팬도 많이 생겼다. 그 다음엔 (재미있는 TV 플러코스터)의 코너 제목 때문에 생긴 별명 할라(하)네, 요즘엔 지나가는 사람이 날 보고 "할네, 할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웃음).

그럼 히로스에 로코가 출연한 영화를 본 적은 있나?

〈비밀〉에서 그녀 모습이 나와 같이 달았던 소리를 듣고 찾아보긴 했다. 그 외에 다른 작품은 보지 않았다.

실제로 만나보니 텅텅하고 시원스러운 성격이다. 주변에 아는 친구도 많겠다.

인타깝게도 연락하는 이상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남 녀가 친구 사이로 자체가 참 쉽지 않더라.

그런 당신이 예뻐서 그렇다. '인타깝 5대 열광 2기 출시' 이란 포스터가 늘 따라다니는단다.

당시에는 치열한 오디션 끝에 열광으로 뽑힌 거라 나름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모두가 열광이어서 '열광 출신'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웃음).

조만간 2기 열광 출신이 연예계를 접수할 거란 멘트를 던졌다.

2기 열광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지만 유이들 비롯해서 같은 모임 출신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면 왠지 모든 부딪침은 느껴진다.

예전에는 머리가 길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했다.

헤어스타일링을 바꿔볼 생각이 있나?

여성스러운 모습을 선호하는 팬들은 지금도 머리를 길렸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을 할 땐 짧은 머리가 나를 어렵게 훨씬 좋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기르고 싶단 생각을 했는데 붙일머리로 머리를 길게 해줬더니 오히려 광범해지는 느낌이였다. 당분간은 짧은 머리를 고수할 생각이다.

화이트 컬러 인스에 윌리스 JAMER&BELL
아이보리 컬러 스트랩 슈즈 SHOESONE

당신 외모에 점수를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8점 너무 높음?(웃음)

<악녀일기 시즌 4>의 이해인과 저이있는 TV 롤러코스터 헬(Her)의 이해인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느낌이 다르다. 전자가 솔직함이 강했다면, 후자는 거기에 예민함을 더했다.

원래 성격은 (악녀일기 시즌 4)의 모습에 더 가깝다. 헬(Her)는 하이도로 피곤한 스모일이다.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소심한 A형이어서 고우 현(?) 헬녀 캐릭터에 적응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

남자친구가 MAXIM을 보다가 헬(Her)의 이해인에게 들켰다고 생각해보자. 그나마면 무슨 말을 했을까?

"오빠 뭐야? MAXIMI 그렇게 좋아? 세상에 MAXIM과 나 딱 둘밖에 없어. 그럼 썸 선택할 건데? 예? 해봐. 말 못하는구나. 그래, MAXIM을 선택하겠지. 그렇게 MAXIM이 좋으면 평생 MAXIM과 잘 먹고 잘 살아. 헤어져"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웃음)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당신의 이상형은 꼭 물어보고 싶다.

일단 헬나나 동감해가는 남자도 보이지 않는다. 두었보 다 남자도 남자야 좋다. A형이러서 그런지 나를 리드 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얼마 전부터 골프를 시작했는데 함께 운동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서로에게 피곤함을 선물하는 사이가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럼 나 같은 남자는 어떤가?

미안하다. 당신이 지금부터 2시간 후에 죽게 된다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거다. 여자라면 일 거다. 다이어 트라는 압박이 얼마나 싫을 피로하게 만드는지 말이다.

미자만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MAXIM은?

남자의 로망이다. 남자들이 맥 하리는 일단 개녀도 눈 이 하트로 변해버리. 그래서 MAXIM에 꼭 한번 출승하 고 싶단 생각을 했었다.

고맙다. 당신은 MAXIM 스태프의 로망이었다.

우리 꽃사슴이 좋아하는 것들

안타깝지만 당신은 아닐 거다.

-  신드라 불록 주연의 <블러디 사이드> : 심화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감동적이다.
-  (x)의 누에베오, 그리고 소정의 피아노 연주곡 : 그녀는 한때 피아노 선생님을 꿈꿨다.
-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 그녀는 <버라이어티>를 읽고 나서도 눈물을 푼듯처럼 흘린다.



바이올렛 컬러 웨이스. 반지 모두 JAME & BELL. 스웨이드 소재의 베이지 컬러 슈즈 ILMO STREET

골드 & 화이트 컬러 팔찌 JAMES BELL
백이지 컬러 상의 CLUB MONWOOD
브라운 컬러 악어가죽 형상의 부츠 DONNICHETTI



핑크 컬러 시스루 상의 JAME & BELL
베스트 안에 화이트 언더웨어 GUESS Underwear
발레복을 인상시키는 블랙 스킨트 언더의 소장
골드 컬러 슈즈 LMO STREET



“A형이라서 그런지 나를 리드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에게 끌린다.”

골드 벨은 JAMESBELL
머플러 컬러 인스에 웨피스 CLUB MONACO
발목 스트랩이 두꺼운 블랙 슈즈 PINKRUN

KELLY BROOK

시즌
Topshop
벨트
Urban Outfitters
신발
Calvin Klein

DESERT





BY PATRICK CARONE

PHOTOGRAPHS BY JEFF OLSON

34E 사이즈의 참한 기술, 깨끗한 얼굴과 완벽한 하체를 더해진 영희 (YOUNGHEE CHANG) 를 유혹 두근거리게 할 영국의 시종장 출신 브로이 장다



(99)
비키니
Topshop
베스트, 민티지 무츠
Urban Outfitters

(아래)
브래지어, 팬티
Obsidian
by Elle Macpherson Intimates
재킷
Urban Outfitters

신사의 나라 영국에 사는 숙녀들은 예로부터 가슴 사이즈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멋진 모델이자 영화배우인 켈리 브룩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의 완벽한 몸매는 살인적인 파괴력이 있어서, 말 그대로 사람 여럿 죽일 정도. 그런 켈리 브룩이 영화 《피라나 3D》에 등장해 뽀샵 같은 생선 떼 사이에서 그 이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영국의 자존심 픽픽 높이는 그녀, 켈리 브룩을 만나보자.

《피라나 3D》라니, 제목부터 참 정작하다.

그런가(웃음) 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라도 잘 만든 작품이라면 무척 좋아한다. 특히 《피라나 3D》엔 모든 게 있다. 예쁜 여자, 피라나, 피 그리고 파도라는 수많은 가슴의 향연. 뽀박박을 맞은 젊은 이들이 때로 나온다. 피라나가 자신의 볼 방향을 말할 거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면서.

아, 또 이런 영화에 남의 방향 맞치는 악마 같은 녀석이 안 나오면 섭섭하다.

맞다. 후시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난고 선사시대 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피라나들이 그 틈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사람들이 웃고 즐길 시간은 거기까지다!

당신은 어떤 역할을 맡았나?

《걸스 온 파일랜드(Girls Gone Wild) 젊은 사람이 모여있는 클럽, 파티장 등에서 매력적인 여자가 몸을 보여주는 내용의 시리즈를 옮기니 주)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사람들의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캐릭터랑 비슷하다. 영화 내내 비키니를 입는다. 삼십 40°가 넘는 더운 날씨에 적절하게도 비키니를 입어주는 나에게 고마워할 거다.

피라나 피하는 방법을 배웠나?

아니. 하지만 수중에서 숨 오래 참는 법은 배웠다! 영화 속에서 포르노 배우와 물속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찍으면서 말이다.

오! 정말인가?

감동 일렉산더 아이는 프랑스인이다. 그래서인지 유러피언 스타일의 예술적 영화 표현을 추구했다. 만약 그가 미국인이었다면 배우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다. “살에 트레일러 밖으로 나가지 않게!” 그 프랑스인은 단지 유럽인이라는 이유로 살해 위협을 피할 수 없었지.

영국 남자와 미국 남자들 중 누가 더 좋은가? 미국 남자가 멋있다! 영국 남자들은 너무 골파다.

무엇으로 당신을 축축한 분위기에 젖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달라.

누군가 나를 위해 저녁 식사를 만들고 심지어 은 은히 초를 밝히기까지 한다던.. 아아 바로 도할 거다. 나는 좀 구식이라 그런지 클리드 남자친구 가 소파에 앉아 그냥 TV를 보고 있는 게 좋다!

세상에서 가장 큰 광고판에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등장했다는 게 사실인가?

맞다. 큰 가슴 사이즈를 찬양하는 내용의 랜제라 광고였다. 그들은 내 가슴을 더 담기 위해 광고판 을 두 배로 크게 제작해야 했다.

브 브라보!



HERSTORY

그녀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다.

슈퍼맨을 응원하는 이유

2004~2002년, 그녀는 슈퍼맨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스몰빌》에서 클라크 켈트의 친구이자 숙적 렉스 루터의 여자 친구로 등장했다. 슈퍼맨, 파이팅!

제이슨 스타뎴을 사랑하는 이유

노기다 맥신 전문 배우 제이슨 스타뎴과 7년 동안 연애했다! LA와 런던을 오가며 함께 생활하던 그녀는 2004년 그와 결별했다. 제이슨 내 녀석은 가시 이드레!남이나 나 처럼.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지난 8월, 영국에서는 일류에 운동화만 신은 그녀의 모습을 담은 리브 광고판이 등장했다. 당신의 어린 몸매도 켈리 브룩처럼 만들고 싶다면 사진 속 그녀의 몸을 살포시 받치고 있는 리브 **이치론 워킹화**에 주목하라!



《이탈리안 잠》을 다시 피하라는 이유
도둑 멤버 중 괴짜 컴퓨터 전문가의 색사한 여자친구로 그녀가 스치듯 등장한다. 그 순간 관객의 눈에 띄는 압도적 가슴은 바로 그녀의 것이었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이유
그녀의 첫 주연 익명인 영화 《스피리》는 쓰레기라는 흑광인 안고 망망으로 주력. MVM 화보를 보고 나면 이 망작을 쓰레기장에서 다시 간지러 할 것 같은 압박에 시달렸겠지.

여자 속옷에 환호하는 이유
그녀의 가슴은 세계 최대 크기의 속옷 광고판에 등장한 적이 있다. 켈리 브룩은 직접 디자인한 속옷 브랜드를 만들기도 했다.

《피라나 3D》를 보이는 이유
영화 내내 비키니만 입는다니까!

미식축구가 한국에서 인기 없는 이유
그녀는 8월 14일 라미 산수 데니 치프리아니 나와 2년 동안 사귀다 지난 8월 이별했다. 그는 그녀의 랜제라 광고를 보며 "웃을 너 무 작게 입었어!"며 투덜댄 못난 boy였다.

IMAGES BY JEFF MARI(GETTY IMAGES/REXUSA)

팬티
Calvin Klein
헤어밴드
Urban Outfitters
무즈
스타일리스트 개인 소장



“ 큰 가슴 사이즈를 찬양하는 내용의 랜제리 광고에 나온 적이 있다.
그들은 내 가슴을 다 담기 위해 광고판을 두 배로 크게 제작해야 했다. ”



Michael Caine

베트맨의 집사이자 150편 가까운 영화에 출연한 영국의 레전드 그는 아직 칼자루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

당신은 최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에 출연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도 뭐가 뭔지 도통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다.

아마 영화가 결말에 도달하기 전까진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크리스(크리스토퍼 놀란)는 관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제한다. 당신이 뭔가를 알길 원하면 그렇게 한다. 난 그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감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놀란 감독은 만사를 자기 뜻대로 하려는 지배관이라는 건가? 약간 비밀스럽고 의문한 구석이 있긴 하다. 그가 <베트맨 비긴즈>의 집사역을 내게 제안하면서 대본을 읽어 보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마침 자기가 영국에서 우리 집과 가까운 곳에 사니 “내가 대본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가 도착하자 나는 대본을 받고 “고맙다”며 문을 닫으려 했다. 그러자 그가 “대본을 다시 돌려봐라 가겠다”고 하는 거대! 그래서 난 그가 기다리는 동안 그걸 다 읽어야 했다.

얼마 전엔 런던에서 가장 거친 동네를 휘어잡은 노인 이야기를 그린 <해리 브라운>을 찍었다. 촬영 장소가 당신이 자란 곳인데 느낌이 어땠나? 미국에서는 그런 동네를 ‘공영 주택 단지’라고 표현한단지? 그곳은 놀랄 정도로 딱딱한 곳이었지만 가 보니 내가 기억보다 훨씬 상황이 나쁘다. 나도 거기 살았을 때 동네 경 패거리 중 하나였다. 우린 약이나 총은 소지하지 않았다. 문체의 대부분은 술 때문에 생겼다. 요즘 그곳은 너무 치명적으로 변했다.

해리 브라운은 전직 영국 해병대 출신이며 젊은 경관을 소탕하기 위해 전투 기술을 사용한다. 그 장면을 찍을 때 한국전쟁 참전 경험이 도움을 주었나? 그랬대 무척 유용했다. 그러나까 지금 내 나이가 일흔일곱 살이고, 열여덟 살부터 스무 살까지 군인이었다. 촬영 당시 그 시절이 떠올랐다.

주목할만한 적 있나? 당연히. 내 젊은 시절은 내내 주먹을 주고받던 시기였다.

싸움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팀은 무엇인가?

당신보다 몸집이 큰 사람과는 싸우지 마라. 이런 상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유도 레슨을 받았다고 몸집이 큰 사람과 붙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출연작이 상당히 많다.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을 텐데?

그렇대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정말 작품은 나도 검색해야 한다. 진짜 끔찍한 영화일수록 그렇다. 나도 구글에서 ‘미러를 케인 영화’를 검색한다.

당신 영화 중 최악을 꼽는다면? 아마 <스왈>(The Swam)일 거다.

살인 벌의 재앙(<스왈> 내용)이 <조스 4(Jaws: The Revenge)>보다 더 나쁘다는 건가?

음. 그런 내가 주연이 아니었으니 치지 않는다. 60살 중 영화란 직업했다. 그런 마저 내가 ‘베트맨’은 내 집사(알프레도) 언기 덕분에 엄청나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보 같지.

<추적>, <갯 카터>, <알피>, <이탈리안 잡> 등 당신 영화의 상당수가 리메이크되었다. 오리지널을 뛰어넘은 것이 있는가? 없다. 왜 아무도 실패한 줄작은 리메이크하지 않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난 <화려한 시절> 같은 성공적인 리메이크 영화도 만들었다. 일런 브랜도가 나온 끔찍한 줄작 <베드타임 스토리>를 가지고 말이다. 내가 나온 영화 중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다.

당신은 <알피>에서 여자를 추리는 최고의 선수로 등장했다. 그 캐릭터는 실제 당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나?

아니. 그 캐릭터는 실제 나보다 훨씬 심한 멍청이고 여자에 대해 보다 더 모른다. 예를 들어 그는 공짜로 정장을 세탁하기 위해 드라이클러링 슝 주인과 데이트한다. 나라면 절대 그렇게 여자를 대하지 않는다. 난 오로지 로맨스에만 올인한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여자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남자들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베트맨>에서 함께 작업한 크리스찬 베일리 <터미네이터: 미래전쟁의 시작> 촬영장에서 욕설을 퍼부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놀랐다. 난 크리스천이 욕하거나 소리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그가 그랬던 건 분명 엄청난 도발 요소가 있었던 게 틀림없다. 나처럼 그런 모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그는 아니다.

다할질인가?

난 항상 성질을 부리고 했다. 그러다 제임스 클라벨(작가 겸 감독)과 <마지막 계곡>이라는 작품을 함께하게 됐다. 어느 날, 또 내 성질이 터지고 말았다. 크리스천이 그랬던 것처럼, 감독 제임스가 나에게 차 한 잔 하자며 드레스룸으로 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절대 화를 내보이지 말라고, 그러면 당신 교유의 얼굴을 잃게 될 거라고 가르쳤다. 그 뒤로 다시는 촬영장에서 성질을 부리지 않는다. 그저 현장에서 당신에게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 뿐...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땀바닥에 내다 꽃겠다.

그런 값진 충고를 받은 적이 또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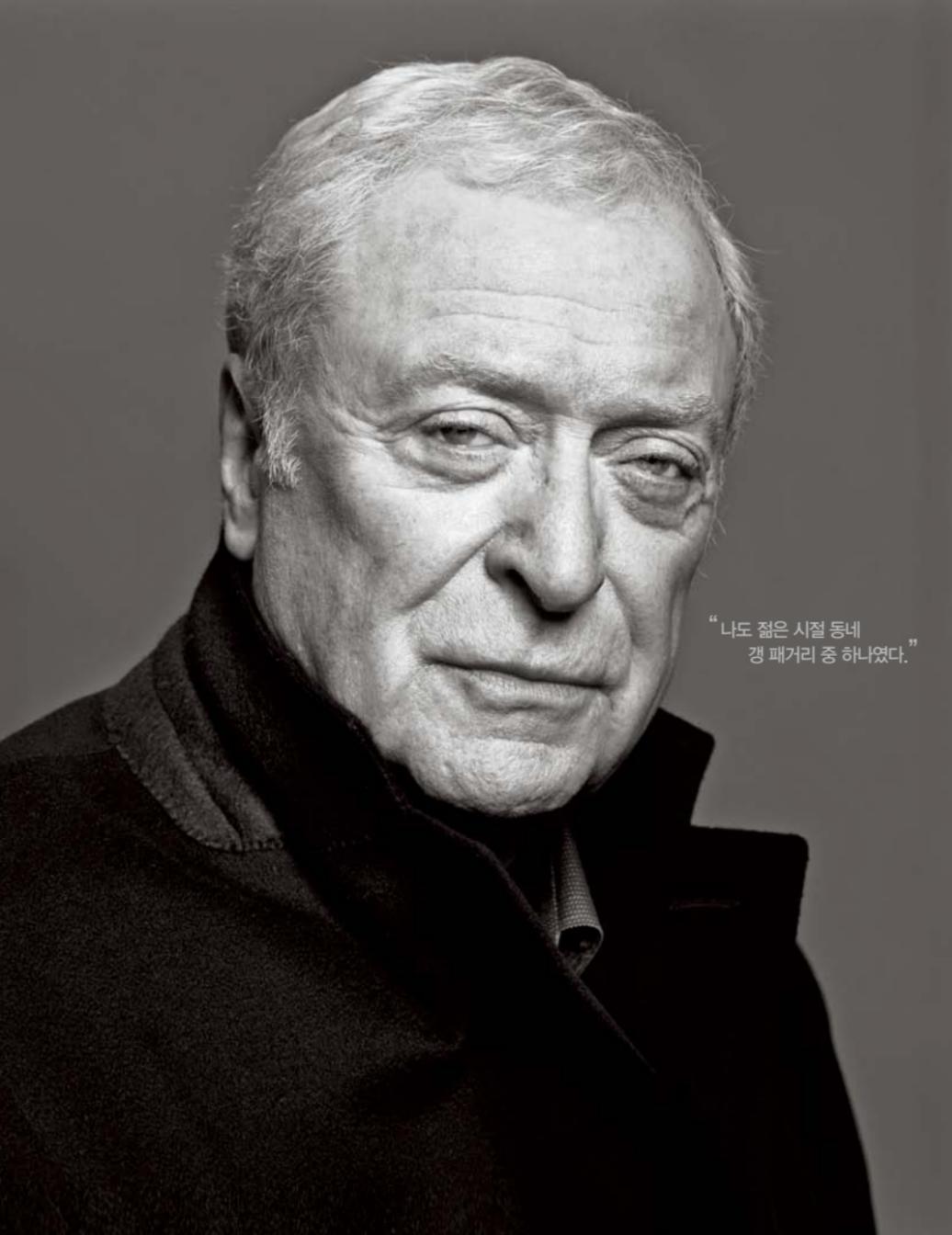
한번은 존 웨인이 나에게 “절대 스웨드 스웨트를 신지 마라”고 했다. 왜냐고 물으니 그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매일 사람이 자넨 알아보겠지. 그러고는 자네를 향해 돌아서서 ‘미러를 케인’ 하며 이는 체할 거고, 그럼 자네 스웨트에 온통 그 자식 소변이 튀겠지.” 라고 했다.

일 안 할 땀 흘리며 지내나?

난 구글광이다. 나는 늘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나에게 구글은 인생 최고의 사건이다. 이젠 모든 걸 알 수 있다.

은퇴에 대해 생각해보았나?

아니. 영화 산업이 배우를 은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펄파레나 빌보 퍼위는 없다. 난 그저 노병처럼 내 모습 그대로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나도 젊은 시절 동네
갱 패거리 중 하나였다.”

MAXIM BUSINESS MONEY



RUN! MONEY, RUN!

당신의 돈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 영양이 있는 얘기 좀 해볼라니까 괄약근 바짝 조이고 집중하라. BY 김일태 (웅진투커스투저지론 주식교육팀장) IMAGES Dreamstime.com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저금리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는 부동산 가격마저 폭락하여 자산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금리가 낮고 부동산도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 주식이 유일한 투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가져온 반토막 펀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 일부 펀드의 경우 종합주가지수가 1700포인트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원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말이다. 또한 최근 들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펀드 환매가 속출하고 있어 펀드 수익률은 더욱더 악화될 수 밖에 없다.

한편 경기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동산이 가계 부채를 안고 구입한 것이기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갈 경우 돈을 빌려 부채를 갚아야 하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또한 금리가 오를 경우 채권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권 투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만 더욱 주식이 대안으로 대두할 것이고, 경기 회복으로 주가가 상승할 경우 파리에 참여하기 위한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

이번 달 MAXIM에선 국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5가지 방법, 첫째 증권사 지점에 맡기기, 둘째 운용사에서 펀드 계좌 개설하기, 셋째 투자자문사와 일일계약 체결하기, 넷째 증권사 웹페이지로 계좌를 개설하기 마지막으로 그그 직접 투자하기에 대해 알아보자.

● 증권사 지점에 맡기는 경우

보통 주식 투자를 결심한 당신은 동네에서 자주 보던 지점으로 발길을 향한다. 그리고 지점에 들어가 영업 사원을 소개받고 이들을 통해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그러나 증권사 지점과의 거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증권사의 영업 사원과 당신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당신의 계좌 수익률이 높아 자신이 서로 이익이지만, 증권사 영업 사원은 고객의 계좌 수익률과는 상관없이 그저 매매를 많이 해야 이익이다. 왜냐하면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 발생하는 매매수수료를 증권사와 영업 사원이 일정 비율로 나눠 먹기 때문이다. 즉, 영업 사원은 당신의 수익률과 관계없이 매매를 많이 일으키려는 욕구가 들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따라서 상승장에는 당신도 수익을 내고 영업 사원도 매매수수료를 챙기지만, 하락장에서선 당신이 손해를 봐도 직원은 매매수수료로 이익을 보는 구조인 것이다. 둘째, 증권사 직원은 말 그대로 영업 사원이다. 즉 영업과 매매를 주로 하기 때문에 기업 탐방이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종목을 연구할 시간도 물리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종장가격으로 큰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위

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매 회전을 높여야 하므로 장기 투자 자체가 쉽지 않다. 증권사 직원들은 항상 약정 일액, 즉 당신의 자산을 자주 매매해 더 많은 수수료로 챙기려는 회사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 펀드 가입

운용사의 펀드는 증권사 지점 또는 은행 지점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2005년부터 미래에셋을 중심으로 적립식 펀드가 기하급수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펀드 시장으로 몰렸다. 그러나 2007년 말을 고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펀드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며 '반토막 펀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펀드는 손쉽게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보통 50~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형 펀드의 경우 매일 수익률을 평가함으로써 종합주가지수와 비교되는 구조가 오히려 투자자에게 독이 되고 있다. 펀드 평가사는 매일 1주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모든 주식형 펀드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가장 앞선 펀드가 가장 많은 돈을 끌어모으게 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펀드매니저는 끊임없이 종합주가지수를 의식하며 운용해야 한다는 거다. 종합주가지수와 수익률 격차가 벌어지면 펀드는 경쟁에서 밀려날뿐더러 펀드매니저도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따라서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종합주가지수와 과리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신이 맡긴 돈의 90% 이상을 주식으로 채우고 운용한다. 그로 인해 2008년 종합주가지수가 반토막날 때 펀드도 반토막이 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최근과 같이 환매가 집중될 경우 남아 있는 고객들은 수익률 피해를 보고,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또 환매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펀드는 구조적으로 하락장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 투자자문사 일일계약

세 번째 주식 투자 수단인 투자자문사의 일일계약의 경우, 불특정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펀드와 달리 특정 고객과 일대일 계약을 맺고 그 고객만을 위해 운용한다. 일대일 계약을 맺는다는 점에서 증권사 지점과 비슷하지만 매매수수료를 취하는 증권사와 달리 투자자문사는 외국계 헤지펀드처럼 성과수료를 받는다. 즉 당신의 수익률이 일 년 후 얼마 이상에 도달했는 경우에만 그 초과수의 부분의 일부를 성과수수료로 받는다. 따라서 투자자문사도 수익이 내이면 성과수수료를 받으므로 고객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거다. 또한 종합주가지수 대비 상대수익률을 추구하는 운용사의 펀드와 달리 투자자문사는 높은 성과수



수료를 받기 위해 높은 절대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 따라서 분산 투자가 아닌 집중 투자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긴 한다.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통 역 단위 자금을 맡아 콜리므로, 소액 투자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렘어카운트 계좌

네 번째 주식투자 수단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증권사의 렘어카운트 계좌다. 렘어카운트란 위에서 설명한 투자자문사의 일임계약과 동일한 의미다. 증권사가 투자자문사의 자문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즉 투자자문사 일임계약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증권사 시스템을 활용해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소액 투자 고객들이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자문사의 자문대로 집중 투자해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에 고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펀드처럼 원 포트폴리오로 운용되기 때문에 가입 시점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최근 들어 렘어카운트 계좌가 일반 펀드와 차별화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펀드에서 한때만 자금이 증권사 렘어카운트 계좌로 몰리고 있다. 이에 따361402-040-리 증권사와 자문사의 합종연횡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당신 개인이 자신의 실력과 판단만으로 투자하는 거다. 아무래도 개인투자자는 본인이 있고 정보력 및 투자 실력 면에서 열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게 쉽지 않다. 자신있다면 밀리진 않는다.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는 개인투자자들도 존재하니까.

SO WHAT?

HELP ME! HELP ME! HELP ME! HELP ME!

애널리스트 김일태

자꾸 반토막 반토막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반토막의 주인공이다. 대체 내 꼴 잘못된 건가? 2006년 적십자 펀드 붐을 타고 증권 시장이 급팽창할 때 그 변화의 흐름을 일찍 캐치하고 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이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펀드가 처참히 수익률을 반할만할 당시에 그 변화의 흐름을 유지 못하고 기다리며, "장기 투자하라"는 운용사의 말만 믿고 기다린 투자자들은 아직 원금 회복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애널 아니다.

그래서 50지 중에 어떤 투자를 하란 말인가?

어느 것이 장담이라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투자에도 새책 트렌드라는 게 있는 것 같다.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해야 좋 트렌드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나?

최근의 흐름은 한때만 펀드 자금이 자문사의 일임계약이나 증권사의 렘어카운트 시장으로 옮겨가는 초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자문사 시장과 렘어카운트 시장은 급팽창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내 투자자문사는 한국형 헤지펀드로서 자신운용 사외인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변화의 흐름을 빨리 알고 빨리 대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눈치가 빨라야 한다는 얘긴군. 그건 자신이다. 건투를 빈다.





확실히
여제 메리와 사장이
회상실에서.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당신을 씌어대고 다니는 녀석이 있나? 자꾸 인생에 태클을 거는 놈이 있나? 법을 알고 싸우면 백전백승이다. 나라에서 대신 흔대준다는데 밑속 썩고 있다. 법을 열심히 활용해주자 문화 시민인 거다. 그럼 함께 명예훼손의 세계로 떠나볼까? BY 유승민 IMAGES Dreamstime.com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

명예훼손죄로 걸려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어야 한다.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누가 당신이 속한 '집단'을 싸잡아서 비난했다면? 걱정하지 마라. 이때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으니까. 특히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간 큰일 난다. 예를 들어 "MAXIM은 사이비기자 집단이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 중 한 명을 꼬집어 비난했지만 그중에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말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 모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MAXIM 에디터 중에 한 명은 변태에 성도착 중 한자" 라고 하면 MAXIM에디터 전원에게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얘기다.

명예를 훼손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들어서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야 성립하고, 그냥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드러낸 경우에는 모욕죄(형법 제313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해당한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몇 개 살펴보자. **우측에 예쁘게 정리해 놓았다.** 자, 쉽지 않은가. 그리 심한 욕도 아니고 당신이 평소 애용하는 연예인들이 한 얘기다. 그 모든 게 명예훼손죄 아니어도 형법상의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실, 당신에게 막말을 던져대는 그 자식이 한 번만 더 입을 놀리면 바로 신고하라. 1년 이하의 징역이다.

大法院 判例



모욕죄를 인정한 예

"예구는, 병신"이라는 발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퐁터대기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다.

"똥개" 제집단, "꾸당 침년" 이라고 말한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구형적인 2명에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든도록 "저 말할 날 자기 오세" 라고 했다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너 이 행년 왔구나" 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 인이고 그 곳에는 피고인(사이비)제과 그의 처...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

- ① 공언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언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언하?

‘공언하’의 뜻은?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깨달렸을 때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으면 ‘공언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게 된다.

당신이 한 명예게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단 한 명이 입이 정말 썩어서 대문밖 소문을 내고 다 날 놀리려면 당신은 명예훼손죄를 책임을 지야 할 수도 있다는 게 대법원 판사들의 판단이다.

요즘 문제가 되는 건 역시 인터넷 익명글이다. 인터넷이 개나 소나 다 보는 거니 인터넷에 뭐 올리면 공언성은 거의 100% 인정된다.

사실을 적시

‘박 대리 있었죠? 아무래도 여고생08랑 하다 걸려서 요세 경찰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수군수군.’

최 대리가 당신을 심하게 씹어대고 있다. 그런데 안 타깝게도 그놈이 지랄인 얘기가 모두 사실이아닌?

그래도 상관없다. 당신은 여전히 그 녀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 진실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명예가 망가졌다면 명예훼손죄가 된다.

만약 그 자식이 없는 애길 지어냈다면? 그건 죄가 크다. 형법 제307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버리자. 요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복수는 뜨겁게

형법 제 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

똑같은 명예훼손도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죄가 훨씬 더 무겁다. 한번 나붙는 것만으로 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비방할 목적 없이 좋은 취지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미디어에 까발리는 것은 죄가 안 된다는 말이다.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자들은 전부 진짜 신고장을 찾을 테니까. 그렇다면 어떤 녀석이 방송국 기자를 도우처럼 이용해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1994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도

한 명예훼손죄가 된다. 기자가 이를 기사화한 이상, 아무리 그 과정에서 기자의 판단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그 기사가거리를 제공해서 당신의 명예를 훼손한 그 녀석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데 얘기가. 어떤가? 이 정도면 당신은 씹어대는 4천만 국민을 다 고소할 수도 있을 거란 자신감이 피어오르지 않나?

참 그리고 형법 제309조에는 TV 얘기는 안 나오지만 TV도 당연히 포함된다. 아무래도 형법을 제정할 때 담당 국회의원 집에 TV가 없었나 보다.

IF...

우회적으로 둘러서 표현하면?

만약 최 대리 그 자식이 앞의 경우처럼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애들 둘러서 표현했다면?

“박 대리 말이야. 요즘 산심보다 좋다는 고심을 캐 먹고 말 나서 경찰서를 드니다던 거군.”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했다.

실제로 한 대학교수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을 지목해 그녀의 남자 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가 명예훼손죄에 당당되고 말았다.

사실을 적시했는데 아무도 못들었다면?

“빅 뉴스팀장님이 유부남과 놀아나고 있답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팀장님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전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다들 TV를 보느라 아무도 듣지 못했고 당신의 말은 허공으로 흩날렸다면?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한다. 실제로 사람들이 내용을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진짜 비방인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두는 당나귀 귀두!..... 임금님 귀는....

형법 제 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자, 당신에게 까부는 녀석을 명예훼손으로 걸어 넣는 공격법을 배워보았다. 하지만 모름지기 수비가 허술하면 공격을 아무리 질려도 한순간에 뒤쪽 공중에 열려 버리는 법. 이젠 당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제대로 수비하는 방법을 배울 차례다.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형법에는 "제307조 제항의 행위 사실에 직전에 의한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이유는?

심심하게 생각하지마. 다 세계평화를위한거야.



간 단 하다. 진짜 나쁜 놈이 있어도 그놈이 나쁘다고 말 한다면 할 수 없다면 세상에 착하게 살 사람이 누가 있었겠나 말야. 어려우면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명예만 차치하게 보호하든 보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너무 위축된다는 얘기도.

감이 진하냐? 당신처럼 내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고소를 당했을 때 당신이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의 적을 성도한 정의의 기사' 인 거다. 비록 당신의 입에

서 나온 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지언정, 당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보다 많은 사람이 누려야 할 공익을 위해 충대를 맺은 거대 당신의 그러한 목적인 일관되게 진실하면 제307조에 나온 것처럼 '처벌하지 아니한다.' 좀 더 유익한 일로 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고도 한다. 이런 것까진 몰라도 된다. 원래 너무 전문용어를 많이 쓰면 곧 갈아 보이는 법이다.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하게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는 주된 목적인 분명하면, 부수적으로는 꽤~끔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자업자수 대법관님들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적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던 충분한다. 따라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 (大判 1993. 4. 13 95도 234)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다는 동기 목적이 있어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대법도 제310조가 적용된다.)"

한 동기. 목적이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대법도 제310조가 적용된다.)" (大判 1999. 6. 8 99도5143)

물론 언제나 '공익을 위한 거였다'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처벌받지 않으려면 일단 당신이 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 이어야 한다. '허위의 사실' 을 퍼뜨려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도 봐도 못하고 공범을 면책야 한다. 오늘부터 뒷담화를 할 때에도 반드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까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아름 말고' 하는 인일참이 화를 부른다

대한민국 헌법 제20

대한민국 헌법 같은 게 몰라도 사는 데 아무 지장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나라 헌법 같은 건 몰라도 되고,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 제20 조 정도는 알아두면 은근히 싸움을 구는 셈이다.

헌법 제20

-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골디. 간다하지? 그럼 일단 당신의 두뇌 용량 중 무려 130%를 할애해서 헌법 제20조를 외우자. 실연서 갈수록 하여 싸움을 대가 은근히 많이 있다.

법대생 멋덕이기

주변에 혹시 법대 출신이나 법학생이 있어도 안다면 분명 그 녀석은 법에 관한 얘기를 나오면 자기가 마치 법에 대해선 모르든 나한테 물어보려'는 식으로 잘난 척 한다. 그런데 이런 게 은근히 어찌한테 먹히는 게 문제다. 그럴 땐 그 씨앗이 (안정성이) 법대생 녀석을 한 방에 보태놓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20 조가 뭐야?" 라고 물어보라. 그 녀석이 여유있게 대답할 가능성은? 적도 안된다. 장미나까 MAXIMUM 믿고 한번 던져봐라. 그 녀석의 얼굴이 당황한 기색으로 자색하게 일그러지는 걸 지켜봐. 어야 모른다고 하기는 참피하고, 그럴 땐 단언을 갖다 붙여봐 행을 칠 거다. 이제 당신의 두뇌 용량의 130%를 차지하고 있던 헌법 조를 읊어주면 되는 거다.

실제로 법대생 중에 헌법 조를 제대로 외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 법대생이라는 녀석이 우리나라 헌법 조도 모른다고 하면 그 녀석 아마 엄청 사이비걸이 보이게 될 거다. 그리고 당신은 한치도 공부도 할 줄 모르는 남자로 등극한다. 원래 인일참에게 남을 벌고 고쳐서 사는 게 제일 빠르다.

TV 퀴즈 맞추기

임의일참에게 주로 나오는 퀴즈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헌법 제20는 단골중에 단골이다. 토요일 밤 클럽에서 만난 그녀와 뜨거운 밤을 보낸 후 모퉁이 누운 채로 TV를 켜고, 퀴즈 프로그램 나오면 당신의 지식을 과시하면 되는 거다. 이제 당신은 불타는 정력과 차가운 지성을 겸비한 매력이 되었다. 퀴즈가 안나오면 어쩌고? 뉴스 채널로 돌려라. 뉴스를 보면서 정 부를 비판하면서 헌법 제20조를 들먹이려. 사회 불평등한분자인! 그래도 그녀의 눈엔 국민주권주의를 걱정하는 우국지사로 보일테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뚜.....임금님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뚜.....





TAXI

택시 기사가 돼야 할
25 가지 이유



스물다섯 번째 이유: 집에서 놀고먹는 것보단 낫잖아?
BY 정영애 IMAGE 택시@dreamstime.com

01 여자를 자주 본다

손님 중 70~80%가 여자다. 하얏하얏.



02 가끔 떡도 친다

택시 기사에게 찰떡콩 떡을 차지고 권유하는 손님이 가끔 있다고 한다. 운이 좋으면 손님이 떡 찡는 데 걸린 시간을 택시비로 환승해 기사 손에 꼭 쥐어주기도 한다고. 이게 웬 떡이냐! 일본의 로망 포르노(뒤에서 앞에서)엔 손님에게 자기 자신을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차를 받았을 때 수리비 대신 몸을 내주는 여성 택시 기사 모모코가 등장한다.

03 부모는 강하다는 걸 느낀다

택시 기사의 경험담에 따르면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절대 깨어나지 않는 여자 손님 때문에 손님의 보호자를 호출하면 보호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쌍 새대기 때리기'란다. 그 래도 안 일어나서 질질 끌고 가는 경우가 태반.



아내도 남편을 끌고 와세

일본인 한국에 처음 도입된 택시 의 요금은 1회 승차에 1원 50분 이상은 100원이고 초초하게 미터기를 바라보지 않아도 됐다.

운전 중 '배우어나 미안함'의 표시로 반성문을 강하게 라는 신호를 보내는 운전자는 1000명 중 3대 정도다.



05 인내심을 기른다

생긴 건 멀쩡한데 이유 없이 장거리를 왕복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보이면 심중필구 미친 여자란다. 한 택시 기사는 여의도와 인천공항을 수없이 반복했는데 택시비로 2천 원만 받고 보람찬 하루를 마감했다고 한다. 미친년한테 화도 못 내고 그냥 참아줘.

강화유리야.



구루동 때마침

07 골라 태우는 재미가 있다

밤 11시~1시 사이, 특히 종로와 중대문에 가면 이 재미를 똑똑히 볼 수 있다. 이 시간대엔 취래, 근거리 승객 등 앞에 들지 않는 손님에 태우지 않는다. 거리가 멀수록 손님의 인기는 상승한다. 적어도 올림픽대로나 강남대로를 거쳐야만 '손님'이라 불러준다. "지금 퇴근길이라 안 된다"며 매몰차게 승차를 거부하면서 30분 이상 주변을 맴돌며 승님을 고르는 여유를 부릴 수도 있다(퇴근길이라며). 이때 반드시 모든 차 문을 잠가야 한다(손님이 좀 비아?)

08 사회 비판 의식이 생긴다

1996년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는 일반 운전자에 비해 교통 관련 법규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교통 법규에 대한 폭발적인 불만은 비판 의식, 나아가 불법 합승, 승차 거부 등의 용감한 행동으로 승화된다.

09 아날로그 감수성이 충만하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번차수를 대며 내비게이션을 쓰려고 부탁하는 손님의 요구를 끝까지 못 들은 척한다. 축축한 도시 남자는 손으로 만져지는 아날로그식 현금이 좋다. 신용카드 같은 디지털 문명은 거부한다. 디지털 사용을 주장하는 메머본 인간에선 마음껏 탁탁거리란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루트보다 더 빨리 가기 위해 택시를 음속으로 밟는다. 소닉 붐!

04 고급 승용차를 몰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선 좀 힘들고 외국으로 가야 한다. 노르웨이나 독일의 택시는 대부분 벤츠. 우리나라에서 고급 차로 택시 영업을 한다면, 운전하 기 좀 수월해지겠지? 양보는 알아서 척척해 스스로 비켜주!

06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

'여보', 자기 허벅지 손 꼭 잡고 같이 타는데 같이 내리진 않는 커플이 있다. 내 사랑은 맞는데 내 배우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요일, 등산복 차림의 중년 커플 손님 중 특히 이 눈물겨운 사랑을 뽐소 보여주는 사람이 많다. 뒤늦게 티오른 사랑을 소중히 지켜내는 그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을 배운다.



내 사랑을 다들 몰라줘요

10 영계가 된다

택시 기사의 75%는 40~50대. 당시에 지금 택시 업계로 진출한다면 파릇파릇한 영계가 되는 거다. 아주머니의 끈적끈적한 눈길은 새비스.



넌 한줄이야. 예

11 전무후무한 동색 차를 본다



서울시가 지정한 '꽃담황토색' 택시를 볼 수 있다. 노란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까만색은 들어봤어도, 이런 색은 처음 들어볼 거다. 트렌드 세터인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동색이다!

12 진정한 프로 의식이 생긴다

법적 노동시간 따윈 개나 지라. 진정한 프로는 10시간 넘게 일한다. 택시 기사의 99.8%는 장시간 운전으로 생기는 고혈압, 협착 등의 직업병을 달고 산다. 길이 막히거나 손님이 쉬지 않고 순차하면 화장실도 못 간다. 하지만 프로는 달란다.



택시 기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59.4회 무너져 증가하고 있다. 연 1마일당 달러를 시범하기 위해 출기가 아닌 택시를 탈 것이다.

13 지루할 틈이 없는 스피드를 맛본다



2003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택시 운전자의 40%는 운전할 때 위험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기도 한다. 과속은 기본. 마우트 시교동 MAXM 사무실에서 강남구 논현동 스투다오까지 15분 안에도 도착하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소심하기로는 팬텀이 못지않은 당신도 택시의 활개처럼 대범하게 모험을 즐길 수 있다.

14 운명을 시험할 기회가 생긴다

일반 자가용 1만 대당 사고 건수인 1657건에 비해 8.2배 높은 1만3,574건이 택시를 뒀을 때 발생한다(2005년 기준). 사망률은 자가용 운전자에 비해 5배 정도 높다.

15 감심장을 키운다



진단은 됐습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가진 미신 연구에 따르면 귀신 손님을 태우는 경우엔 귀신이 내린 목적지에 들어가 허룻밤을 자고 나오야 별 탈이 없고, 허깨비를 보면 이를 향해 강하게 돌진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 귀신만 무서운 게 아니다. 한 택시 기사는 "어떤 조족 손님도 목적지에 도착하자 면도칼로 내 얼굴을 식각 긁으며 돈과 목숨 중 하나만 선택하러면서 내가 대답할 때까지 칼질을 멈추지 않았다"고 경험담을 털어냈다. 또 다른 택시 기사는 "내 손님이 특정 정치 지도자를 너무 욕해서 "듣기 거북하다"고 했다가 주먹이 날아왔다고 말했다. 그것도 터널 안에서 말이다. 위 사에는 살아 있는 택시 기사에게 들은 경험담이다. 그 외에도 생사를 넘나드는 무서무서한 택시 기사 대상 범죄가 너무 많아서 심장 단련하기엔 제격이다. 역시 택시는 근성.

16 쓸쓸한 팀이 생긴다

가공 팀도 받는다. 한 4억 원 정도? 영국의 한 택시 기사는 20년간 자신의 차를 애용하던 미망인 승객에게 유산을 받았다. 이 기사는 유산을 받고 택시 기사직을 내려치웠다. 뭐하고 있느냐서 영국으로 가자.



택시는 대한민국 대중교통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즉 40명 중 약 65명이 힘을 합쳐 돌리려 만한 버스와 자유형에 비하면는 동안 적어도 10명 정도는 편단인 게 예외인 행명한 택시 안에서 그들을 비롯하고 있다는 말.

17 문이 넓다

강간을 했다라도 그것이 2006년 이 전이라면 택시 운전기가 될 수 있다. 약질 범죄자만 아니면 면허를 딸 수 있고, 약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물래도 금 택시를 돌린 그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관대한 취업 시장이 어디 있나? 심지어 경장들도 낫다. 한때 택시 회사의 택시 30%가 주인을 못 찾아 회사에서 놓고 있다. 기회는 지름이다.



행행!

WAKE UP

택시 운전직은 여전히 장밋빛이다. 아래 사실들만 못 들은 걸로 하면 말이다.

» 연봉 협상 따윈 없다.

» 강간, 폭행, 연쇄 살인을 일삼는 일부 개호로 생각해 택시를 들고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괜히 다 싸잡아 욕 받는다.

» 법안 택시 기사가 한해 받고 있는 실제 임금 은 약 80만 원 정도인데 그들의 평균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4명. 딸덜덜.

» 최근 택시 기사의 10%가 전세에서 월세로 이사했다. 통계 결과가 있다.

» 택시는 늘어나고 손님은 줄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택시는 전국적으로 약 5만 대. 전체 택시의 20%가 공공과일이다. 당연히 피 터지는 경정이 벌어진다.

18 잘만 하면 대박난다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을 암살한 리 하비 오스왈드가 현장에서 달아날 때 택시 기사가 경매에서 약 4,200만 원에 팔렸다. 당시 오스왈드는 버스를 타려다 교통 체증 때문에 택시를 탔었다. 당년도 청와대 근저를 쫓아들며 기회를 노려라. 향후 2년 내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없으면 법 없다.



19 나만을 위한 리얼리티 쇼를 찍는다

차량 내 블랙박스 차 안에 머무는 내내 리얼리티 쇼를 찍을 수 있다. 가끔 폭행, 불륜, 범인 추격, 대형 사고 등 대박 소재가 터지기도 한다. 가끔 생생한 예로 무비도 연출된다. 등장인물들은 택시가 움직일 때만 쿵쿵쿵쿵하다 택시가 서면 모리스로 일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한 편히 관람하긴 어렵다. 게다가 본격적인 피스톤 운동을 하는 배우는 드물다드물다는 건 잊긴 있다는 뜻. 하지만 포르노에 모자이크가 있으면 담당하면서도 그게 또 나름의 맛이 있어. 적당한 시선도와 함께 좋은 톨미러로 보는 현장이 색색 진입을 뜻.

20 자연재해 같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다

2010년 4월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항공기, 여객선, 열차 등이 모두 운영 중지를 때도 택시는 곳곳이 달렸다. 한 택시 기사는 영국의 유명 코미디언을 태우고 약 1,500km를 달려 15시간 운행 요금으로 약 570만 원을 받았다.



아주세 나
안 휘둘렀니까

21 생명 탄생을 볼 기회가 있다

택시 안에서 다급하게 출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택시 기사들의 숙살에 따르면 새 생명의 탄생은 택시 기사에게도 복을 가져다준다고 한다. 택시 회사가 택사에서 태어난 아이와 신모의 병원이 일체를 지원하거나 아이 이름을 지어준 훈훈한 사례도 있다. 김병행, 이주철 최고속, 안비켜, 안겨져, 안내래(귀여운 새생동아)..



기사 양반, 티셔츠
풀러주께

22 외롭지 않다



손님의 기분이나 의사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리저리러쿵 말을 걸 수 있다. 정치, 문화, 사회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손님이 듣지 않아도 신경 안 쓴다.

23 기사 식당은 대체로 싸고 맛있다

MAX에서 식도락을 전담하는 어스스턴트 에디터 킴 포 씨가 택시 기사를 잠시 직업으로 고려한 것은 순전히 이것 때문이었다. 믿고 싶지 않아.. 무서워..



24 잔돈 안 챙겨도 된다



옴베르트 예코는 말한다. 세계 어디서든 택시 기사를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 잔돈을 일점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카드 택시가 보편화되어 잔돈 없다고 돈 덜 거슬러주는 일은 보기 힘들어졌다. 그러나 잔돈 줄이는 방법이 없진 않다. 요즘이 4900원 나오면 잠시 머뭇거리서 딱 5천 원을 만들고 그제야 '다 왔습니다~' 하면 된다. 딱 떨어지지? 하지만 택시 기사가 대담하게 잔돈 예뉴리 쳐서 깎아주는 경우도 자주 있다. 택시도 역시 근성과 간재!

TAXI TIP

여친을 택시로 안전 귀가시키는 법

지금 미련 없이 잘 보내면, 다음엔 택시 타고 함께 MT 간다.

이빠사자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택시 승차 팁. 영업을 택시의 번호판은 모두 '하, 바, 사, 자' 로 시작한다. 간혹 '하' 로 시작하는 번호판을 정작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영업 겸 대여사업용 택시. 이 외는 모두 불법 개조 혹은 불법 택시일 확률이 높다. 외유기 어렵다? '이빠사자' 를 기억하라 어!

선불

그녀를 뒷자리에 태운 후, 임차서 문을 열어 그녀의 목적지를 택시 기사에게 말하면, 요금은 미리 선불로 조금 내려하게 내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이자, 그녀가 감동의 눈물을 흘릴 거다.

모범택시

힘줄이 붙는 자정 이후, 일반 택시와 모범택시의 요금은 별 차이가 없다. 일반 택사에서 만 원 이하의 요금이 나오는 거라하면, 같은 거리를 모범택시로 갈 때의 요금은 약 2천 원 더 비싸다. 그저 값이 그다지 않지 않다면 모범택시를 태워라. 2천 원 더 내고 사랑도 더 받고.

택시 안전 귀가 서비스

골때리는 일반 택시에 비해 안전하다. 일부 골때리는 '안심 귀가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택시 회사 홈페이지나 유선용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몇 번 차량을 탑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당시 유선용으로 전송한다. 물론 무조건. 불만건 그녀와 안전만이 아니라 귀가 코스인 사람에게만 할 나위 없이 좋은 서비스? 만 길로 새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다.



JISAN VALLEY ROCK FESTIVAL

MAXIM의 지산 락 페스티벌 유람기

수많은 형준 남녀들이 무더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록 음악에 영혼을 내맡긴 채 광란의
도가니탕에 빠졌다. 그래, 락 페스티벌은 바로 이 맛에 오는 거지 by 김상민





벨 앤 세바스찬

17:30 빅탑 스테이지

헤드라이너 매시브 어택의 공연만 아니었다면 이날 최고의 공연은 벨 앤 세바스찬의 몫이었을 거다.

이날의 숨은 히어로 브릿팝을 좋아하는 사람엔 영국 밴드 벨 앤 세바스찬의 공연이 아닐까? 이날의 헤드라이너-메인인물 거다. 7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한 이들은 영국은 물론 유럽 전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디너 브릿팝의 교과서다. 공연 내내 관객들은 벨 앤 세바스찬이 보여주는 경쾌한 모습에 흥겨움을 감추지 못했다. 신랄한 감흥 속에 개미를 데리우며, 마네 등 노랫말 자체는 결코 평범하지 않던 그런 것 따위 기타리스트의 사방한 영역이름 총 한 방으로 상대하고도 남았다. 어차피 팝이란 장르가 가사를 100% 해석할 수 있어야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록 페스티벌은 자신의 오감이 즐겁다면 유자성에게 그저 몸을 흔드는 걸로 하달하는 게 허락되는 건지다. 물론 10여 년 전 벨 앤 세바스찬이 들려주던 달콤한 음악으로 한계에 다다른 험거운 삶을 위로 받은 팬이라면 감동은 더 배가 됐을 거다.

7월 30일



브로콜리 너마저

20:20 빅탑 스테이지

브로콜리 너마저는 라이브에 강한 그룹은 아니다. 메인 보컬 게미가 빠진 후 벨 앤 세바스찬이 더 신해졌다. 어차피 관객이 원하는 건 리드 싱어만 안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를 라이브로 듣고 싶은 거니 가정력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다. 실제로 공연에서는 게미가 빠진 부분을 다양한 편곡으로 매우려고 노력 이 었고요. 밴드 역시 이날로그로수리이 독특한 문에는 그들의 노래를 매장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공연 중 '중중열차' 라는 곡을 부를 땐 '당신의 청춘 열차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라는 촌스럽고 창가운 멘트를 던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지만 어느새 그들은 그런 스테이지의 메인 무대를 장식할 정도로 커버했다. 이제 그들 역시 맹목금지요청을 무부른 못못하던 그때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맑아다.



뱀파이어 위켄드

19:20 빅탑 스테이지

뱀파이어 위켄드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한 인디밴드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바는 다들 아는 한때 생세이션을 일으켰던 장기(하)와 얼굴들 정도일까? 실제로 이날 공연의 외국 밴드를 통틀어서 장 최고 트랜드한 그룹이었다. 특히 귀엽게 생긴 기타리스트 로스탈 바브망글의 유기기반 악선에 여자 관객은 자라내졌나 흥이 날고 흥이 없었거나 지피자만 백전백승이라 이들에 대해 좀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문 콜롬비아 대학교 친구들이 뱀파이어 위켄드를 결성했고, 졸업 전후로 안드 EP 음반성공 음반과 정규 음반의 중간 형태이 존라안에서 인기를 끌었다. 덕분에 한결 편한 환경에서 작업한 두 번째 음반(Cortex)는 레디디 가가 수전 보일(이베리안 아이들)에서 음악 스타덤에 오른 인물들을 누르고 이날 레디디에서 발매한 음반으로서 언더파워 빌보드 차트 1위를 점령했다. 이들의 음악은 신스 락 음악을 베이스로 아프리카 리프, 덴스, 솔, 브라질리아니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세련되게 조합한 시몬과 매력적이다. 그들의 그룹명처럼 자신에 모인 수많은 관객들은 뱀파이어 위켄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뱀파이어가 퍼져갈수록 신스는 음악을 갈구하며 록 페스티벌을 헤매기 시작했다. 지난 록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장르로 적절한 밴드면, 적절한 공연이 아닐 수 없었다.



매시브 어택

21:30 빅탑 스테이지

문답무형 한디로 최고다, 시랄!

우리나라에서 이들을 직접 본다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물론 이들이 다시 이 땅을 밟아주시기만 한다면 2002년 월드컵의 거미줄엔 저러기라 할 정도로 열렬한 환영호 준비가 되어 있다. 매시브 어택은 트립랩(trip hop) 랩 비트를 기반으로 한 몽환적인 음악의 개척자다. 당신이 미드(하)수를 좋아한다면 이미 매시브 어택의 'Teardrop'을 전후 음악으로 듣고 있던 셈이다. 이 곡은 자그 안의 테이가 노래를 부르는 뮤직비디오도 화제를 모았다. 사실 그들의 공연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다. 이번 록 페스티벌에서 가장 인상적인 공연을 꼽는다면 단연 매시브 어택이 No.1일 거다. 몽기 박스트의 결합이 이토록 훌륭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매시브 어택의 공연을 보며 전연 짐작할 수도 없었다. 그들은 무대에서 시종일관 자신을 숨기고, 노래와 자신들의 메시지에 관객이 집중하게끔 만들었다. 팔레 스타인과 이소라엘의 연소득 차이, 어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과 석유 재벌이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 캐나다와 아프리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차이 등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아니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은 사회적 이슈가 그들의 노래와 하(하)로 영어로 치 관객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관객들은 역시 스페어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들의 공연에 온몸이 소름이 돋을 만큼 공감하고, 열광적인 자기를 보냈다. 특히 '이효리는 표절을 인정했다'라는 문구가 무대 위 전광판에 매를 때 공연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표절을 통해 위대한 밴드의 공연에 일조하게 된 그녀, 처음으로 표절에 능한 분이 가수 이효리가 부러워지는 순간이었다.



우쿨렐레 피크닉

12:00 오픈 스테이지

록 페스티벌에서 건진 진주 같은 그룹!

지난 록 페스티벌의 아침이라고 쓰고 오후라고 읽는다는 열여섯살 우쿨렐레 피크닉의 공연. 하피와 티재의 조태준과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이었던 계미가 힘을 합친 프로젝트 그룹이다. 그룹명대로 흥겨운 우쿨렐레 소리에 맞는 달달한 가사로 사랑의 흥취를 돋게 만드는 편안한 음악이 장이다. 공연 열기에 비해 미친 듯이 흔들기와 미친 듯 S.FerryBMT 몸 던지기 신공을 뽐내 구수한 이들의 심신을 달래기에 적절한 무대였다. 비록 이번 록 페스티벌에서는 오픈 스테이지라는 작은 공간에서 그리 많지 않은 인원과 소동했지만, 조태준의 낭만 가득 배인 가사와 계미의 맑은 음색이 합쳐진 이들의 음악은 지금보다 앞으로의 모습을 더 기대하게 만든다. 올 여름 휴가를 떠나지 못해 우울했던 이라면 이들의 말랑말랑하고 신나는 음악을 방에 틀어놓고 혼자 춤을 추는 걸로 아쉬움을 달래도 나쁘지 않을 거다. 여차피 길 막에 바가지 세 화상 입에 피곤해 휴가 따위 개나 췌

7월 31일

언니네 이발관

19:20 오픈 스테이지

하지만 그들은 결코 가장 보통의 존재가 아니었다.
왜 하려면 그들은 이미 최고의 밴드니까

언니네 이발관을 다른 팀과 달리 만족스런 사운드 튜닝을 위해 공연 일정보다 하루 빨리 지선에 내려왔다. 공연 당일 리허설도 포기하지 않았지만(덕분에 캠핑장의 사람들) 언니네 이발관의 음악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호사를 누렸다. 주춤 속에서 이들을 찬양이라고 여길 만큼 언니네 이발관은 만족스런 사운드를 잡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 입장에서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나라 공연 팀 중에서는 가장 잘 배진 소리를 들려준다. 사람의 패부를 꿰뚫어보는 가사와 무겁고 웅장한 멜로디가 매력적인 언니네 이발관의 콘서트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 다른 공연으로 넘어가지 않고 지켜본 보람이 있었다. 여기에 언니네 이발관의 리더 이석원은 특유의 쉬크한 표정이라고 쓰고 화난 것 같은 얼굴과 출입객 있는 목소리로 뱃살 보이스 공연을 앞둔 관중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빠돌이 역할이석원은 뱃살 보이스의 열혈팬을 충분히 소화했다. 특히 자신이 부른 노래의 상황에 맞게끔 관객을 몰아넣고 노래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이입하게 만드는 재주가 탁월했다. 기타리스트의 능률의 수준은 퍼포먼스 역시 공연의 양면 도를 독특했다. 언니네 이발관이 빅탑 스테이지에서 헤더리너를 이어줄 공연으로 선정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다.



메이트

13:00 빅탑 스테이지

실망할 뻔 했는데 공연이 너희를 실었다.

공연 시작 시간을 20여 분이나 훌쩍 넘긴 메이트 사운드를 잡는다고 관중 앞에서 리허설을 했다. 많았다 하는 동안 공연을 기다리다 살짝 짜증났다. 수많은 여자 팬이 때문에 메이트란 그룹에 대한 시선이 뼈악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그간의 시간을 사죄라도 하듯 노래 한국, 한국에 온몸을 내던지며 무대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겠다 기세로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특히 정준일은 자신의 건반이 부서져도 상관없다는 듯 혼신의 힘을 다한 연주로 팬들의 갈채를 받았다. 악기 소리에 보컬 소리가 묻혀서 메이트 특유의 절규하는 창법이 흥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여성팬이라면 난 너를 사랑해라는 곡을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했을 거다. 아, 하지만 나와 당신은 남자인 말이지..



THIS IS THE NEW ROCK FESTIVAL



펫샵 보이즈

21:30 빅탑 스테이지

그들이 죽기 전에 볼 수 있어 다행이네요! 당시 펫샵 보이즈를 몰라도 월드컵을 좋아한다 면 적어도 이들의 레퍼토리 중 1곡 'GO WEST'는 먹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5천 만장의 음반판매고를 자랑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듀오라는 별칭 생명을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감동을 살생형이엔 덕업이 부족하다. 일렉트로닉 듀오, 그것도 보컬과 O의 조합이라는 성숙한 구성을 한 편의 뮤지컬 같은 파편소스를 통해 파생하는 모습은 공연을 보지 않은 이라면 쉬이 상상하기 힘든 거다. 1986년 데뷔 이후, 200여 년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은 일렉트로닉 록 밴드답게 지금어도 새러팬들이 철철 넘치는 일렉트로닉 음악의 진수를 보여준다. 환각에 가까운 듀오가 그들의 세월이 흔적이 묻어가는 노히트 속에 숨겨진 열정을 풀낸 이날의 공연은 헤드라이너다운 멋진 무대였다. 그들이 공연을 마치고 관객을 향해 펫샵소닉을 외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알지 소닉러를 차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다시 이 땅에 강렬하게 걸출하기 기대된다.



터틀즈

24:00 오픈 스테이지

터틀즈의 공연, 기대 이상으로 흥쾌하다.

그름영에서 알 수 있듯 비틀즈의 카피밴드다. 오픈 스테이지의 단골 주인공인 우쿨렐레 피크닉의 보컬 조태준이 친한 지인과 함께 재미삼아 만든 밴드다. 뮤지션 역시 자신이 좋아하는 유지선의 노래를 부를 땐 땀의 입양으로 돌아가 훨씬 더 흥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 터틀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무대가 너무나 후끈했는지 외국인들이 무대에 난입할 정도였다. 여기에 터틀즈는 자신들이 영국에서 온 비틀즈TM인 양 아슬픈 영예직독 책화가 가능했다로 무대 앞에 있던 이들의 배꼽을 발출시키는 끼를 부리기도 했다. 펫샵 보이즈의 무대에 혼신의 힘을 다한 관객들이 오픈 스테이지에 잠시 쉬러 왔다가 다시금 무대로 밀려가 춤을 추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록 페스티벌 진상 BEST4

어릴 가나 병맛들은 있가 마련.

4위 함부로 물을 뿌리는 녀석

이것 해나면 가워해 된다. 난 뮤지션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가 뿌리는 물 뿌리울 받고 싶지 않다. 정 물을 뿌리고 싶다면 사람들이 무대에 올러 정신을 놓을 틈을 타 적당량을 주머니에 작별이 분신해서 뿌려라. 내가 뿌린 생수통의 물을 한 바가지나 적당해서 머리나 미려처럼 변한 이의 상상을 아나?

3위 꼴리는 대로 담배를 피는 녀석

담배를 피는 건 자유다. 록 페스티벌에서 흡연대를 판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이 정도면 흡연자에게는 눈이 찢을 남만큼 강한 흡연 환경인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춤이 모여 있는 틈 안에서 담배를 피나올 땐 몸을 잡아 쓰러져 담배 연기는 그렸다. 저도 당시의 흡연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이발행의 추위를 갖게 된 사람이 아닐 텐가 나 같은 지성 태생에 매너 좋은 흡연자도 욕을 먹는 게야.

2위 보라는 공연은 안 보고 여자 물만 보는 녀석

그래, 공연 도중에 갑자기 티셔츠를 훌렁 벗는 여자 관객을 보면 남자 관객 당연히 눈이 가자고 눈이 가는 것까진 이해한다 말이다. 그런데 공연 보러 온 녀석이면 적어도 공연을 보려고 노력은 하는 게 정상 아닌가 벗은 여자의 풍광이를 보기 위해 공연 내내 눈길을 굴릴 거라던 록 페스티벌엔 왜 온 건가 그 돈으로 MAMM 장구구대나 마련 말이다.

1위 한국 여자를 딱집 여자처럼 보는 앙기

록 페스티벌에선 외국인들 동네 친구처럼 만나게 된다. 그것까진 좋다. 그런데 왜 록 페스티벌의 주인공인 거들러기며 우리라와 여자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딱집 수 있는 쉬운 여자 취급을 하는 건가 공연이 끝난 새벽 무렵에는 아글글이 양가들이 우리라녀 여자에게 핏뚱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싫는데 왜 그러냐 유 병아! 이것은 너희들 그라온드기야 아닌, 사실을 명심해라. 빌어주을 양기!

록 페스티벌에서 만난 사람들

페스티벌엔 길고, 사람은 많다.

>> 만나서 반가웠던 외국인



사랑의 승리는 역시 우울하다는 걸 보여준 그래 최우현은 한국 공연에서는 걸 증명했음 그들 자신 록 페스티벌에서 만난 반가운 얼굴이었다.

>> 스바루 쿨 1, 2



자신 록 페스티벌에서 가장 고생한 여자 스타 피 하루 중일 스바루 자동차 앞에서 오대록 페스티벌에도 오르면 10대의 카메라 세례를 받느라 고생했다. 그래, 솔직한 인정이었다. 예디 더 강태도 그녀와 같이 사진을 찍었다. 예쁜 여자를 그래처럼 남자가 어디 있었겠나.

>> 닥터 드레 헤드폰



닥터 드레 헤드폰 부스를 지키던 그녀. 헤드폰을 구경하려 갔다가 그녀의 모습에 반해 카메라 셔터가 눌러졌다. 예디가 언박처를 훑어보자 차갑게 외면했다. 아야, 좋다.

>> DJ 현량



이날 공연만큼이나 이곳의 그녀들은 최곱했다.

STREET FASHION

락 페스티벌은 음악을 사랑하는 센스쟁이들의 집합소다. 당상이 비록 이번 자산 락페스티벌에서
절편하게 놀게 못했더라도 이들의 패션센스를 배워 내년을 기약해 보자. by 조영민, 김성현



송지훈(32) QA

선글라스 & 셔츠 & 데님 팬츠 모두 빈티지
슈즈 ZARA
A1, American Apparel / A2, Portishead

Q 그린 컬러 셔츠는 나무와 잔디가 많은 장소와 동화되었다.
컬러풀한 선글라스와 캐리커 브로치, 그린 포인트 시계는
록페스티벌에 알맞는 톱톡 튀는 아이템. 셔츠의 핏이 타이트 했
다면 좋았을 것 같다. 술에 뒤편이늘까봐 겁이 나는거?

우리가 궁금한 것 두 가지?

Q1.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Q2. 좋아하는 뮤지션

김우용(27) 영어 강사

안경 Ermenegildo Zegna
셔츠 A.P.C. / 팬츠 American Apparel
레인부츠 HUNTER
A1, A.P.C. / A2, MUSE



Q 비가 올지도 모르는 야
외 록페스티벌에 어울리
는 레인부츠 선택은 탁월했다.
티셔츠와 팬츠는 톤다운 시키고
핑크빛 셔츠와 그린컬러 레인부
츠로 포인트를 잘 살렸다. 보고
느낌의 등근 안경대신 프레임이
굵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면 더
스타일리시 했을 듯하다.



최진수(28) 삼들이
서인재(29) BROWNBREATH 대표

ALL BROWNBREATH
A1, BROWNBREATH.COM / A2, 최진수 밴드

Q 좌-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 렌닝구' 처럼 보일 수 있는 화이트
민소매 티셔츠를 잘 소화했다. 무릎까지 오는 팬츠, 헌팅캡과
발목 위까지 올라오는 양말을 보면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아이템이지
만 무난하게 소화한 이유는 2가지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우- 삭발한 머리와 블랙 컬러 의상은 강한 인상을 주었다. 큰 키가
아닌데 6루 팬츠를 입고도 다리 가릴까 봐 보이지 않은 이유는 상의와
하의 컬러가 톤온톤 되었기 때문이니 당신도 배워보자.



장아른(25) 대학생

안경 빈티지 / 민소매 티셔츠 UNIQLO
슈즈 Dr. Martens
A1, UNIQLO / A2, Coldplay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무채색 조합이 멋스럽다. 민소매 티셔츠의 어깨 넓이가 넓어 거북스럽지 않고 쇼츠의 밑단을 풀입한 세심함이 돋보인다. 블랙 워커의 마무리가 안성맞춤이다.



JAMES (29) 모델

슈즈 patagonia
나머지는 모두 빈티지
A1, 빈티지
A2, VAMPIRE WEEKEND

헤, 헬로.. 우월한 기럭지와 외모로 입구에서부터 눈에 띄었다. 밝은 컬러 티셔츠와 데님 팬츠로 캐주얼룩을 연출했다. 화이트 컬러의 사각 프레임 선글라스가 포인트로 심심함을 덜어준다.

최장민(25) 무직

선글라스 빈티지
셔츠 & 슈즈 VANS / 쇼츠 Levi's
A1, VANS / A2, The Shins

셔츠와 운동화의 그린 컬러, 셔츠와 양말의 체크 패턴이 조화를 이루어 단정하면 셔츠 센스있는 룩을 보여줬다. 그린이 다리에 울긋불긋 모기자국과 강렬한 컬러 대비를 이룬다. 거기에 스케이트 보드가 생동감을 더한다.



김대현(26) 뮤지션

선글라스 Ray-Ban
티셔츠 & 데님 베스트 & 슈즈 모두 빈티지
A1, 빈티지 / A2, VAMPIRE WEEKEND

블랙컬러를 바탕으로 자연스레 물 빠진 데님 베스트와 그레이 글렌 체크 팬츠로 빈티지한 룩을 연출했다. 바지 허리선과 베스트 아래 부분이 어정쩡한 게 좋다. 대, 대단한 어정쩡함이다!



낭만 무협을 꿈꾸는 新무협의 아버지 용대운

(태극문)으로 신무협의 시작을 알린 그는 이번 작품 <군림천하>로 신무협의 세계를 완성할 기세다.

신무협의 세계를 연 대표 작가다.

신무협이란 장르를 만들었던 의도는 없었다. 다만 기존 무협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싶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신무협이 되어 있더라. 이제는 신무협에 대한 아쉬움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소재, 방법으로 무협 세계를 풀어나가는 제3의 무협이 등장하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무협지를 보면 최소한의 맞출법도 지적하지 않는 작품이 너무 많다.

인터넷에 올린 습작을 그대로 출판하다 보니 그런 경향이 심해졌다. 소재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참신한 친구들이 많다. 글을 쓰는 트레이닝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작가가 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과 주인공이 있다면?

작품은 권당 판매 부수가 최고 수준인 (태극문), 주인공은 가장 비극적인 (독보간곤)의 노독행이다. 그는 끝까지 어떤 여자와도 맺어지지 못했다.

신무협의 양대 산맥인 좌백과 당신의 차이점이 있다면?

좌백은 철저한 현실주의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에는 철저한 사실이 밑바탕으로 깔린다. 나는 무협이란 세계가 가진 낭만, 그곳에 사는 사랑의 생활,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재미를 추구한다. 기존 무협에서 벗어나려는 발상은 같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다.

당신 작품의 주인공은 언제나 우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작품을 구상할 때 스토리보다는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실 무협지에서 나올 만한 스토리는 이미 다 나온 상태다. 중요한 건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인물이다. (태극문)에서도 그랬지만 주인공을 남성적이고 의리 있는 사람으로 그려내다 보니 후속한 시련을 선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공은 시련을 극복하면서 한층 더 매력적인 인물로 성장하고, 독자들은 주인공의 모습에 감

정을 대입해 울고 웃는다. <군림천하> 역시 마찬가지다. 몰락한 정문문파의 우두머리가 문파를 다시 일으킨다는 건 흔한 스토리다. 하지만 여기에 나만의 색깔을 집어넣었다. 주인공 진산월은 강하지 않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캐릭터다. 그래서 독자들이 <군림천하> 2부에서 진산월의 '80' 달라진 모습에 더욱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 같다.

그에 비해 주인공의 라이벌은 잘나 데다 신사적인 기가끼 하다.

사실 잘나가는 명문정파의 주인공이 개천만일 경우는 드물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굳이 그렇게 그럴 필요도 없었다. 각자가 추구하는 지향점이 있고, 자신의 입장에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주인공의 반대편에 선 것뿐이다. <군림천하>에서도 평면적인 악역이 아니라 입체적인 악역을 그릴 필요가 있었다.

<군림천하>는 몇 권으로 완결할 생각인가? 기다리느라 한가증이 날 지경이다.

이미 스토리는 머리 안에 다 들어 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다. 빨리 끝내려고 마음먹는다면 등장인물을 얼렁뚱땅 한자리에 모아 죽이면 그만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까지의 <군림천하> 스토리가 무의미해진다. 복잡하게 꼬여 있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려면 3, 27권은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 같다.

20권이 넘는 긴 호흡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방법이 궁금하다.

일단 캐릭터를 만들 때 음모를 꾸미는 캐릭터와 그렇지 않은 캐릭터,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다. <군림천하>의 주인공 측에서는 진월산과 동중산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는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양 진영에서 마리를 쓰는 이들이 서로 만나게 하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길로써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복선이 깔려 있다. 여러 가지 음모가 계속 겹쳐지니까 독자가 보기엔 이야기가 치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다.

MAXIM이 만난 무협지 3대 천왕

그들에게 무협은 또 하나의 삶이었고, 그들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무협의 역사가 되었다. BY 김성현

신무협이란?

강한 무공과 기원은 무협 소설의 단골 소재다. 하지만 이 건 개인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 기원 1900년대 구무협은 아무 맥락도 없이 "길들 가져다 여의주를 주었고, 이걸 먹었더니 천하 제일이 되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여기에 틀린 다른 여자와 짝을 채운다. 사랑이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 여기에 반발해 등장한 게 신무협이다. 그들은 무협 소설도 사랑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아닌만큼 그들의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에도 당시 구무협과 신무협의 가장 큰 차이는 작품에 고민이 담겨 있는지 여부인 거다.

必讀書

용대운이 추천하는 작가

고효웅 중국 3대 작가 중 한 명이다. 무협지 마니아라면 꼭 한 번 찾아볼 것

미러야 무주. (내부라고 설명하면 이해가 더 빠르겠지만?)

레이먼드 찬들러 미국 범죄 소설의 대가. 현대 범죄 소설은 이 작가를 빼놓고선 이야기할 만 없다.



작가 소개

용대운은 신무협의 요시 객인 (태극문)으로 유명한 작가다. 그의 작품에서 주인공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단선적인 인물이나 무도를 통해 지위를 완성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여기에 무협이란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낭만적인 요소도 빠뜨리지 않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그를 흔히 '신무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다. 무협자라고 무시했다면 그의 필력에 큰 코 다칠 거다.

용대운의 인터넷 즐거 찾기

그가 즐겨가는 사이트는 이곳이다.

DVD 프라이م 이곳은 전문 시사의 보고대
dvdprime.dreamwiz.com

문피아 다양한 작가의 글을 감상할 수 있는 곳
www.munpia.com

와이드리얼 TV 장편의 핵막 Adult Video 정보는 아님
www.wassada.com



PHOTOGRAPHS BY ARC STUDIO

용대운의 대표작

당신을 낭만이 넘치는 무협 세계로 초대할 작품이 여기 있다.



태극문

1990년에 절필했던 용대운의 복귀작이다.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자신이 가진 것을 완벽하게 갈고 닦으면 능히 최고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주인공 조지건을 통해 보여준다. 신무협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무협 소설도 결국 사람을 다룬 소설이다"라는 작가의 생각이 잘 녹아 있다.



독보건곤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은 주인공 노독행이 기면으로 얻은 무쌍류라는 실전 무예를 통해 업고 복수를 위해 나선다는 내용이다. 무협이란 장르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복수'라는 테마를 다뤘지만 용대운의 필력이 더해져 비장미 넘치는 작품으로 거듭났다. 남자 냄새 나는 거친 무협 소설이 읽고 싶다면 추천할 만한 작품이다.



군림천하

우리나라 무협지 역사에 한 획을 그을 걸작이다. 물락한 명문정의 장문인 지산월이 '군림천하' 무림에 군림해 종남파의 사대를 열라는 의미』 하라는 사부의 유지를 받들어 끊임없이 정진하는 모습을 그렸다. 신무협의 끝을 보여주는 작품이며 건권이 출판된 상태(대영일 기준). 더 이상의 설명은 의미 없다. 백문이 불어일겁니다!

작가 소개

자신이 보고픈 무협 소설이 없어 직접 쓰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화제가 된 작가 좌백은 용(대오)과 함께 신무협 양대 산맥이라고 불린다. 사실주의에 뿌리를 내린 무협 소설이 특징인데, 무림이라는 배경은 재치하면 일면 소설과 리드 및 인물 묘사와 상화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인상적이다.

좌백의 대표작

그를 왜 신무협의 양대 산맥이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거다.



대오

영웅 정파의 주인공 나부랭이 영웅담은 깨자라! 하급 무사 대오와 그 알린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책을 펼친 순간 그들의 행보에 일취일화하게 될 거다. 하루하루를 투쟁하듯 살아가는 그들과 지금의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생사투

좌백이 (박주어 파이더)라는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 집필한 작품. 못생긴 파계승 흑자가 운명을 사용해 생사 투쟁을 하는 빅투어를 비장한 세상과 맞서 싸운다. 훗날엔 주인공이 아닌 것이 일단 마음에 들고, 책을 향해 거침없이 자신의 몸을 내세우는 그를 보노라면 남자의 힘이 느껴진다. 이게 바로 진짜 사나이



천마군림

재미를 극한으로 추구한 작품이다. 무협 소설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는 이 시대를 해를 모두 맛볼 수 있다. 무협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던 마교가 천하를 지배하고 있다는 설정만으로도 유쾌하다.



비적유성탄

기본 무협의 전제를 박살내버린다. 무림에서선 흔하지 않은 경기 감각 때문 나오지도 않고 천하제일이라는 주인공 용일은 영웅의 형상에 발 발 뻗어, 양천에게 사기를 당할 정도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 호쾌한 무협 세계를 기대한 독자들의 배신감에 지를 뿜 수도 있지만 좌백이 그려내는 반역무협의 세계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어떤 무협지보다 재미있는 작품일 거다.

推薦

좌백이 추천하는 작가

소설 크러저 켈리즈나의 (산들의 시화)

미야케 미유키의 (연판 집)

시마리야의 (음미향화)

영화 지코 반 도야메 감독의 (토트의 천국)

유리엔 뒤베네 감독의 (4의 천중 마리아느)

진적성 감독의 (연인) 영화의 결사단)

오늘 근황이 궁금하다.

(대오)의 속편 (혹풍도하) 5권 작업과 동시에 인터넷 교보문고에 (대오)의 칼이만 작품을 연재 중이다.

(대오) 속편을 기다리다 목이 빠지는 줄 알았다.

속편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작년이 돼서야 (대오)의 속편 (혹풍도하)를 쓸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지금도 새로운 글을 쓰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우려막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란 걱정을 지우기가 힘들다.

‘좌백’이란 필명이 독특하다. 특별한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에서 우(右)는 ‘오른쪽’ ‘바른’으로 양하는 데 반해 좌(左)는 글자는 삐딱하게 받아들여진다. 좌백의 ‘좌(左)’ 역시 그런 맥락이다. 일반작가나 평범하지 않아도, 설명 붙이지더라도 나만의 시기를 갖겠다는 뜻이다. ‘백(白)’은 구부림 없이 딱딱하게 자라는 잣나무다. 나 신성과 관정을 펴바로 밀고 나갔다는 의미다. 한마디로 좌백은 ‘백작하지라도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는 의미다.

철학파를 졸업해서인가? 당신의 작품은 무협 세계를 배경으로 한 사실주의 소설 같다는 평도 있다.

배경 등장인물, 주요 사건까지 행으로 점철했는데 사실주의가 가능할 리 없다. 하지만 작품을 쓰는 무렵은 거짓말자라도 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진공의 한 자리를 묘사할 수 있다. 한 편의 우화가 진리를 표현하는 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철학을 전공한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무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피엔딩은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희생을 담보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무협은 (행악처럼 비극적 정서가 주는 카타르시스)로 심상을 정화하는 장르가 아니다. 해피엔딩을 언급한 건 그런 맥락에서다. 그렇다고 주변인에게 무슨 짓을 했던 주인공만 절대로 끝내려 소리 아니다. 요즘 무협 소설이 이런 경향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절된 거다. 작가는 장르가 무엇이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고민을 작품에 담아내야 한다.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 작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겠나?

최근 쓴 작품이 가장 낫다고 생각하기에 (비적유성탄)을 고르겠다. (혹풍도하)의 연재가 끝난 뒤 멀리질지도 모르겠다.

최고의 작가는 국내 무협 소설 작가 중에선 당신이 최고라고 할까. 당신이 볼 때 신작가가 중년 누가 최고인가?

사실주의에 뿌리를 둔 신무협의 개척자

左栢



우리나라 작가의 무협 소설은 읽은 적이 없다. 잘 썼으면 질투나 나고 못 썼으면 화가 나니까 말이다. 그래서 신신작가는 아는 바가 없다.

당신 아내 진산도 (정파) 같이만 걸성정신 무협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다. 부부가 함께 작품을 쓸 생각은 없나?

서로의 작품 세계는 인정하지만 그게 막상 내 작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공동 작업이 쉽지 않았다. 내가 쓴 부분을 진산에게 보여줬더니 몇몇 부분을 수정해 둘려준 적이 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상한 부분이 있어 다시 고치고 보니 진산이 손을 댄 부분만 다시 읽어봐도 바뀐게 없었다. 그 순간 진산의 공동 작업은 포기했다.

한때 연개소문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도 준비했다.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라면 작품을 쓰는 일이 만만치 않을 거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한때 중국 당나라 시절의 전기 소설 (규광전)의 주인공과 연개소문이 동일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했는데 공부해보니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둘의 활동 시기는 20년 정도 차가났다.

(新作 이야기)를 그린 권가야 작가와 절친한 사이라고 들었다. 다른 작품을 함께해볼 생각은 없나?

권 작가는 자신의 단편소설을 인화로 그리고 있다. 이 작업이 끝나야 할 것 같다. 구두로는 얘기해도 상한다.

우리나라 만화의 마지막 자존심 권가야

재미와 감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가. 거친 남자의 손질이 돌아나는 작품이 보고 싶은 이라면 그의 이름을 기억해둘 것



작백의 <대도>를 재해석한 1999년 작품 <남자 이야기>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다.

인기 작가? 하지만 2002년 동안 길거리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

<남자 이야기>는 1999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수상할 만큼 인기가 높은 작품이었다. 당시의 신상에 장님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일간지! 아마 3년 정도는 더 늘어 보였을 거다. 현재 기간이 딱 그만큼이었으니까(웃음).

투박한 무뎠 소실 <대도>가 미래를 배경으로 한 사이버 스타일의 <남자 이야기>로 거듭날 거라 생각한 독자는 많지 않았다.

미려 작가의 작품을 선택할 걸 그랬다(웃음). 작백이란 인간의 인성이 꽤나 형상났다. <대도>를 만화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험한 인성까지 무뎠을 정도로 깊었다.

당신 작품은 흥내 낼 수 없는 선 굵은 그래픽과 과감한 화면 구성이 매력적이다.

"천만일쯤 천 권의 책이 하나의 법령처럼 똑같은 의미고, 내가 지향하는 길이다. 본질적 요소를 담아 변하지 않는 법규와 민주인권 법칙처럼 단순함 속에 모든 걸 이루어 수 있는 보면 일품적인 한 획을 늘 꿈꾼다. 언젠가는 단순함에 보편성을 녹여내 진짜 간결한 그래픽을 선보이고 싶다."

대부 작품 <해와 달>을 연재한 소년지 <아이큐 점프>는 폐간된 지 오래다. 요즘엔 만화 잡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만화가 입점에선 기술이 막역하겠나. 변화의 흐름을 가늠할 순 없다. 다만 동춘국단의 배우가 자신이 설 무대를 TV에 남겼을 때처럼, 종이 매체를 모니터가 대신하는 걸 지켜보자니 가슴 한 편이 아련할 따름이다.

역시 <남한산성>의 두는 왜놈에게 겁탈당하는 여염집 아내를 비롯해 일진왜란에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실(事實)을 민초의 시선에서 다뤘다. 독자로서 불만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사람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 다윈의 <최후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접했을 때였다. 대신 불만만 이야기였지만 사람다움에 대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넓은 시각을 갖게 해줬다. <남한산성>도 마찬가지다.

일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조롱했던 당시의 아내네 사생활을 비문에 자살하는 지못의 19세 소녀나 민초의 삶이 고통스러울 건 마찬가지다.

사실 <남한산성>만 작품에서 그들을 고통스러운 삶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구일지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다.

당신의 작품은 미국의 '그래픽 노블'처럼 만화의 수준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눈으로 보는 소설이라고 부르는 게 적당할 거다. 이런 필리피의 작품 한 권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권당 6개월 정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농땡이름을 즐기려고 보낸다(웃음).

참가는 웹툰 작가는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다고 들었다. 웹툰으로 진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고려 중이다. 돈을 많이 번다니 앞으로 참가는 웹툰 작가에게 술을 한잔 언약되어도 되겠다(웃음).

MAXIM의 딱딱 투철!

그들의 작품을 MAXIM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대은 작백 권가야 세 작가는 모두 윌리엄즈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만 있다면 언제 지체는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윤대은의 <대군>, 좌백의 <대도>, 권가야의 <해와 달>을 불만적인 경료가 아니라 MAXIM에서 만나볼 수 있겠다! 생각이 해도 짜릿하지 않은가?

작가 소개

권가야는 <해와 달> 남자 이야기 두 편의 작품만으로 이미 거장 반열에 올라섰다. 작품의 재치는 물론이고 일반 작가의 천안만천을 극한 그래픽을 우주로 보충하려는 과감하고 창조적이며 뛰어난 철학적 성격과 과감한 대대 그래픽과 화면 구성은 우리나라 만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권가야의 대표작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만화가의 작품 정도는 행거되어 하지 않겠나?

해와 달

권가야의 데뷔작이다.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무뎠 만화로 마-마 총을 일산했다. 아직도 <해와 달>의 열혈팬들은 언젠가 연애? 재개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을 정도. 외부 요인으로 두인부가 끝나지마지 강세 총류됐지만 사람들에게 권가야라는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작품이다.



남자 이야기

좌백의 <대도>를 사이버 스타일의 작품으로 재해석시킨 작품. 수많은 남성 독자의 가슴에 불을 붙인 이 작품을 '남자처럼 남자만의 이야기'였다. 이는 표지 문구만큼 대교롭게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마포드도 모습 안 숨어 있는 사투를 남자의 감성을 절묘하게 그려냈다. 특히 작품 초반에 보여준 좌백의 필리피는 우리나라 만화 중 최고라고 꼽을 만하다. 신성한 '남자의 로망'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만화다.



푸른 길

한일 합작 만화로 <마스터 키튼>의 스토리 작가 에드워드 케이시가 스토리를 담당했다. 팬들 배경으로 한 범의 스릴러물이다. 우리나라, 일본 중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밸런스가 일품인 작품. 대중적인 인기는 <남자 이야기>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편이다.



추천

권가야가 추천한 작품

이야기꾼이 추천하는 작품들을 모아봤다. 읽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거다.

소설 최명희의 <훈문>

골린 맥칼로우의 <가시나무 새만정호 씨의 일변)> 야사! 자유의 <칼에 자다>

영화 <아름다운 나라> 감독의 <클로저>

스티븐 달도르 감독의 <책 읽어주는 남자>

감독은 감독의 <가족의 탄생>

권문 소설 윤대은의 <군림현호>

진희의 <가시나무>

임동욱의 <권만기>



박순희 전쟁史

사치를 오돌오돌 떨게 만드는 박순희의 전쟁 같은 역사.
BY 김연혜 PHOTOGRAPHS BY ARC STUDIO

박순희는 굉장히 배타적인 집단이다. 자신들과 바깥의 경계를 단단하게 세워놓고 그 경계를 공격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 심한 반감을 내보인다. 대신 내부는 '우리의 오빠 혹은 아기(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를 중심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 내부에서 나오는 스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수용하지만 외부의 비판은 용서하지 않는다. 즉 까도 우리가 깔 데나, 너네들은 짜져 있으란 거다. 그래서 박순희는 외부와 더 단절되지, 박순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해왔기에 공공의 적이 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겠다(나도 살아야 하니까).

박순희 족보

박순희는 1900년대의 '한복족'에서 시작해 '고무신족', '청바지족', '장발족', '공순이족', '오빠 부대'를 거쳐 탄생했다. 한복족은 영화와 악곡을 즐겼던 기성, 고무신족은 영화배우를 보러 고무신을 신고 극장을 찾던 30~40대의 아줌마 부대, 청바지족과 장발족은 TV 문화가 유행하던 포크송에 열광해 머리를 기르고 청바지를 즐겨 입었던 대학생들 말한 다. 여기까지는 대중문화에 합류되었다기보다 주체적으로 대중문화를 즐겼던 집단으로 볼 수 있겠다. 이제부터가 대중문화, 그중에서도 특히 스타를 일방적으로 추종하고 숭배하는 '종교 집단' 박순

희의 효시다. 1960년대 후반과 70년대 초반 나훈아와 남진의 팬 증언 공장의 여자 근로자가 많았다. 이들을 비하하는 말로 '공순이족'이란 단어가 나왔으며, 이후 오빠 부대가 공순이족의 전통을 계승한다. 1980년대에 등장한 오빠 부대는 주로 조용필의 팬으로, 10대와 20대로 이루어졌다. 조용필은 지금 팬클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공식 팬클럽도 모았었다(공식 팬클럽의 상말표는 '고추장자리'). 그들은 아직까지도 조용필의 한강 축하 이벤트를 필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빠 부대는 서태지와 아이들 세대에까지 이어지며 슬슬 변화 양상을 보이다가 H.O.T. 세대가 등장하

면서 박순희로 진화했다. 팬클럽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했고, 따라서 활동은 더욱 극성스러워졌다. '박순이'란 말은 '오빠순이'의 줄임말로, 술집 여자나 밝히는 여자를 비하할 때 쓰는 은어다. 드디어 팬덤 현상을 설명하는 단어 중 가장 부정적인 단어가 등장한 거다. 이는 팬덤을 향한 시선이 더욱 차갑고 잔인하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팬덤이 사회 변방으로 돌리며 점차 '박순희'로 변신하는 과정, 박순희가 벌여낸 차참한 전쟁들, 그리고 지금 박순희가 겪고 있는 또 한 번의 진화 양상을 차근차근 설명해준다.

서태지 세대 << 박순희 vs. 끈대

1990년에 데뷔한 서태지와 아이들의 존재감에 대해에선 굳이 아이기블 하지런 지이 아니다. 그들을 (정확히 말하자면 서태지들) 대장 이라 부르며 따르던 박순희에 대해 아이기블하저런 지이언 모자란다. 그리고 그들을 박순희라 부르기도 좀 헛헛하다. 굳이 기사의 통일성을 위해 그들을 박순희라 지칭해 글을 쓰도록 하겠다(그러나 제발 진정하십시오).
 ※ 서태지 박순희에 대한 자료는 주로 김원경 <원문진 (한국근대문학 2009년) (원문진 조화 크고그) 그 정지상 서태지 팬클럽을 중심으로>를 참조했음을 밝혀둔다.
 서태지 박순희도 처음엔 비호적적인 형태였다. 자발적이고 분산적인 형태의 다양한 박순희 집단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다. 이에 기획사에서 전국의 박순희를 모아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1년여 만에 운영능력의 부재로 박순희 집단은 해체된다. 하지만 이는 박순희가 더욱 자율적이고 다체제를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조성해준 시간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다체제를 무슨 활동을 했나? 그쵸?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4집을 내면서 박순희의 싸움은 시작됐다. 당시는 가수들이 앨범을 내기 전 '김팩'에 가까운 검토를 받아야 했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공연윤리위원회가 4집 수록곡 중 '시대유감'의 가사 수정을 요구하자 서태지는 쓰촨하게 가사와 보컬을 삭제한 연극용 앨범에 실었다. 그러나 공연윤리위원회는 4집에 수록된 두 곡의 가사가 사전 제출한 내용과 다르다는 폐쇄된 핑계를 대고 음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다. 박순희가 일어났다. 김하 우리 대장의 앨범을 판매 금지해? 라는 마음이 컸을 거다. 박순희는 공연윤리위원회의 참배 서명운동을 실시하며 집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음반의 사전 심의와 사후 처벌 제도는 완전히 폐지됐다. 박순희의 승
 박순희는 점점 성장한다. 2000년. 또 프로그램에서 서태지의 컴백을 까고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이는 이유로 박순희와 언론 간의 전장이 발발한다. 박순희는 프로그램의 광고주들 설득하는 등 언론이라는, 싸워도 쪽 팔리지 않을 집단과 전쟁을 시작한다. 물론 이 외에도 대장을 향한 충성심이 전장의 불씨가 되었다. 박순희의 광고주들 설득하는

대성공한다. 결과는 역시 박순희 승! 그들은 서태지의 정신을 계승함과 동시에 스케일이 큰 전쟁에 참여하면서 성장했다. 점차 자신의 대장을 위해 해서가 아닌, 대장의 정신에 가슬리든, 죽 사회 큰 대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하는 전쟁을 벌이기 시작 했다. 그 후 온라인 팬 커뮤니티인 '태지매.10'의 '매체비평클럽'과 '태지촌'의 '대중음악만 바꾸기'위원회의 가 연합해 '가요 순위 프로그램 폐지 운동'에 참여했다. 이 역시 박순희 승! 가요 순위 프로그램은 하나를 문을 닫았다. 박순희는 전쟁을 위해 기존의 왜곡된 대중음악계, 낡게는 왜곡된 사회를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이다. 대중음악에서 대중문화로, 대중문화에서 사회적 문제로 범위를 넓히거나 이루어진 이 전쟁은 박순희가 일구린 전쟁 중 최고의 전쟁이었다.

H.O.T. 세대 << 박순희 vs. 박순희

자 이제 완벽한 박순희 나오신다. 세대 박순희의 집단은 H.O.T.의 데뷔 시기와 맞물리는 1990년 후반에 등장한다. H.O.T.의 성공으로 비슷한 콘셉트의 아이돌이 우후죽순 데뷔하면서 그야말로 박순희의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졌다.

H.O.T.가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 당시 4만여 명의 박순희가 집결했고, 우리 문화살림이 다지면서 200여 명의 박순희가 그 자리에서 실선했다. H.O.T.는 10대의 우상이자 신이었다. 그런 H.O.T.에 대항하는 그룹이 있었다. 스포트한 이미지의 화이트 키스 3명과 터프한 이미지의 블랙 키스 3명(뽀이)이 모여 결성한 잭스키스. 각자의 박순희는 각자의 우상에 미쳐 있었고, 마친 두 집단이 만나 피 튀기는 전쟁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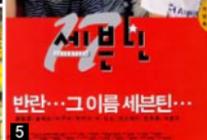
1999년 KBS 가요대상 반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H.O.T. 박순희와 잭스키스 박순희 집단이 붙어 그중 영적이 병행에 실려간 시간이 있었다. 서로 "우리 오빠가 낫?"과 "우리가 더 결국 주먹이 날아간 거다. 결과는 의외로 잭스키스 박순희의 승(꼭수로 밀어붙였다는 말이 있던 하디만 그 외에도 박순희 간의 자존심 대결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시간의 환원을 제공했다. "잭키 문보잡은 우리 애초티 오빠들 모방해서 나온 거거든?" .

"야, 우리 잭키 오빠들이 더 질렸거든?" 등 손발이 짝스키스 오빠들이다. 이유는 전쟁은 발발했다. 특히 공연 현장은 두 박순희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38선이 그려진 곳이다. 소녀시대들 울게 한 최악의 공격 '침묵시위'도 이때 등장했다. 박순희는 여자 가수나 라이벌 그룹이 나오면 침묵을 지키거나 생육을 해했다. 시야는 공연에서도 전쟁은 벌어졌다. 박순희들은 다른 박순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테러하고 해킹하며 기습공격을 일삼았다. 그러다 잭스키스가 해체되면서 두 박순희 집단은 극적으로 화해한다. 화해의 손을 내민 건 H.O.T. 박순희 측.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며 "너희 여성 명수 수정을 영합할 비리다"고 따뜻한 말을 건네며 영원한 우정을 제안했던 것이야. 아예든 훈훈한 마라톤이요.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박순희들의 우리 오빠를 향한 '외로'에 있다. H.O.T. 세대의 박순희는 근본 없는 집단을 가장 싫어했다. 죽이 오빠도 좋고, 저 오빠도 좋다. 우우부딘한 소녀는 박순희가 될 자격이 없었다. 오빠를 향한 사랑이 극도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다른 박순희 집단과 자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박순희의 대 박순희의 싸움은 잭스키스가 해체하고, H.O.T.의 2200년을 배경으로 한 3D 축구영화제작 비가 우리 70억 원(나 들었다) 출연이라 자작곡 앨범 수록 등 열망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박순희의 대기현사의 싸움으로 옮겨갔다. 잭스키스가 해체한 뒤 잭스키스의 소속사 시장의 차를 박순희들인지 (알고 보니 리모콘 조영망의 차였다) 불발한 영구. H.O.T.의 소속사에서 집중 투자 대상은 보아로 바뀌었다 보아를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 오빠 지키기'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전쟁의 방법이 무적정거 없는 악성 루머를 뿌리는 등 너무나도 유사했다.

1. 90년대 전성 서태지와 아이들
2. 신부주의 서태지도 햇빛엔 이렇게 찬질했다.
3. 서태지와 아이들 여름 앨범 모습
4. H.O.T. 팬클럽의 상징 8각자카드와 위대한 공연장
5. 잭스키스 팬클럽의 상징, 노란색이 만연하지 않네
6. 잭스키스가 출연한 화제의 영화 (세븐틴)
7. H.O.T.가 주최한 30명의 (영화의 시대)



GOD 세대 << 1세대 박순희 vs 2세대 박순희

※ 1세대 박순희에 대한 자료는 주로 박순희음 2009의 <<god 스타덤과 팬덤을 친중태양을 밝히었다.>>

이들은 1세대 박순희가 2세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말하자면 15세대 변종 박순희라 할 수 있다. 기획사와의 전쟁에서 발리거나 한 14세대와 달리 15세대 박순희는 소속사와 제대로 된 한판 승부를 겨뤘다. 박순희는 '박준형 퇴출 파문'이 일자 팬클럽 연합을 결성해 소속사 상층 불매운동, 서명운동, 광고 등의 활동을 통해 끝내 박준형의 퇴출을 막아냈다.

G.O.D 박순희가 소속사 JYP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1세대 박순희처럼 '오빠'를 향한 맹목적인 사랑 때문이다. 이 박순희는 주로 G.O.D가 G.O.D의 육아(육아)를 하며 폭풍 같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팬덤에 찍어오며 후발 주자였다. 둘째, 이들은 다음에 나올 2세대 박순희처럼,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키고, G.O.D를 보호하기 위해 싸웠다. 당시 연예 산업은 인기가 오르면 마음껏 부러덕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평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소속사의 요구를 무시하는 '기압'의 철폐에 박순희가 들고 일선선 것이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박순희는 G.O.D가 데뷔하기 전 혹은 늦어도 데뷔 초에 형성된 순수 혈통의 팬이었다. 초반엔 소속사와 같은 입장에서 G.O.D의 건강이나 스타일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등 G.O.D를 '보살피다'가 소속사의 철폐에 등을 돌린 것이다. 후발 주자 박순희와 순수 혈통 박순희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팬은 없었다. 그래서 G.O.D의 인기가 한창 무리들을 무렵엔 후발 주자 박순희와 순수 혈통 박순희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순수 혈통 박순희는 후발 주자 박순희를 두고 "극성만이다"고 욕했고, 후발 주자 박순희는 순수 혈통 박순희를 두고 "노랑(주)로 나이 든 팬이 많았다" 주제에 돈으로 밀어붙인다"고 욕했다. 하지만 이 둘은 '박준형 퇴출 파문'을 중심으로 손잡고 연합해

기획사와 대대적인 전쟁을 실시한 것이다. 순수 혈통 박순희는 대체적으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조직적인 전술을 쓸 줄 알았다. 후발 주자 박순희는 수적으로 우세했고, 행동력도 훌륭했다. 이 두 집단이 뭉치면? 게임 오버다.

동방신기 세대 << 박순희 vs. 기획사

15세대 박순희의 강점인 갖출 강력한 인연방기 박순희가 등장한다. 2세대 박순희는 '극성만'에 스타를 '기우'라고 하는 욕망이 강했고, 동시에 '소비자로서 권리'까지 요구할 줄 알았다. 또 불쾌하지도 했다. 아이돌에 대한 박순희의 사랑은 평균 2년으로 단축되었다. 아마저 우상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내 상봉에 대한 집착에 더 가깝다. 더 이상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않는다. 대신 '아기'라 부른다. 즉 2세대 박순희는 '팬'이라기보다는 유행하는 스타를 찾아 옮겨다니는 '소비자'에 가깝다. 그리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쟁을 시작했다. 누구랑? 기획사랑.

2세대로 넘어오면서 언급해야 할 그룹은 동방신기다. 즉 동방신기 박순희가 가장 무섭다는 말이다. 2009년 동방신기 박순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사가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거기엔 2011.07.03의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소속사가 일주일 전 콘서트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이고도 했다. 동방신기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해 기획사에 항의 메일이나 전화로 일삼는 것은 기본이다. 또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기획사의 주주가 되기도 한다. 슈마주니어 박순희는 소속사 측에서 멤버를 한 명 더 추가하려 한다며 '팬주' 운동을 통해 당시 약 1억여 원 상당의 주식 5만182,206주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승자는 박순희가 아니다. 박순희의 공격력에도, 그들은 기획사와의 전쟁에서 매번 졌다. 동방신기의 멤버들은 어찌됐든 다시 모이지 못할 것이다. 기획사의 결정은 결코 번복되지 않는다.슈마주니어

의 경우 새 멤버 영입 소식은 헛소문으로 밝혀졌다. 박순희가 아무리 분노해봤자 그녀들은 기획사가 만들어낸 또 다른 아이돌을 소비하며 기획사에 계속 돈을 대를 거다. 막강의 파워를 자랑하던 박순희가 전쟁에 패배하는 걸 보고 있자니, 애처롭다.

동시에 2세대 박순희는 뇌를 벌나리라고 보면 막강 박순희를 상대로 내부 전쟁을 시작했다. 동방신기 박순희는 '동방신기 팬 버로잡기 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동방신기 콘서트가 열릴 당시, 그가 매진되기 전 재빨리 구입하기 위해 연습 삼아 다른 가수의 콘서트 표를 대량으로 예매했다가 대량으로 취소하는 행위, 다른 가수에게 막말을 하는 버로잡기 없는 짓거리 등을 서슴없이 해대던 박순희를 교육하기 시작한 것. 박순희 집단의 고위직인 팬클럽 임원이나 기획 운영진은 새로 박순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신임을 달라고,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킨다. 스스로 성숙한 소비자가 되겠다는 결심 하에, 내외의 전쟁까지 감행한 것이다. 막강 박순희와의 전쟁 역시 내부적으로는 승리했음진 모르나 외부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다. 막강 박순희의 젊음은 행동을 그냥 덮어버리지만, 그 업적이 너무나 부끄러워 때문이다.

WORDS

박순희 용어 사전

아이돌처럼 싸워진 못했잖아.

공파: 공식 카페의 줄임말

공홍: 공식 홈페이지의 줄임말

슈타: 유에프오아이의 줄임말. 이 웹사이트를 통해 스타의 문자를 주고받는다.

강한: 강한 친구들의 줄임말. 강한 친구들은 공연 현장에서 활동하는 안전 요원을 말한다.

사냥: 스타의 사생활을 캐고 다니는 팬

정말 황이다: 최강인간의 별명인 '황'을 이용한 언어 유희의 일종

우대초: 우유에 대한 유전자의 줄임말

두주주주주: 비스트의 멤버 '유두주'의 이름을 이용한 언어유희의 일종



2PM 세대 << 박순희 vs. 당산틀

2PM 박순희도 기획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참패한 적이 있다. 소속사가 재팬을 탈퇴시키자, 박순희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2PM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설정을 듣기 위해 소속사와 긴박까지 마련한다. 상통 불매운동, 서명운동, 광고, 집단 시위를 하여 공격해왔지만 참패했다. 박순희를 조사하기 위해 간 2PM 콘서트 현장에서 소녀들은 '재팬'이 가만 나오면 고개를 떨어뜨리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2PM 박순희가 벌이고 있는 다른 전쟁에선 박순희의 승리가 확실한 듯하다. 그럼 박순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바로 당산틀이다. 2PM 박순희는 변장술을 사용할 줄 안다는 점에서 2세대 박순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스파이 작전.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는 거다. '일교'라는 말 들어봤나? 일반인 코스프레의 일종일테. 아이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일반인인 척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이들을 일컫는 단어다. 당산틀이 박순희에게 자주 쓴다. 박순희를 해대니까 박순희는 꼭꼭 숨어버렸던 거다.

2PM 콘서트 현장에서 소녀들이 에디터에게 했던 가장 많은 말이 "콘서트는 그냥 기획이 생겨서 온 거예요~"였다. 다들 자신은 '우리 아가'를 좋아하긴 하지만 '박순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광하진 않는다고 했다. 2PM을 평생 사랑할 자신이 없다는 질문을 던졌다가 본 에디터는 미친년 취급을 받았다. "나중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 '알도 해야 하고', '다른 아이들도 좋기 때문'에 한 명만 죽주고 좋아하진 않겠다'는 거다 그래놓고 다들 콘서트 때 소리 지르고 난리 났대라?"

이거 정말 위험한 공작이다. 당산틀 눈앞에 연막탄을 던져놓고, 그것도 오지마. "나도 박순희가 싫다"며 당산틀을 속인다. 언제 역습을 당할지 모른다. 당산틀 앞에서, "그 애가 누구냐"며 눈을 동그랗게 뜨는 그녀도 새벽까지 학원가리며 인터넷을 뒤지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녀가 박순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박순

희가 아무리 연막작전을 펼쳐도 이 순간만큼은 건디기 어려운 거다. 그녀의 우상을 바네해보라. "나는 육해도 좋은데, 우리 아가는 육하지마"라는 짜늘한 반응이 돌아올 테다.

이 긴 전쟁사의 결론은 이거다. 박순희가 실서발 발아래했지 당산틀에 돌아오는 건 박순희의 더 큰 발키다. 우리 그대, 재들 내버려두자.

SPORTS FANS

스포츠 스타 박순희

80, 90년대를 휘어잡았던 스포츠 스타. 그들을 옹고, 웃고, 무성케 했던 팬의 행동들. 아 지금은 우리를 울고, 웃고, 무성케 해네.

서장춘

한 팬은 서장춘에게 해부용 쥐를 골게 써서 선물로 보냈다. 이에 서장춘은 골짜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 마술 동안 놀라 먹지 못했다. 장신 사정들. 더 이상 키 크지 말라고, 살도 빠지 말라고 팬의 눈물겨운 애도 생 각.

한주엽

한주엽의 엉덩이를 만지고 삼킨 소녀 팬들의 마음은 소녀 팬들의 몸싸움에 그의 바지가 벗겨짐으로써 갈기갈기 찢어졌다.

강동희

사랑하는 아내. 운운하지 않는 날에 삼삼하지 말고고 전자계입기를 보낸 한 팬.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가 전자계입기를 선물받은 후 삼삼할 태만 운운하는 게 일생이네 됐다는 걸.

이만기

자금은 스폰서에서 동태 배보 아저씨로 활용하고 있지만 80년대만 해도 이만기는 하루 50여 통의 편지를 받는 스타 중의 스타였다. 싸움일 열리는 곳은 언제 나 그들 보기 위해 차림의 풍용을 보이는 아저씨팬들이 북적거렸다. 반면 이만기에게 항상 발랐던 이분장은 '영자친' 총 하라 는 격려 편지를 자주 보냈다고.

선동렬

선동렬 때때로 상상병에 걸린 처지도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사랑의 열병을 앓고 드러났다. 선동렬이 3월 동안 그녀를 만나 돌아왔다.

AIR FIGHT

박순희 풍선 전쟁

이거 진짜 진짜한 거다.

필 버킨다 V.O.S 팬클럽과 워너즈S 팬클럽이 충돌한 적이 있다. V.O.S 팬클럽이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워너즈S 팬클럽은 어영 봉로 응원 도구를 교체했다.

헛망크와 연명크 2세대 팬클럽이 헛망크 색상을 선택하자 3세대 팬클럽은 '헛망크 색상 풍선 지지서 영웅들'을 발한 적이 있다.

노란색 잭스카S 팬클럽과 보아 팬클럽이 충돌한 적이 있다.

필 아쿠아 새나S 팬클럽과 SSSO 팬클럽이 서로 색상이 비슷하다며 대치 중이다.

필 사파이어 블루 FT아일랜드 팬클럽이 이 색을 선택하자 슈비니어와 팬클럽과 충돌한 적이 있다. FT아일랜드 팬클럽이 개장하고 응원 도구를 새로 짓기로 고쳐했다.

SOLD OUT

방간색 물론 2012년 유승준 팬클럽과 진영 팬클럽이 방간색 풍선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인 적이 있다. 한회는 동방산기 팬클럽이 사용한다. 그리고 현재 아무도 방간색을 넣을지 않았다.

흰색 HOT 팬클럽의 양생은 아저씨까지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신민지 색상 터 이생 색상 풍선이 없다는 걸 걱정한 싸의 팬클럽은 검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신민지 풍선을 넣어 응원 도구로 사용한다. 규칙이 있다면 신민지 풍선을 흔들어도 때 신민지가 깰아면 안 된다는 것.

동색 다른 아이돌 팬클럽과 개인 컬러 팬클럽이 선택한 색상이 충돌이 다 거가고 하나 남은 색상이 동색 싸움에 열었다.

하늘색 여러 풍은 G.O.D는 이 풍선 색깔을 주제로 노래까지 만들었다.

FANFIC

팬픽에 대해 당신이 알고 싶지 않은 사실들
여자들이 레아급 로르노를 볼 때 이런 기분이었는지? **헛...헛...헛...**

주 캐러터는 '공(공)과'와 '수(수)대'. '공'은 내 성격이고, 어두우며, 비내교적인 성격으로 재빨리 나하고 땅이 있다. '수'는 쾌하고, 사회적이여 겸양한 인모의 가능한 집사여이 했다.

'공'이 '수'를 감장(하)거나 노에 허급을 한다. '수'는 '공'에게 사랑을 느낀대응기.

'공'과 '수'는 모두 남자다.

아이돌이러면 팬픽에서 한 변명은 '공'이나 '수'의 역할을 맡는다. 즉 팬픽에서 한 변명은 다 따른다. 그것도 같은 남자 팬에게.

하지만 GOD 박준형은 팬픽에서 보조 역할을 나오거나 이에 등장하지 않았다. 헛...

팬시 사이트에 남자는 가입이 안 된다. 어찌해 기입할 마음도 없었지만.

2008년 동방산기의 소속사는 팬픽 공모전도 열었다. 대상에 상금 100만 원과 멤버들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상 이하로 명명제중상, 최강 칭인, 시이준수상, 유노윤성상, 막이유천상이 있다.



1. 아이돌 최초로 누나팬 박누나를 양양한 GOD
2. G.O.D 팬클럽의 상징인 하늘색
3. 2세대 아이돌 대표 동방산기
4. 동방산기 팬클럽의 상징인 푸른색 양아 누나서원
5. 2PM 콘서트 현장에서 2PM
6. 2PM 콘서트 현장에서 2PM

CAVALRY CAPTAIN

THE WARLORD

요아킴 뮐러

돌격은 나의 힘

BY 이상한 WORDS BY NASICA

애
이 끝까지
어렵.



Giac.



▲ 나폴레옹 왕이자 프랑스 제국의 황후이며 나폴레옹의 제1연인 요아킴 무라

나폴레옹의 부하 장군 중에 정당한 인물인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눈에 띄는 독특한 사나이가 한 명 있었으니 아편 달 MAXM에서 선정된 명장 요아킴 무라(Joachim Murat)가 그 주인공이 되시겠다. 무라는 여러 주인의 아들이 태어나 스무살의 나이에 기병대에 입대해 5년 만에 장교가 되어 나폴레옹과 동고동락하여 왕의 자리가 오른다. 나폴레옹의 부하 중 왕좌에 오른 이는 베르나도트와 무라 둘뿐인데, 베르나도트는 나폴레옹 버프와 무관하게 스웨덴 왕이 되었으니 나폴레옹이 직접 왕위에 입하준 사람은 무라가 유일한 셈이다. 물론 나폴레옹의 매제였다는 게 임팩트는 컸지만 무라가 나폴레옹의 대규모 전투에서 수차례 승리를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 쿠데타를 진행하다가 500인 의회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는 나폴레옹. 이때 나폴레옹을 옹호한 저 두 척만 병은 나중에 조세페에게 감사의 저서 시사 초대를 받게 된다.

나폴레옹의 출세에는 내가 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무라 없이는 나폴레옹의 출세도 없었다. 역사책에 자주 등장하는 로베스피에르의 몰락 이후 권력층에서 완전히 멀어진 나폴레옹은 공적만으로 정찰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그를 단번에 대통령 형님 못지않은 권력의 실세로 만들어준 일이 발생했는데 바로 친왕당파들이 일으킨 방데미에르(Vendémiaire, 포도달) 13일의 반란 사건이었다. 이때 반란 진압의 책임을 맡은 나폴레옹은 수많은 반란자를 죽은 속의 국인 공회 군대로는 대적할 수 없다고 보고, 과감하게 파리 시내에서 대포 화력으로 반란자들을 진압했다. 이때 나폴레옹의 명을 받아 기병을 이끌고 그 외에 있던 대포를 반란군보다 2배의 차이로 먼저 손에 넣어 나폴레옹의 반란 진압을 성공하게 해준 주인공이 바로 요아킴 무라였다.

나폴레옹의 여동생을 데려다

방데미에르 작전의 인연으로 무라는 나폴레옹과 함께 이탈리아와 이집트 원정에 참여하여 나폴레옹의 신뢰를 한몸에 받는다. 특히 브뤼메르(Brunaire, 안개달) 19일의 쿠데타, 나폴레옹이 총재 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한 사건 당시 척탄병수류탄을 멀리 정확하게 투척하기 위해 뽑은 병사들을 지휘해 500인 위원회를 끝장내는 공로를 세운다. 이러한 공로로 무라는 나폴레옹의 여동생 캐롤린 보나파르트와 결혼해 나폴레옹의 매제가 된다(여인숙 아들이 박정희 여동생과 결혼하게 된 격). 하지만 캐롤린 보나파르트는 무라가 브뤼메르 쿠데타에서 공을 세우지 못했다고 해도 무라와 결혼할 확률이 높았다. 무라는 질생긴 외모를 가진 장신의 굵실머리 남자여서 여자에게 인기가 대폭발이었으나 말도 다(에나) 자급이나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한다. 당시에 기병대를 남민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생긴 기병 장교이고 이름다운 귀족 처녀의 사

랑 아이라는 그림도 잘 맞아떨어졌다. 실제로 무라는 전형적인 기병대 사나이였다. 그는 저돌적이고, 용감하고, 강인한 데다 호탕했다.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군사과학이나 치밀한 군사작전엔 재능이 없었다. 한마디로 기병대 지휘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이었다. 실제로 무라는 나폴레옹의 기병대를 지휘해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대표적인 것이 동프러시아 이말라우(Cytau) 전투의 활약이다. 1807년 2월 동프러시아의 매서운 추위 속 에 베나히센 장군의 러시아군과 이제 막 예나-우어슈타트 전투를 마친 나폴레옹군이 마주한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의 약점이 그대로 드러나버렸다. 지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양이었던 폴란드와 동프러시아의 도로망 때문에 나폴레옹은 특유의 기동성을 살리지 못한 데다 설상가상으로 병력까지 분산시켜버렸다. 프랑스크은 두렵한 열세를 보였고 나폴레옹 자신이 포로가 될 위기를 겪을 정도였지만 지원군 다부 원수의 지원 병력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남은 병력이라고 기병대밖에 없었다. 나폴레옹은 이만사민의 심정으로 무라에게 돌격 명령을 내렸다.



▲ 몽칼름 평야 인근 해산 강까지 넘달라 넘달라 하게 소환할 수 없는 호미 갈기도 전혀 두렵스름치 않았던 오스트리아 왕 무라



▼ 1807년는 알인 이말라우 전투에서 무라가 지휘한 프랑스 기병대의 돌격



▲ 1821년 보르디노 전투에서 프랑스 총사령관들의 일련 역대장관이 역대 2대, 역대 3대 위는 어렸다는 것이지?

이때 위리의 활약은 정말 눈부시다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80여 개의 편대를 돌로 나누어 적의 기병대를 공격한 후, 동프러시아 지역 특유의 안개를 이용해 적의 보병대를 그대로 관통했다. 이후 부대를 재편성한 후 말머리를 돌려 다시 금 적의 보병대를 관통했다. 이 돌격에서 병력의 15% 정도를 잃긴 했지만 덕분에 다부 원수의 지원군이 도착할 시간을 벌었고, 적의 포병대를 제거해서 아일라우 전투가 패배로 끝나는 걸 막을 수 있었다. 이때의 기병 돌격은 역대 나폴레옹 전쟁을 통틀어 최고의 돌격이라 할 만했다. 더 대단한 사실은 이때 위리가 지휘한 80여 개의 기병 편대(약 11,000명) 돌격은 단일 규모로는 당시까지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때의 돌격은 라이프치히 전투, 보르디노 전투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다. 사실

라이프치히 전투, 보르디노 전투의 기병 돌격 역시 모두 위리가 지휘했고, 4위 규모였던 드레스덴 전투도 그가 지휘했으니 기병 돌격을 이야기할 때 위리를 빼고서는 말이 되지 않을 정도다.

기병 지휘관으로서 위리의 천재성은 좀 더 작은 규모였던 1798년 아부키르(Aboukir) 전투에서 더욱 빛났다. 당시 이집트를 점령한 프랑스군을 몰아내기 위해, 이집트의 원래 주인인 투르크 제국은 영국 해군의 시드니 스미스 경의 군함에 2만 명의 투르크 육군을 태워 아부키르 만에 상륙시켰다. 이때 투르크 군의 세이드 무스타파(Said Mustafa)는 당시의 무능한 투르크 지휘관과는 달리 러시아군과의 전투로 다져진 유능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프랑스 보병대에 기병 돌격을 무의미하다고 보고 해변에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장

기전을 펼칠 준비를 했다. 이 방어선을 공격한 프랑스군은 투르크의 두 번째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일단 후퇴를 선택했는데 이 방어선을 뚫어난 것이 바로 위리의 기병 돌격이었다. 그는 투르크 병사들이 방어선 밖으로 나와 프랑스군의 부상자를 살해하는 틈을 타 기병을 이끌고 전방격차처럼 방어선으로 들어닥쳤다. 우왕좌왕하는 투르크 병사들을 따라 투르크 방어선 안쪽으로 침투하는 데 성공한 위리는 그대로 무스타파의 친위까지 도달해서 그를 사로잡아버렸다. 전해서는 말에 따르면 이때 무스타파는 위리의 군도에 손가락 두 개를 잘렸고, 무스타파가 쓴 권총에 위리는 턱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위리는 “다행히 나의 (색수한) 입술은 무사하다”는 농담을 했었다(넌 좀 영이신 듯).

그렇지만 1821년 러시아 원정에서 패한 후 파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군대보다 먼저 귀국한 나폴레옹은 위리에게 후퇴의 총지휘를 맡겼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나폴레옹 본인이 남았더라도 결과가 얼마나 달랐을지 의문이지만). 당시 나폴리 왕이던 위리의 자위가 가장 높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친안적인 일을 수 있기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위리의 지휘는 엉망진창이었다. 그 이전에도 나폴레옹은 위리의 총지휘관으로서 자질에는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전투 전에 지도도를 자기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나폴레옹은 위리를 보며 “그는 지도조차 없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며 물들거렸다. 위리 역시 “내 작전 계획은 적군이 눈앞에 있어야 만들어진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할 정도였다. 사한교와 출신의 엘리트 장교인 나폴레옹이 숲을 볼 줄 알았다면 군사교육을 받지



▼ 1798년 아부키르 전투 - 그런 가운데 저 환한 빛 속의 인물이 위리 아니고 또 누구겠습니까?



▲ 위라의 초상화. 이렇게 절쟁긴 내 얼굴에 두뇌까지 요구해다니. 당시 일러스트

못한 사병 출신의 위라는 나무밖엔 보지 못했던 셈이다.

위라도 말년복은 박했다!

안타깝게도 위라의 말년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1831년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 나폴레옹의 몰락이 거의 확실해지자 그는 나폴레옹을 배신하고 연합국 측에 붙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은 나폴리 왕 신분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순진하게 생각했던 거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행동은 나폴레옹의 여동생이자 위라의 부인인 카롤린 보나파르트의 코드걸 때문이었다. 사실 보나파르트 집안 고향서 니를 보면 놀라진 않은 일이다. 그녀는 자신과 남



▲ 남편의 정치적 브레이크 역할을 자처하여 결국 남편을 밀어낸 아내이자 나폴레옹의 여동생인 카롤라인 보나파르트

편의 자유와 부가 오빠에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물렸던 모양이다.

위라는 당당한 철학자 연하군에게 바람잡고, 니폴리 왕국의 원주인인 부르봉 가문의 페르디난드 4

세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난다. 뒤늦게나마 위라는 알바 성에서 탈출한 나폴레옹을 찾아가지만 그의 배신에 분노한 나폴레옹은 그를 문전박채했다. 사실 이전 나폴레옹 처지에서든 큰 손실이었다. 1851년 워털루 전투에서 네이(Ney) 원수가 아닌 위라가 프랑스 기병대를 지휘했다면 전투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위라는 코르시카 섬으로 피신했다가 칼리브리아(Calabria)에서 반란을 일으켜 다시 나폴리 왕국을 되찾으려 했지만 반란은 제압당하고 속죄 페르디난드 4세에게 잡혀 한발 범죄자처럼 병사에게 총살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이때 총살대의 장교는 그에게 눈가리고와 의자를 권했지만 그는 모두 거절하고 이렇게 말했다. "내 눈을 죽음을 무릅쓰았거야 이젠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네" 그러고는 당당히 서서 아내의 모습이 새겨진 보석 장식에 키스를 한 뒤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내 얼굴은 상하게 하지 마라! 가슴을 겨냥해서! 발사!" 당대의 꽃미남으로서, 기병대의 용감한 대장으로서는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위라다운 희곡만 최후였다.



▲ 남자는 죽을 때도 간지나게... 나폴리 왕 위라의 최후



▲ 남자는 죽고난 뒤에도 간지나게... 그의 시체는 그를 지독하게 증오했던 페르디난드 4세에 의해 중범죄자들의 시체를 버리는 구덩이에 버려졌다고 하는데, 현재 그의 무덤은 파리 시내의 유명한 묘지인 페르 라셰즈(Père Lachaise) 묘지에 있다. 이 묘지에는 위라의 동료 원수들이었던 오주로나 맥도널드 뿐만 아니라, 비제, 발자크, 소생 같은 유명인들이 함께 묻혀 있다.

ABOUT HIM

위라, 그를 말한다.

주인인의 눈에 비친 위라의 모습!



"내와 함께하면 그는 내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였다. 그에게 적군 4~5천 명을 무찌르라고 명령하면 그는 반개처럼 위라가 적군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는 혼자 내버려두면 체포도 편지도 내지 못하고 우물하게 행동했다."

—나폴레옹(Napoleon)

"그는 정말 용감했지만 사실 군사적 재능은 별로 없었다. 적군 앞에선 기병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었지만, 기병대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제16엽기병(Chasseur)의 한 장교

"힘이 장사였다. 근데 허다 심을 정도로 용감했고, 전투의 위험 한가운데서도 중상임을 정도로 향했다. 저 우아한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적군인 코작 기병들로부터 아주 특별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폰 루스(Von Roos)

BRAVE TEST

기병대의 명예

이것 하나만 용기 인증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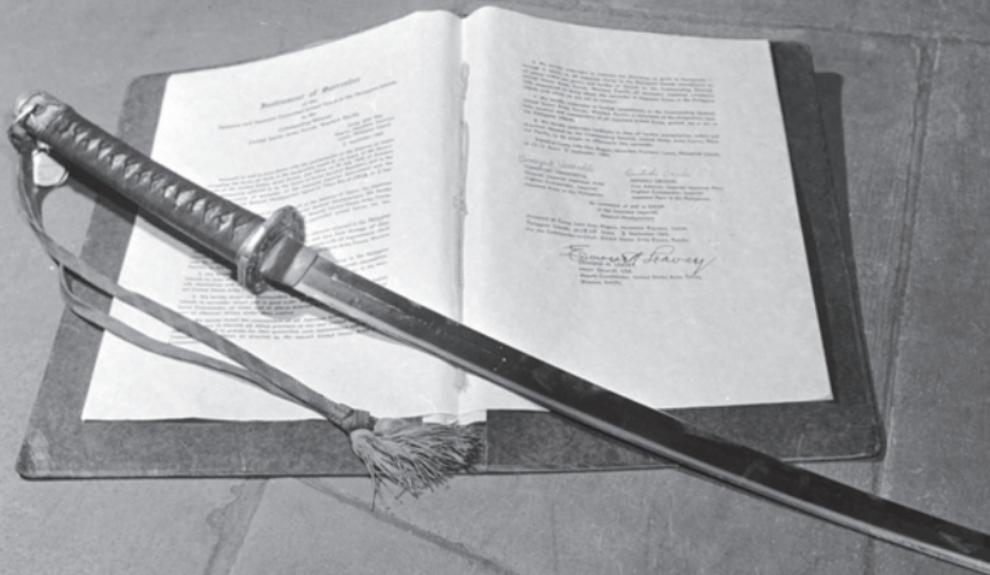
오빠, 나 너무 무서워...



나폴레옹 전쟁 당시 장교들이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는 가장 명예로운 경험은 부상 외에 자기가 탄 말이 적탄에 쓰러지는 것이었다. 용기 하던 때지 않는 무라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다. 1807년 하임스베르크(Helmstedt) 전투에서 그는 적의 포병에게 쫓겨 들러를 강행하러 적 대포의 신탄에 맞고 쓰러졌다. 다행히 그는 말과 한쪽 강아지 안경을 썼었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내렸고 전투에 뛰어 들었다. 그 공중도 위라의 용감성은 당대 최고였다. 그는 항상 눈에 띄는 화려한 군복을 입고 병사들의 전투에서 적군의 대포와 소총 침입에 몸을 던졌다. 위험 앞에서 망설임이거나 두려워하는 법이 없던 용장 중 용감이었다.

칼의 천국과 지옥,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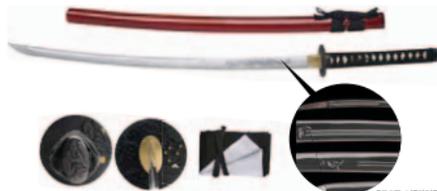
전통 일본도에게 그곳은 천국이요, 그것이 아닌 칼에게 그곳은 지옥일 지어다. BY 김성한 WORDS BY 히스터 슬린



일 본 칼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정평이 나 있다. 그중에서도 일본도는 강철을 별 정도로 강도가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신이 열광한 만화 《비람의 검심》에서 시무라이가 들고 다니는 칼이 바로 일본도다. 일본에서는 이런 도검류(형도 포함)를 우라나리처럼 소지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날이 시퍼런 일본도는 물론이고 신포 못지않게 잘 보존된 것들도 날개 달린 듯이 팔린다. 녹이 슬어 폐품 일보 직전이거나, 너무 많이 써서 무손 용도(로) 날을 갈아내고 고쳐왔지 전투용으로 쓸 수 없는 것, 최근에 만들어진 것까지 거래량도 많고 종류도 다양, 각색이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칼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로서는 무림다 못해 배가 아플 수준이다(무서운 일본 놈들 같으니) 하지만 세상은 만화 《강철의 연금술사》의 대사처럼 등가법칙이란 게 적용되는 법 아니겠나. 일본은 일본도가 아닌 칼에게는 자옥이나 다름없다. 돈만 있으면 칼을 구하는 게 누워 딱치기이고, 찻집 종사자와 전업주부들이 일에 침을 뱉기며 구하고 싶어 난리인 고급 칼이 신재한 일본이 칼의 자유라니! 무슨 소리인지 영문을 모르겠던 표정을 짓고 있을 거다. 이 이유는 차근차근 설명해주겠다.



1945년. 우리나라가 나라를 되찾은 바로 그때의 이야기다. 일본은 미국을 제지했다고 실례발을 치다가 핵미사일 마사지에 항복했고 미국은 바로 군정(GHQ)을 시작했다.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돌기 넘치는 왜놈의 반지가 아택적을 향해 소총에 칼을 단 후 아택 땅-시, 기미가제(단하게 말해 자폭) 공격에 학을 뿜는 열도의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지상 과제를 세운다. 특히 마카파 같은 자살 행위는 일본의 '무도'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단단한 미국은 겁도내 비롯해 도검류를 이용하는 모든 무도를 금지했다. 특히 반지가 아택에서 일본군에 휘두른 일본도에 붙었던 미국은 일본도 모두를 몰수해서 없애겠다고 베풀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무장이 해제된 일본군의 군도를 시작으로 칼이란 같은 모조리 분해해서 용광로에 처넣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군도를 처리하다 보니 민간인들이 소장한 전통 일본도가 산더미처럼 있다는 걸 알고, 이것들 또한 용광로에서 쇠물로 대량단결하게 하려 했다. 미국에 딱실상당해 돌돌이를 세울 힘조차 없던 일본이었지만 수백 년 동안 지켜온 일본도가 한 큐에 용광로로 다이빙할 무기에 처하자 기막힌 공수를 들고 나왔다.



일본 사관(하단)

그런 바로 "일본도는 무기가 아닌 공예품이다. 미술품이다"라는 드립이었다. 사람을 싸는 칼 중에서도 대표 주자 격인 일본도가 무기가 아니라서 미군 쪽에서 "이건 무슨 게드림이야?"라는 반응을 만드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일본도를 지키겠다는 목표 아래 돌돌 뭉친 왜놈들은 그런 정리라고 해본 적 없던 일본도를 세세한 항목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흔히 일본도 칼날에 새겨진 물결무늬를 히런(刃紋)이라고 부르는데, 제작자와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패턴을 보인다. 장문이다 도검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에 하온의 문양이나 누가 만든 도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하온은 쇠에 그린 하나의 작품이라고 부를 만큼 예술적 가치도 뛰어나다. 일본인들은 이런 하온의 종류를 다양하게 분류해서 열처리, 손상을 보호하는 쓰비(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끼어 방패 역할을 하는 부분) 등 일본도의 온갖 세세한 것들을 다 구분해서 일본도 도검학을 정립해냈다. 여기에 일본도는 현대적인 고탄소강을 쓰지 않고 전통 강철을 사용한다는 드립도 덧붙이니 천하의 미군정(GHQ)도 골통통이 대부분인 일본도를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덕분에 전통 일본도 칼날을 끼운 장교용 군도 역시 대부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대신 도마뱀이 괴리를 자르듯 현대적인 공정으로 양산한 부사관용 군도(하온도 없고, 새로 만든 거라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는 알뜰 없이 용광로 형 급형철재에 탑승시켜 열 변은 양키들의 마음을 달랠다.



일본에선 전통 일본도가 아니라면 이 정도 길이의도검 소지는 용도 못 본다.

이후 일본에서는 민간인의 무기 소지를 금지했다.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경우 소지하려면 반드시 도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일본의 도검 소지 허가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서 박물관이나 학자의 연구 용도가 아니면 법규가 까조자 힘들 정도다. 물론 일본도나 일본 칼 같은 전통 무기는 '무기'가 아니라 '공예품'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니 나하게도 일본도를 살리기 위한 자책 덕분에 일본은 그 외의 칼에는 자유이 된 거다. 예를 들면 현대적인 나이프, 고탄소강으로 만든 사람의 칼, 장검, 전통 방식이 아닌 현대 기술이 들어간 일본도는 모조리 무기로 분류되어 소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서 말한 부사관용 군도를 소장하는 것도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처벌을 받으며 도검 소지 허가도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런 도검을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간단하다. 칼날을 싹둑 잘라 15cm 이하의 토막만 만드는 거다. 일본법(리터리 마나)이 총검을 소지하기 위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전교용 군도도? 길이 따위 상관없다. 공예품이니까 그럼 횡검용 같은? 길이가 1m나 되는 참지 해체용 같은? 상관없다. 부위칼에 불과하니까 말이다.



인도의 디피카(Deepika)의 도검. 진정한 악령 도검의 끝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에서 500~1,000달러만 지불 수 있는, 현대 기술과 강철로 만든 품질 좋은 모조 일본도들도 일본인은 손가락만 뻗고 구매하러 한다. 서양의 통소나 세이버 같은 도검도 마찬가지다. 날 써야할 만큼 많지도 않나?는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구매할 수 없다. 일본 법령(총포도검등류규칙)에 해외의 도검은 일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서양 검을 구입할 방법은 있지만 이런 서양 검처럼 생겼을 뿐 휘둘러봤자 제대로 벨 수도 없는 정식품이나 다름없다. 날 따서 세우지도 못한다. 일본의 (법조도검류규칙에 따르면 로크웰 경도(HRC) 40 이하의 도검은 무기로 취급하지 않기에 수입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로크웰 경도가 50 정도는 되어야 칼 구실을 할 수 있다. 40 정도면 막장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인도의 디피카(Deepika)라는 곳의 도검들은 로크웰 경도 40 이하라서 수입이 가능하네 이곳 제품은 페트병만 베고 손잡이가 흔들리고, 나무를 베려고 하면 날이 휘어 버릴 정도로 인습의 강도를 자랑한다. 비뿤 말하면 그 정도 막장급 도검이 아닌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던 소리다. 결국 일본은 전통 일본도에 한해서는 천국이지만 그 외의 칼에 대해서는 모조리 차가운 도시 여차처럼 지옥 같은 나라로 변해버렸다. 어떤가? 일본 A의 어이없는 성기 모자이크 기준 못지않게 도도에 관한 기준도 독특하고 재미있는 나라 아닌가?

ARTIST

PHS BY ARC STUDIO

3IVE(남연성, Zto, D.Theo), 필로알토, B-FREE, Minco, Kebee, 꿈틀하고 학생들(최지은, 정선비, 강소리, 권혁준)

NT 조상진
www.mizy.net) SYSTEM HOMME, HAZZY(S02-546-7764) BROWN BREATH(www.brownbreath.com)

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이
회가 열릴 예정이다.

인 말인데, 한마디로 벽화
더 준비한 행사로, 125개국
매거진 MAXIM이 어피 이
남자 4~5명은 충분히 누
류 화합의 뜻을 담은 12가
1동, 다문화, 음악, 치료장

촌), 영웅, 여성, 원주민, 동화, 유명인을 선택해 그림을 그
리면 된다. 그림을 이어붙여 만든 벽화를 피라미드 형상으
로 만들어 이집트의 실제 피라미드 3개 옆에 전시한다. 그
크기가 짐작 가지? 기네스북 최장 길이, 최대 인원 참여로
기록될 예정이다.

→ARTIST

MAXIM은 각 분야에서 잘나가는 아티스트에게 그림을 그
려달라고 배웠다. 당신은 이집트로 보내주지 못하지만, 당
신이 그린 그림만큼은 이집트로 보내주겠다고.



아티스트에게 물었다

1. 프로젝트 참여 이유
2. 그림의 의미
3. 나는 어떤 사람
4. 그러나까 한마디로 나는...
5. 아성에게 아담하는 나만의 비밀
6. 나의 가장 착한 모습/ 사랑한 모습
7. 올가을~겨울 활동 계획
8. MAXIM에 나와서 오늘 기분이() 하다
- 9.유지선만 응답) 자신의 노래 중 추천 곡



여성(아크릴 물감과 스프레이, 150 x 360cm)
by ORCFINGA, GUMOTT(SUPACRGS Crew)

당신네는 누구인가?

SUPACROGS Crew(수퍼사커스 크루),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타투아티스트를 중심으로 기타 여러 장르 아티스트가 모인 Urban Art Crew로 2002년부터 모였다. 공식 멤버는 7명으로 그중 4명이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했다(www.supacrogz.org).

MAKARIO (마카리오)

1. 기네스북에 올랐서
2. (p.129 캐릭터 담당) 자연으로 돌아가기 전, 폭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가는 것을 못어넘기는 모습
3. www.makariogim.com
4. MAKARIO
5. 없다
6. 늘 착하다
7. HABITS_8in
8. 진지

JODAE (조대)

1. AMMP 뜻이 좋아
2. (p.129 레터 담당) 직선을 이용해 인위적인 도시의 느낌을 표현
3. www.jodae.com
4. JODAE
5. 강한 인상
6. 돈 있을 때/ 술 마셨을 때
7. 재빨리 같다
8. 없다 더원

ORCFINGA (오펙핑가)

1. 일이 바빠서 그럴싸한 이유를 대고 쉬고 싶어서
2. (p.130 캐릭터 담당) 여성의 원초적 이고 마초적인 힘
3. www.orcfinga.com
4. ORCFINGA
5. 없다
6. 언제나 착한 편
7. 나도 같이
8. 비 와서 축축

GUFMOTT (거프모트)

1. 최근 분리수거를 시작함과 동시에 평화 관련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2. (p.130 레터 담당) 여성의 원초적인 힘
3. www.gufmott.com
4. GUFMOTT
5. 없다
6. 친구에게만/ 가식없이에게
7. www.habits.co.kr
8. HOT



모든 티셔츠는 NIKE
MAKARIO가 입은 티셔츠는 워렌 티셔츠는 직접 제작
ORCFINGA가 입고 있는 반츠는 BROWNEREATH



환경(아크릴 물감, 150 x 360cm) by 민문기

당신은 누구인가?

신인 아티스트, <퍼블릭아트> 2010 선정, <월간 사진> 2010년 4월 선정,
(ASAFA) 2010 선정 작가.
사진과 회화의 영역을 넘나드는 작업을 한다 (www.minjunki.com).

민준기

1. 재밌어 보여서
2. 지구온난화
요즘 너무 더워 다 녹아내릴 것 같다
3. 잔잔한 느낌이 모든 것
4. 아티스트 민준기
5. 없다. 없어서 지금 작업만그림, 전시회) 한다

6. 부푼을 잘 들어준다/
들어줄 수 있는 부푼만 들어준다
7. 율기를 헤아리면서 전시가 있어서
준비하고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계속 작업하고...
8. 아꽃

P.S. 작업을 도와준 윤나리님 감사합니다.
생고기 한번 즐겨요.



꽃잎 컬러 프린트 198,000원
컬러 셔츠 198,000원 모두 HAZZYS
그림 컬러 프린트 226,000원 SYSTEM HOMME

평화(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Zlo, D.Theo(SOUL DIVE)



영웅(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장기교, 김로일토

동화(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Kebee, 꿈틀학교 학생들



평화(아크릴 물감, 75 x 180cm) by 넉넉산(SOUL DIVE), B-FREE, Mnos

당신네는 누구인가?

>> 합업을 사랑하는 음악인

Minos와 Kebee 프로젝트 그룹 ELLUPHANT 멤버, Minos는 대구 출신 래퍼며, 일상을 관조하게 좋아한다. Kebee는 소울컴퍼니 CEO*도 하며, 통화 직위가 되고 싶었을 정도로 흥민한 그의 감수성이 묻어 나 있는 필모일투:

S.O.U.L DIVE: 인피니트 플루우 출신 닷업산과 Brown

장기교: 목소리 해니-레노 노래의 감아를 더하는 국내 몇 없는 부드러운 감미로운

B-FREE: 하와이에서 자라 가시가 없고 거칠기는 표현이 특상인 래퍼

1 Minos (마이노스)

1. 친한 형이 오해서
2. 세상이 좋은 음악으로 평화로웠으면 한다.
3. 대구의 여름보다 더 뜨거운 MC
4. 아가씨
5. 댄스가 좋다
6. 나쁜 척할 때/ 착한 척할 때
7. ELLUPHANT 새 음반 작업에 집중
8. 오묘
9. God Loves Ugly: 음악을 시작하게 된 내용을 솔직하게 담았다

7 정기고

1. 친한 동생이 부를
2. 누구나 다른 이에게 영감이 될 수 있다
3. 노래와 놀아져서 형구는 것을 좋아함
4. 궁정
5. 잘해주지 않기
6. 시원할 때/ 더울 때
7. 정규 음반 작업
8. 최종
9. byebyebye

2 Kebee (키비)

1. 취지에 동참해서
2. 통화 속 세상만큼 순수한 공동체와 학생들
3. 합업 유자선이자 레이블 소울컴퍼니 대표
4. S.O.U.L
5. 반대로, 눈 맞추기
6. 음악할 때/ 술 마실 때
7. ELLUPHANT 2집 활동
8. 나이스
9. 박셀광주: 가시가 좋다

10 닷업산

1. 의미가 좋아서
2. NO WAR, NO CRY
3. 한에서 말하는 표현.
4. 넌츠
5. 음악
6.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음악 만들 때
7. 음악 활동
8. FUNNY
9. Free Thought

3 팔로일토

1. 우리가 그런 그림이 아깝도록 전시된다니!
2. 모든 사람이 영웅
3. 음반 기획사 H-Life Records 공동 설립. 올 4월 20일에 Lonely Hearts EP 발매
4. 필모일투
5. 진심으로 있으면 통한다
6. 없다/ 꽤 순간
7. 몇 개의 디지털 싱글, 정규 앨범 발표를 예정, 현재 앨범 중
8. 마치 유명해진 듯
9. 졸업기

11 D.Theo (디테오)

1. 같은 그룹 연습생이 불려서
2. Love Is Everything!
3. MC, 작사가 음악과 야구를 좋아한다
4. 말
5. 정면 승부
6. 밥 먹을 때/ 배고플 때
7. 음반 작업
8. 상담
9. Sky Walker: S.O.U.L DIVE의 첫 곡

5 Zito (지토)

1. 친한 형의 부름
2. 다양한 언어로 평화로 나타냄
3. 무대 위와 아레나에서 성격이 다른 래퍼, 오동돌을 좋아함
4. 래퍼
5. 말을 안 하기
6. 잠잘 때/ 운전할 때
7. 미니 앨범 발표 및 활동
8. 형기
9. Free Thought: 솔직한 생각이 잘 드러남

12 B-FREE

1. 초반반, 야간?
2. NO WAR, NO CRY
3. 하와이에서 자란, 직접적인 협업 매우 좋아하는 청년
4. 저음
5. 웃긴다, 거짓말을 안 한다
6. 남을 배려할 때/ 개인주의 작업할 때
7. 8월에 믹스 테이프 발표,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하와이에서 앨범 작업 8월 다.



하와이와 신발은 모두 본인 것
테이스츠는 모두 BROWN BREATH 제품으로
MNET과 공동 작업한 캠페인
"Save the Music"의 일환, 죽어가는 음악 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뜻을 담았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 예매처: 360 Sounds가 직접 디자인했다. 판매 순서는
장르는 청년층 음악 장르 계층을 위해 섰다
구인처: www.brownbree.com
서울 영등포구 타워산에이 5층 M SHOP

*4, 6, 8, 9번 공동체와 학생 중심에, 최다운, 리우준, 김소린
>> 공동체(www.myschool.com) 2년 과정으로 운영하며, 특히 10월 10일 10시 10분 운영되는 대안학교
수능 위주의 강압적인 수업을 탈피해 다양한 분야의 개별 학습 위주에 진행한다.

MAN'S BEAUTY

BY 조경진 PHOTOGRAPHS BY ARC STUDIO MAKE-UP 고영은 HAIR 이도우 MODEL 이연희
COOPERATIONS MAKE UP FOR EVER(www.makeupforever.co.kr) MAKE UP FOR EVER boutique 청담점(www.makeupboutique.co.kr) P(02)5080-400-6000



아이들의 보송보송한 피부와 또렷한 눈매, 차승원의 폭풍 카리스마 콧수염, 송승헌의 숲쟁이 눈썹. 이 모든 게 노력하면 다 당신 것이 된다. 전문가에게 확실하게 배워두자. 어슬픈 흉내따윈 용서하지 않겠다.

1. TRIM EYEBROW

* 쉬운 방법: 원하는 모양으로 미리 그린 후 모양 밖으로 빠져 나온 눈썹을 정리한다.

* 정 혼자서 눈썹을 다듬을 자 자신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메이크업 포에버 부띠끄 청담점에서 확실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눈썹 끝을 손으로 잡아서 고정시키고 눈두덩에 삐죽이 서 있는 눈썹을 민다. 원킬러라든가 눈두덩에서 피를 볼 수 있으니 욕심 내지 말고 살살 여러 번 나눠 하자.



눈썹 칼 3개 3,500원
OLIVE YOUNG
미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굵은 눈썹은 트윙저를 사용해서 뽑는다. 남자는 여자보다 털이 굵어서 무리해서 뽑으면 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자.



트윙저 26,000원
MAKE UP FOR EVER
일명 폭죽계 마트에선 1천 원 안 위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너무 저렴한 것은 잘 안 뽑는다.



양쪽 눈썹을 하나로 이어준 오직고 같은 털은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눈썹 칼을 이용해서 미간 부분만 살짝 밀어준다. 미간이 어딘지 구분 못했다간 모나리자가 될지도 모른다.



선명한 눈썹은 뚜렷한 인상을 주는 첫 번째 요소다. 펜슬 끝을 날카로운 모양으로 자르고 눈썹 결 방향으로 흐릿한 부분을 해주는 느낌으로 그려준다. 털만 곳을 색칠하려다간 키메라는 셈이 된다.

에브리 펜슬 15,000원
원래는 연필로 나왔지만 인체에 더 자연스럽게 그려져 미용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EVENT!



리뷰 완료, 등급
확장 할게!

전문가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가?
OR 코드 스캔하고 리뷰 달면
메이크업 포에버 부띠끄 청담점
으로 보내주겠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영은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메이크업 포에버 아카데미 수석 졸업 후 청담점사로 일함. 미국 사티아 메이크업 스쿨 수석 졸업, 각종 패션쇼와 광고 메이크업을 진행 함고, 제사카 고메즈, 김연아 등 유명인의 메이크업을 담당함 F잡 가수 소주자.

2. PUT ON EYELINER

* 아이리인을 그린 후 아래쪽을 10초 동안 바라보자, 아이리라인이 눈두덩에 안착해 좀 더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다.



아이리인을 그리기 전에 파우더를 얇게 발라서 눈 주변의 유분기를 잡아준다. 제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워터 프루프 제품이라 할지라도 물에 강할 뿐, 기름에 강하지 않기 때문.

파운데이션 브러시 38,000원
MAKE UP FOR EVER
미트에서 저렴한 파운데이션용 스펀지를 사용해 무관하다.



손으로 눈을 치켜올린다. 점 두께에 빈 공간을 채운다. 눈꺼풀로 점을 찍듯 예운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이리인을 속눈썹 위쪽 살에 선을 그리는 것이다. 기억해라! 여자들은 또렷한 눈매를 좋아하는 것이지 "나, 아이리라인 했어요~"라고 광고하는 눈은 혐오한다.

우즈크 동원할 제품이다.



눈동자 중앙부터 바깥 방향으로 점막을 채워나간다. 완성이. 좀 더 또렷한 인상을 원한다면 중앙에서 눈 안쪽 방향으로 같은 방법으로 예운다.

아쿠아 아이즈 아이리라인 12g
26,000원 MAKE UP FOR EVER
워터프루프 기능성 제품으로 초보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려놓은 아이리라인 위에 블랙 세도우 덧칠하면 좀 더 또렷하고 오래 유지시킬 수 있다. 적당한 양을 브러시에 묻혀 옆으로 퍼 버린다.

아이리라인 블렌딩 브러시
25,000원 MAKE UP FOR EVER
저렴한 가격대의 브러시를 사용해도 된다.

3. PUT ON FOUNDATION

* 원래 비비크림은 바피 수송 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의약품으로, 얼굴에 바르면 최색빛이 든다. 우리가 비비크림이라고 부르는 제품은 대부분 컬러 로션이다.



HD Foundation 30ml 53,000원
MAKE UP FOR EVER
캐바레이크 피어싱과 동시에 자외선 차단 피부 톤을 연출한다.



턱선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피부 톤과 가장 흡사한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고른다. 보통 남자는 가장 어둡거나 바로 위 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얼굴이 하얗다고 밝은 톤이나 중간 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면 밀가루 인형이 되기 십상이다.



먼저 얼굴 가운데부터 바르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파운데이션의 양을 적게 퍼 바른다. 그레어 얼굴 윤곽선을 살리면서 피부 결점을 커버할 수 있다.



디크서클, 뿔투지각이 있는 부분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꼼꼼히 덧바른다. 피부 결점이 심하다면 컨실러를 사용하자. 결점 부위에 컨실러를 살짝 바르고 손가락으로 퍼 발라서 파운데이션과 경계선이 남지 않게 한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른 후 손으로 얼굴을 감싸듯 살짝 눌러주면 얼굴에 더욱 밀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지성 피부라면 파우더를 얇게 바르자. 좀 더 오래 메이크업을 유지해준다.

4. TRIM MUSTACHE

* 열의 과정이 다 귀찮다면, 바리깡을 3번으로 맞추거나 빗을 써서 밀어보자. 적당한 길이의 수염만 남기고 정리할 수 있다.

* 잦은 면도로 지쳐 있는 피부는 수분이 가득 담긴 젤로 피부를 진정시키자.

* 콧수염 양이 적어서 고민 중이라면, 마이크로센이라는 발모제를 사용해보자. 연예인들이 애용한다.



볼과 이레티의 불필요한 털들은 면도기를 이용해서 제거하자.

전기면도기 400,000원대
Panasonic FPO
피부 자극이 적고 얼굴 곡면의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



빗으로 털을 빗은 후 원하는 길이만큼 당겨 고정된 후 바리깡으로 민다. 털의 외곽 모양은 얇은 바리깡이나 눈썹 칼로 다듬는다.

바리깡 100,000원대
PANEUNG
정식 수입이 안 됐으니 미용 재료상이나 육점에서 구입하자.



입술 바로 위 콧수염과 콧구멍 털은 가위를 사용해서 섬세하게 다듬는다. 제 아무리 맛있는 콧수염을 가졌더라도 콧구멍 안에서 고개 내민 것이 있다면 오늘 강좌는 말장 도우미!

수염용 가위 4500원
OLIVE YOUNG
가위 끝 양이 둥근 형태의 안전재가 있는 것이 안전하다.



군데군데 비어 보이는 부분은 에보니 펜슬을 사용해 메꾼다.

에보니 펜슬 1500원

STYLING TIP

STEP 2. 동대문 디자이너 슝

동대문에 싸구려 옷만 있다? 아니다. 동대문에 가격 대비 최상의 의류를 판매하는 디자이너 슝이 있다. 저렴하고 질 좋고 다양한 디자이너 의류를 구입하고 싶다면 당장 동대문 두타 4층으로 가라.

BY 조경민 PHOTOGRAPHS ARC STUDIO COOPERATIONS HORSECABBAGE, MOONGOON, STYLEHOMME



숍 소개 www.stylehomme.com
(두타 4층 52호)

남성 슈트의 모든 것을 판매한다. 맞춤 제작이 가능하며 포멀한 슈트의 캐주얼한 슈트까지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가격대?

기본 3pcs 슈트 150,000~250,000원
200 FW 프리미엄 슈트
300,000~400,000원
트렌드코트 100,000~200,000원대 초반

옷의 특징?

기성 브랜드보다 슬림한 피트의 슈트를 만

든다. 슈트의 피트 길이 좋아야 날씬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슝과 타 기성품 제품의 차이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알아내 소재, 패턴, 색상을 다양한 시도를 하며 소량 생산해 최소성이 있다.

반드시 필요한 슈트?

블랙 슈트는 모든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린다. (면양재+금급식 경조식 때 꼭 필요함)

슈트 고르는 법?

슈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와 봉제다. 슈트를 처음 구입한다면 블랙-네이비-그레이-브라운 순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슈트에 유일하게 수성이 불가능한 것이 어웨어 때문에 반드시 어웨어가 없는 것 확실히 구입해야 한다. 상의에 비해 하의가 빨리 상하기 때문에 슈트 구입 시 어웨어의 바지를 구입하면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다.

슈트에서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슈트에서는 큰 변화를 주기 힘들기 때문에 포인트를 타이로 주는 것이 안전하다. 과한 액세서리보다 시계나 컷츠다츠, 심플한 디자인의 브리프케이스 정도가 좋다. 품격감 슈트가 지갑이면 캐주얼한 피케 셔츠 또는 플레인 셔츠, 팬츠와 스니커즈를 함께 신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컬러 매치 시 주의해야 할 점?

한 벌의 슈트를 입었을 때 세 가지 색 이상 매치하지 말자. 물론 셔츠에 네이비 컬러 타이를 매는 것처럼 비슷한 톤으로 색을 맞추고 타이의 패턴을 이용해 변화를 주자.

의류 보관법? 손질법?

슈트는 천에 한두 번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 바지는 뒤집어서 바지감에 걸어서 건조나 재운은 옷걸이에 걸어서 의류 캐비닛 써야하면 색 변질을 막을 수 있다.

STYLEHOMME



슈트와 함께 혹은 셔츠 대용으로 입을 수 있다. 셔츠처럼 캐주얼하게 연출 가능한 트렌드코트는 가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100,000~180,000원대 100% 면 제품과 플리넨 셔츠 등 두 가지 제품이 있다.



슈트와 캐주얼한 룩에 모두 어울리는 소가죽 재질로 블랙 화이트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컬러도 다양하다. 30,000~35,000원



원 버튼 네이비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광택감이 있는 테일러드 라펠 디자인의 3pcs 슈트다. 슈트에 베스트를 착용하면 클래식 하면서 지극한 이미지를 완성할 수 있다.



두 버튼 브라운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광택감이 있는 피크드 라펠 디자인의 3pcs 슈트다. 따뜻한 베이스 색감과 약간의 광택감이 있어 세련도 보인다.



두 버튼 블랙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테일러드 라펠 디자인의 바지인 슈트다. 허리 부분에 신인 사슬을 장식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적당히 무뎠게 입을 수 있다.



원 버튼 그레이 컬러 싱글 브레스트로 피크드 라펠 디자인의 3pcs 슈트다. 허리 부분에 라인이 정돈되어 날씬하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다.

2010 FW 자체 제작 슈트의 소재는 모두 울 80%, 폴리에스테르 20%로, 모든 호퍼가 있는 부드러운 소재다. 그레이, 브라운 컬러가 트렌드나 평소에도 블랙과 네이비 컬러 슈트만 가지고 있다면 컬러에 변화를 주자. 슈트 100,000~220,000원, 셔츠 30,000~39,000원

TIPS, TIPS!

동대문 초짜를 위한 쇼핑 팁!

두타 영업시간?

월요일 오후 7:00~새벽 5:00
화~토요일 오전 10:30~새벽 5:00
일요일 오전 10:30~오후 11:00

동대문 의류의 장단점?

트렌드쇼를 빨리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스피드.

일주일 중 무슨 옷 및 시물 가아 클린 이 할까요?

금요일 야간에 당일 장사를 위해 제품을 충분히 준비해놓는 편이다.

동대문 쇼핑 시 주의사항?

소매 행위가 너무 심한 곳도 피하자. 분위기가 참슬러 흥분 구매하고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

동대문 브랜드 의류의 차이점?

가성 큰 차이점은 스피드다. 동대문 브랜드는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바로 받아들여 기획, 생산, 판매할 수 있지만 브랜드 의류는 그렇지 못하다.

질 좋은 옷을 구입하는 방법?

디자이너 브랜드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일수록 품질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다. 품질의 판단 기준은 소재, 봉제, 보관 상태 등인데, 이것은 가격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이너 슝 제품과 타 제품의 차이점?

직접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이 적다. 타 제품보다 양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가격 흥정하는 방법?

최소한 차비 정도 빼달라고 해서고 안 끊어주면 뒤집어서 가는 척 해보자. 판매자가 붙어있을 상황이니 뒤집어서 대고 욕하면 실패다. 실랑이를 하다가 소릴 기를을 만들 수도 있으니, 차라니 가격 흥정은 피하는 것이 좋다.

도매 매장에서 의류 구입 방법은?

소매 고객이 도매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지 않다. 꼭 구입하고 싶다면 판매장에 오버 사이즈 경정 기계를 들고 피곤한 얼굴로 "겉질러달라"는 동대문 시장 용어를 주세요. 혹은 "생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을 바벅거리거나 낯이 당황하지 못하면 본진도 못 건진다. 겹!

이것만큼은 동대문에서 구입하자!

대만 팬츠와 셔츠는 동대문 제품이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디자인이 대박이고, 제품 출시가 빠르다.



HORSECABBAGE

숍 소개 www.horsecabbage.com

(두타 4층 53호, A-land 명동점, 부산 LUNGE)

기본 아이템에 작은 위트를 담은 것이 특징. 상형등 오프라인 매장, 두타 오프라인 매장을 거쳐 10월엔 발가에 브루셀에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가격대?

모자: 20,000~35,000원, 티셔츠: 9,900~25,000원
셔츠: 25,000~55,000원, 팬츠: 21,500~65,000원
가방: 39,000~95,000원, 액세서리: 5,000~65,000원

쇼핑장에서 100% 성공하는 코디방법?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한꺼번에 다 코디하려 하면 안 된다. 최대한 상품화하는 작은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입자. 예를 들면 대담 반바지에 화이트 티 셔츠를 입고, 핏로 컬러 7부 셔츠를 가깝게 걸치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줘라.

의류 보관법?

완득은 풀과 건조에 따른 변형이 생기는 소모품이다. 따라서 변형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보관해야 한다. 티셔츠는 손세탁 후 그늘에서 서서히 말리고 재킷이나 셔츠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것이 좋다. 창가지는 넘겨져 나지 않는다면 세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1. 화이트 컬러 반소매 티셔츠 11,000원 / 2. 디스트로이드 데님 팬츠 6,000원 / 3. 발등 부분이 오픈된 화이트 컬러 슈즈 98,000원 / 4. 앙무로 입을 수 있는 긴팔 체크 베스트 95,000원 / 5. 접이식으로 가깝게 39,000원 / 6. 말 형상의 금장 브로치 15,000원 / 7. 컬러 벨트 6,000원 / 8. 네이비 컬러 원버튼 베스트 22,000원 / 9. 자라콜라 컬러 웨이퍼 109,000원 / 10. 화이트 컬러 티셔츠 9,000원

MOONGOON



숍 소개 www.moongoon.net (두타 4층 57호)

자체 제작 의류와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의류로 구성 되어 있는 셀렉트 스타일로, 주로 시련의 콘셉트를 선 보인다.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핏제스는 핏제스를 화이트, 레드, 그레이로 제한하며 문구만의 문장을 개발해 다른 브랜드의 디자인과 한눈에 구별이 가능하다.

가격대?

티셔츠: 20,000~50,000원, 셔츠: 30,000~70,000원
점퍼: 60,000~200,000원, 재킷: 70,000~90,000원
코트: 90,000~290,000원, 팬츠: 40,000~60,000원
산발: 40,000~290,000원

백가 나온 사람의 의류 선택법?

내가 풍채가 나와서 통해 나온 사람이 날씬하게 보이도록 코디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가 있다. 하의는 가능한 슬림한 핏제스의 디자인으로 입고 상의는 가슴과 어깨는 약간 타이트해라던 하의 부분은 약간 험렁한 디자인을 입으면 날씬해 보인다.

블랙 컬러 의류 선택법?

복합감 방지하기 위해 세탁할 때 뒤집어서 세탁한다.

1. 어깨에서 가슴까지 지퍼로 연결한 끈이 포인트인 티셔츠 49,000원 / 2. 블랙 디스트로이드 팬츠(아이돌 그룹이 많이 사간다) 59,000원 / 3. 기본 가죽 웨이퍼 190,000원 / 4. 블랙 데리드 15,000원 / 5. 블랙 점퍼투트 79,000원 / 6. 블랙 베스트 48,000원 / 7. 베스트셀러 재킷인 네이비 컬러 팬츠 59,000원 / 8. 밀리타리 스타일 모자 15,000원




TOUCH ME VOL.2 Party

GOA
LIMITED

MAXIM 5월호에 소개되었던 TOUCH ME 파티를 기억하나? 자극적인 스킨십으로 화제를 모았던 1회 터치미 파티가 2회를 맞았다! 발디딜 틈? 그런 거 없었다.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최성민, 최민준, Kaipaparazzi
COOPERATION CLUB MASSI(www.clubmass.net), GOA Limited



MAXIM 5월호에 소개되었던 TOUCH ME 파티를 기억하나? 자극적인 스킨십으로 화제를 모았던 1회 터치미 파티가 2회를 맞았다! 발디딜 틈? 그런 거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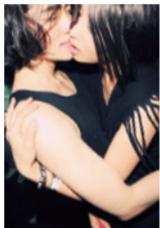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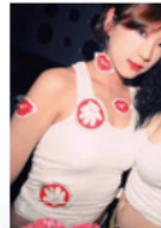
BY 유승민 PHOTOGRAPHS BY 최성민, 최민준, Kaipaparazzi
COOPERATION CLUB MASSI(www.clubmass.net), GOA Limited



01 TOUCH ME!

1회 터치미 파티가 열린 2010년 3월 20일, 강남 CLUB MASS에 모인 파티 피플도 아직 우리나라에선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이런 파격적인 파티가 과연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다. 누구나 가슴속엔 모든 이가 거리낌 없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파티를 꿈꾸지만 막상 그런 파티가 성공한 예는 별로 없다. 언제나 그렇듯 미숙한 진행과 뜨지 않는 분위기, 뿔뿔한 눈빛만 오가다 그저 그런 파티가 되어버리곤 한다. 하지만 장난스러운 느낌의 손바닥 스티커를 앞세운 게 약한 탓일까? 예상은 뒤엎고 터치미 파티는 클러버들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마치 다른 세계인 양 클러버들로 하여금 실과 실을 무비게 하고, 스킨 커뮤니케이션을 벌이게 만든 1회 터치미 파티는 막이 내린 후에 도 파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전해져가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2010년 7월 17일 그 두 번째가 시작되었다!



02 RULE

두 번째 터치미 파티의 규칙은 첫 번째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됐다.

TOUCH ME VOL. 1		스티커 붙인 부위를 만져도 좋아요.
TOUCH ME VOL. 2		스티커 붙인 부위를 만져도 좋아요.
		스티커 붙인 부위를 쿡쿡 찌러도 좋아요.
		스티커 붙인 부위에 키스해도 좋아요.





03 HOTTER!!



약천후였다. 갑자기 불어온 폭우도 터치미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소문만 듣고 반년을 참다 찾아온 사람들은 믿을 수는 없었다. 이번엔 첫 파티엔 없던 춤이 두 개 더 생겼다. 소심한 이들을 위해 좀 더 소프트한 손가락 곡곡 스티커, 그리고 만지는 것만으로 성이 차지 않는 과감한 클라버들을 위한 키스 OK 스티커가 바로 그것. 파티를 처음 찾은 사람들은 좀 놀라는 표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하나 거미핥기 없이 스티커를 하는 터치미의 물결 속에 동화되기 시작했다. 밀리는 대놓고 허락할 수 없는 이야기를 스티커로 대신하게 한 전략은 대성공이었다. 사람들은 장난기를 빌려 만지고, 찌르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어느 누구도 불쾌한 기색을 비추지 않고 더 진해진 스티커심으로 삼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고 있었다. 그야말로 주자육량! 새벽 3시가 지나, 파티를 즐기 위해 방문한 그룹 콜 멤버 김상수는 폭발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DJ 아스트로 보이스와 김상수는 놀라움 만큼 완벽한 호응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색다른 재미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과연 다음 번 TOUCH ME VOL. 3는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되지 않는가?



DJ OF THE DAY



자정을 지난 사정. DJ Rober Gaez가 텐테이 불을 마주하자 CLUB MASS는 사람들의 환호성으로 음악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DJ Rober Gaez는 최근 David Penn과 더불어 세계 최고 하우스 뮤직 프로듀서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파티 현장에서 직접 정삼급 디제잉을 선사하기도 하는데 이날이 바로 그가 텐테이불 앞에 선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 중 하나였다.

Rober Gaez는 하우스 음악의 새로운 콘셉트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스페인의 신예 프로듀서다. 그는 현재 Urbana 레코딩에서 많은 곡을 발매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하우스 뮤직 레이블인 Defected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

했다. 최근 성공적인 하우스 음반이었던 《Our Darkness(Urbana 레코딩)》과 《What is house(Defected)》의 제작에 참여했다. 오랜 디제이 부스 경험과 모스카, 프랑크푸르트, 오포르트, 빈, 더블린 등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면서 얻은 다양한 문화에 관한 이해는 전 세계 하우스 음악 팬들이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MAXIM 파티를 항상 주시하라.

FX
남자의 모든 것

UFC

8월 22일(일) 오전 11시

9월 5일(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진짜 남자 채널

FX 진정한
UFC를 깨우다!

MAXIM

🇰🇷 SOUTH KOREA

STARCRAFT 짐 레이너

게임 속 레이너와의 실제 인터뷰

MAXIM BUSINESS

돈 버는 주식투자의 5가지 카드
명예훼손, 어디까지 해봤니?

자산 ROCK FESTIVAL

TAXI기사 25시
무형 3대천왕

인디시트콤으로 돌아온

MILK의 박희본

빠순이 잔혹사
나폴레옹의 오른팔 뒤라
도검의 세계

2010년 9월호



굽시니스트

별의별 공포증
돼지 맛있게 굽는 법
당신의 여친은 스파이

스마트폰 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

'웃기네'의
하늘이 돌아왔다

ROTTYFUL SKY

NBA 오프시즌 결산

인간여러 감남훈의
FIGHTER'S LIFE

MAXIMI
피라미드를
장식하다
남자의 화장법



부수공시지구
한국ABC지구

MAXIM은 발행부수를
부풀리지 않습니다. 매
월 MAXIM의 발행부수
는 국제적 부수인증기
구 ABC가 인증합니다.